

모시는 글

A.I.기술이 현대인의 생활에 반영되면서, 삶의 질 向上을 위한 기술 경쟁도 深化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물질적 풍요를 前提하는 삶이 정신적 행복까지 擔保할 수 없듯이, 마음의 안식을 찾는 사람들의 바람이 커질수록 精神文化의 가치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본회에서는 우리의 정신문화 형성에 영향을 준 東洋古典을 번역하고 현대화함으로써 傳統文化의 전승과 계발을 위해 힘써오고 있습니다.

첫 추위가 찾아오는 절기인 小雪에 〈古典의 현대적 해석과 A.I.번역〉이란 주제로 2019년 傳統文化研究會 학술발표회가 열립니다. 《孝經注疏》와 《孔子家語》의 完譯을 기념하여 고전의 현대적 해석방안을 再考하고, 한문고전에서의 A.I.번역기술 활용방법과 전망을 살펴봄으로써 고전번역의 미래를 논하는 자리를 마련하였습니다.

겨울 보리농사의 풍년을 위해 이른 추위를 감내한다는 의미인 “小雪 추위는 빛을 내서라도 한다.”라는 속담처럼, 현 시대에 古典을 연구하는 고된 작업은 미래의 結實을 위한 선행과제가 될 것입니다. 古典의 현대적 해석과 A.I.번역에 대해 참석하신 여러분들의 高見을 청하고자 하오니, 많은 참여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2019년 11월 일

전 통 문 화 연 구 회

상임고문 李漢東
이사장 趙富英
회장 李啓晃

2019년 학술발표회 일정표

古典의 현대적 해석과 A.I.번역

사회 : 元周用(성균관대 초빙교수)

■ 개회사 : 宋載邵(동양고전번역연구소 소장) 14:10~14:15

■ 축사 : 沈在箕(서울대 명예교수, 前 국립국어원 원장) 14:15~14:30

◆ 출판기념식 14:30~15:00

1. 五書五經讀本

- 《詩經集傳》[전3책] | 역 주 : 朴小東(한국고전번역원 명예한학교수)
- 《書經集傳》[전3책] | 역 주 : 金東柱(漢學者)
- 《小學集註》[전2책] | 역 주 : 李忠九(성신여대 연구교수)
金在烈(漢學者) 黃鳳德(본회 번역위원)
李承容(단국대 동양학연구원 연구원)

2. 東洋古典譯註叢書

- 《孝經注疏》[전1책] | 책임번역 : 鄭太鉉(한국고전번역원 명예한학교수)
| 공동번역 : 姜珉廷(한국고전번역원 번역위원)
- 《孔子家語》[전2책] | 책임번역 : 許敬震(연세대 명예교수)
| 공동번역 : 具智賢(신문대 교수)
崔二浩(본회 번역위원)

■ 연구발표

주제 : 古典의 현대적 해석과 A.I.번역

- 《리어왕(King Lear)》과 함께 읽는 《孝經》 15:10~15:40
| 姜珉廷(한국고전번역원 번역위원)
- 《孔子家語》의 流傳과 讀者 15:40~16:10
| 許敬震(연세대 명예교수)
- 人工知能으로 인한 器械翻譯 技術의 發展 및 活用 16:20~17:00
| 李清浩(에버트란 대표)

■ 폐회 및 다과회 17:00~18:00

〈 목 차 〉

【연구발표 01】

- 《리어왕(King Lear)》과 함께 읽는 《孝經》 01
| 姜珉廷(한국고전번역원 번역위원)
- 《孝經注疏》 解題 13

【연구발표 02】

- 《孔子家語》의 流傳과 讀者 41
| 許敬震(연세대 명예교수)

【연구발표 03】

- 人工知能으로 인한 器械翻譯 技術의 發展 및 活用 63
| 李清浩(에버트란 대표)

연구
발표
01

《리어왕(King Lear)》과
함께 읽는 《孝經》

姜 珉 廷

(한국고전번역원 번역위원)

《리어왕 *King Lear*》과
함께 읽는 《孝經》

한국고전번역원 번역위원 姜珉廷

- ❖ 효경의 경문
저자
성립 시기
금문효경과 고문효경
- ❖ 효경의 주석서
唐 玄宗의 御注孝經
邢昺의 孝經正義
朱熹의 孝經刊誤
董鼎의 孝經大義
- ❖ 효경의 한반도 전래와 간행
- ❖ 효경의 내용
- ❖ 효경주소 번역의 의의

《리어왕 *King Lear*》

- ❖ Love
 - 세 딸의 사랑표현 콘테스트 결과에 따른 상속
 - 은퇴 후 부양의무 계약 위반에 따른 파국
 - 중세 봉건시대의 자연관, 균열이 시작된 신분제
 - 가식과 우직함, 간계와 진실 혼동에 대한 안타까움
 - 정서적, 신체적, 재정적 학대에 대한 반감
 - 속죄와 치유

《효경孝經》

- ❖ 愛親과 敬親
 - 유아기 때 친밀감 형성
 - 성장 과정의 보호와 부양
 - 시대와 지역을 초월한 인류 보편의 감정 → 효의 감정을 자극하는 것이 최고의 통치 행위
 - 봉건시대의 통합적 자연관과 안정적인 신분제에 기반
 - 君親의 판단 오류 가능성과 그에 대한 보완 장치
 - 死後까지 연장되는 효 → 통치자의 효의 감정을 자극하여 德治 유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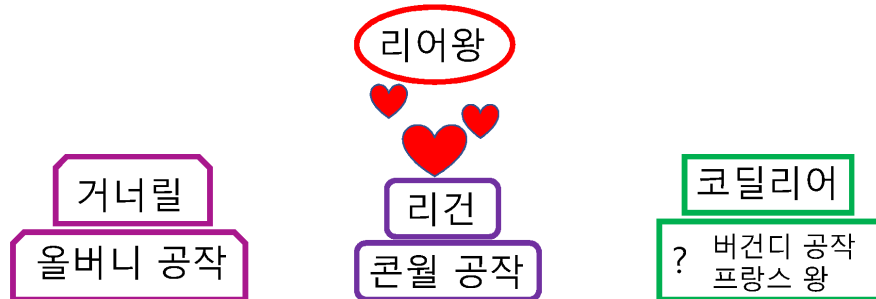


“너희 중에 누가 이 애비를 가장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겠느냐? 짐은 영토의 가장 크고 풍성한 몫을 짐에게 가장 큰 효성을 보이는 쪽에 줄 참이다.”

이하에 인용된 대사는 모두 『김한 옮김, 리어왕, 도서출판 동인, 2016』의 번역문에서 가져와 약간의 수정을 가했음을 밝힙니다.



“저는 말로써 표현할 수 있는 이상으로 폐하를 사랑합니다. 시간과 공간과 자유보다 더욱, 우아함과 건강과 아름다움과 영예를 갖춘 삶을 위시하여, 가치 있고 부유하고 희귀한 그 어떤 것보다 더욱 폐하를 사랑합니다.”



“언니가 한 말이 바로 저의 사랑을 그대로 표현해주었습니다.
다만...저는 **폐하를 사랑하는 것에서만 오직 기쁨을 느낄 뿐**,
어떤 고귀한 감각으로 누리는 낙일지라도 모든 **다른 기쁨들**
은 적으로 여기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Nothing.”

“Nothing will come of nothi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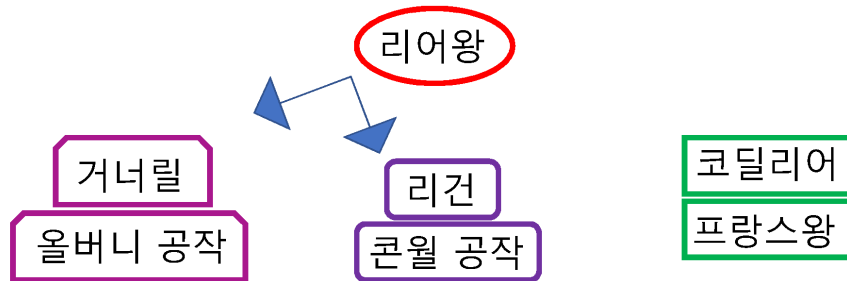
“제 가슴을 입에 담아내는 능력이 없어 불행하군요. 저는
제 도리껏 폐하를 사랑할 뿐, 그 이상도 이하도아닙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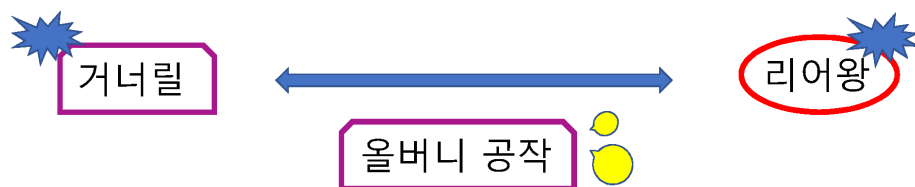
“폐하께서는 저를 낳아주고 길러주고 사랑해주셨습니다.
저는 거기에 합당한 만큼의 의무를 돌려드릴 뿐입니다.
폐하께 순종하고 사랑하고 폐하의 영예를 가장 존중할
뿐입니다...제가 결혼하면 제 사랑과 돌봄과 의무의 절반
을 남편이 가져갈 것입니다.”



“그렇다면 네 진실을 네 지참금으로 삼으라...이제 나는 부
모로서 돌보는 모든 의무와 친족으로서의 혈연을 파기할
것을 선언한다...여생을 저 아이에게 의지하려고 했건만,
씩 꺼져라...정직이라 부르는 오만심을 지참금 삼아 결혼하
라고 하지.”



“짐의 권력과 함께 최고의 주권과, 왕에게 따르는 모든 찬란한 권세의 표식들을 양도한다. 짐은 백 명의 기사를 거느리고 매달 번갈아가며 너희들의 성에 머무를 것이다. 짐은 왕의 칭호만 남기고...모든 통솔권과 재산, 집행권은...그대들의 것이 될 것이다.”



“100명의 기사들...너무도 난폭하고 방탕하고 무례하기 짝이 없는...시종의 숫자를 조금 줄이시고...아버지의 처지를 제대로 아는 자들로 뽑아 주세요.”

“친애하는 여신이며, 들으소서...아이를 낳게 하실 거라면...고마움을 모르는 아이를 가지는 것이 독사의 이빨보다 얼마나 통렬한가를 느끼게 하소서!”

“무엇이! 내 시종의 50명을 줄였다고? 두 주 만에!”



“한 달을 다 채울 때까지 언니한테 돌아가 계시다가 저에게 오실 땐 시종을 절반으로 줄여서 오세요.”

“어떻게 한 집안에서 두 개의 명령체계 아래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우정을 유지할 수 있겠어요?...한 명은 무슨 필요가 있어요?”

“필요를 따지지 말라...인간에게 육체가 필요로 하는 것 이상을 허락하지 않는다면 인간의 몸은 짐승만큼이나 값싼 것이 되지...내 가슴이 만 가닥으로 찢개질 것 같구나. 오 바보야! 나 미칠 것 같다.”



“폐하, 저를 보세요. 그리고 손을 들어 축복해주세요.”

“네가 나를 위해 준비한 독약이 있다면 마시겠다...넌 나를 미워할 이유가 있지 않느냐?”

“아무 이유가 없습니다. 없습니다.”

“나를 참아 주오. 부디 잊고 용서해 주오. 나는 늙고 어리석은 자요.”

글로스터 백작

적자 에드거

서자 에드먼드

“어째서 나는 관습이 주는 병폐를 겪어야 하며...사람의 법이 나를 박탈하도록 허용해야 한단 말인가?...어째서 서자인가? 어째서 비천하다는 것인가? 난 몸매도 잘 빠졌고...고매한 기상에도, 생김새도 아버지를 쏙 빼닮았는데...적자 애드거여, 나는 그대의 땅을 차지하겠다. 아버지의 사랑이...서자 에드먼드에게도 향하는 것이거늘...신들이여, 서자의 편에 서주소서.”

- 에드먼드의 自害
- 거너릴의 自決
- 거너릴의 리건 독살

- 身體髮膚 受之父母 不敢毀傷 孝之始也

- 에드먼드의 출세욕
- 거너릴과 리건의 권력욕

- 立身行道 揚名於後世 以顯父母 孝之終也

- 義絶 당한 에드거
- 의절 당한 코딜리어

리어왕

- 정직한 코딜리어를 미워함
- 세 딸에게 사랑 표현 경쟁을 강요함
- 켄트 백작의 충언을 무시하고 추방함
- 상징적 왕권마저 상실

天자의 효

- 愛親者 不敢惡於人
- 敬親者 不敢慢於人
- 天子有爭臣七人 雖無道 不失其天下

고너릴과 리건

- 아버지의 상징적 권력 박탈. 정서적, 재정적, 신체적 학대.
- 에드먼드와 부적절한 관계

콘월 공작

- 리건의 리어왕 학대에 동조

올버니 공작

- 거너릴의 학대에 문제 제기

諸侯의 효

- 在上不驕 高而不危
- 制節謹度 滿而不溢
- 諸侯有爭臣五人 雖無道 不失其國

글로스터

- 적서차별의 고착된 신분제와 절대왕정의 중세적 정치체제에 충실하게 처신함.
- 그러나 결과는 무고한 적자 애드거와 義絶, 리어왕의 복권을 시도했으나 무의미한 희생, 영토 상실.
- 상업자본주의가 부상하는 격변의 시대 상황
- 왕권 이양 후의 변화된 정치지형

大夫의 효

- 非先王之法服 不敢服
- 非先王之法言 不敢道
- 非先王之德行 不敢行
- 大夫有爭臣三人 雖無道不失其家

에드먼드

- 애정결핍, 적서차별에 대한 불만.
- 사랑과 존경이 온전치 못함

에드거

- 진실한 사랑과 존경.
- 추방당한 불구의 아버지를 극진히 보호, 인도, 치유함.
- 그러나 성찰 없는 기득권 향유로 형제와의 분란 막지 못함.

코딜리어

- 도리에 맞는 사랑과 존경.
- 불이익을 감수하는 직언.
- 학대받는 아버지 구출 위해 전쟁 불사
- 그러나 유연성 부족으로 파국의 원인 제공

士의 효

- 資於事父 以事母 而愛同
- 資於事父 以事君 而敬同
- 事親者 居上不驕 爲下不亂 在醜不爭
- 孝子之事親也 居則致其敬 養則致其樂 病則致其憂 喪則致其哀 祭則致其嚴

❖ 시대, 지역, 문화의 차이와 무관한 인류 보편의 내재적 감정

- “親生之膝下 以養父母 日嚴”
 - 父子 간의 태생적 親愛의 감정: 낳은 정
- “父子之道 天性也 君臣之義也”
 - 父子 간의 후천적 尊敬의 감정: 기른 정
- “母取其愛 而君取其敬 兼之者 父也”

❖ 통합적 자연관 : 인간의 행위와 자연 현상의 긴밀한 관련성

- “夫孝 天之經也 地之義也 民之行也.....則天之明 因地之利 以順天下”
 - 孝는 천지인 三才를 관통하는 덕목
- “昔者 明王事父孝 故事天明 事母孝 故事地察”
- “生則親安之 祭則鬼享之 是以 天下和平 災害不生 禍亂不作”
 - 인간 사회의 화평함으로 災害 방지. 조상신이 중간 역할
 - 통치자가 아랫사람들을 예우하는 궁극적 목적: 事先王
 - 통치자의 내재적 효심을 자극하여 자발적 德治 유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孝經注疏》 解題

鄭太鉉・姜珉廷^{*)}

《孝經》은 儒家의 十三經 중 다른 경서에 비할 수 없을 만큼 짧은 편폭(今文 기준 1,799자)에 내용도 ‘孝’라는 단일 주제로 귀결되는 비교적 간단한 책이다.

태어남과 동시에 발생하여 단 한 사람도 예외일 수 없는 관계, 낳아 기른 인연만으로 거의 무조건 발현되는 자식에 대한 사랑, 그 관계와 감정의 본질성으로 인해, 전통사회에서는 부모에 대한 사랑과 報恩의 표현인 孝가 사람답기 위한 가장 기본적이고 보편적인 윤리 규범이었다. 나아가 孝는 “충신을 구하려면 반드시 효자의 가문에서 찾는다.[求忠臣 必於孝子之門]”¹⁾라는 말이 대표하듯이 忠과 연결되어 가정 내의 실천 윤리를 넘어선 국가 통치의 원리로 작동하기도 하였다.

이 때문에 《효경》은 짧은 편폭에도 불구하고 제왕으로부터 여염의 부녀자와 아동에 이르기까지 독서층이 광범하였으며, 著者和 편찬 시기를 비롯하여 今·古文 논쟁과 章句의 변동 및 다양한 주석서의 출현 등 여느 경서에 못지않게 복잡한 논쟁이 전개되었다. 본 해제에서는 《효경》의 성립과 今·古文 논쟁, 역대 주석서, 전근대 시기 한반도의 《효경》 전래와 간행, 《효경주소》의 내용 등을 차례로 살펴보고 《효경주소》 번역의 의의를 짚어보았다.

1. 《효경》의 성립과 今·古文

《詩經》·《書經》·《易經》 등의 ‘經’은 伏羲·文王·周公·孔子 등 聖인이 저술 또는 정리했거나 성인의 언행이 주요하게 기록되어 항구적으로 典範 또는 綱領의 위치를 점하는 儒家 典籍을 지칭하는 말이다.²⁾ 이는 先師의 저작에 대한 尊崇의 뜻을 담은 칭호로, 秦代까지 《詩》·《書》·《易》 등으로 부르던 것을 漢代에 비로소 ‘經’자를 붙여 부르기 시작하였다.³⁾ 이전까지는 諸子百家的 하나에 불과하던 유가 철학이 ‘獨尊儒術’(오직 유가의 학술만을 존

*) 鄭太鉉: 韓國古典翻譯院 名譽漢學教授, 傳統文化研究會 顧問

姜珉廷: 韓國古典翻譯院 翻譯委員

1) 《後漢書》 권56 〈韋彪列傳〉

2) 張華(晉), 《博物志》 권4. “聖人制作曰經 賢者著述曰傳”; 劉勰(南朝梁), 《文心雕龍》 〈宗經〉. “經也者 恒久之至道 不刊之鴻教也”; 《四庫全書總目》 〈經部總敘〉. “蓋經者非他 卽天下之公理而已”

숭함)’을 표방한 漢代에 들어 유가의 테두리 안에 머물지 않고 국가의 통치와 백성의 교화를 위한 규범과 도구로 기능함⁴⁾에 따라 나타난 현상이다.

《孝經》 역시 유가의 주요 경전 중 하나이기에 ‘經’자의 의미를 위와 동일한 것으로 오해하여 ‘孝에 대한 經典’이라는 말로 생각하기 쉽다. 그러나 《효경》의 ‘경’은 이와 무관하다는 것이 정설이다. B.C. 241년에 저술된 《呂氏春秋》〈先識覽 察微〉에 《孝經》〈諸侯章〉의 내용을 인용하면서 ‘孝經’이라는 명칭을 사용하는 등 《효경》은 漢代 이전부터 이렇게 불려왔기 때문이다.

‘孝經’이라는 명칭은 〈三才章〉의 “孝는 하늘의 항상됨[經]이고 땅의 義로움이며 백성이 변함 없이 실천해야 할 行實이다.”라는 말에서 유래하였다. 孝는 천·지·인 三才의 세 측면 중 가장 큰 하늘의 측면에서 ‘항상됨[經]’으로 규정되기 때문에 축약하여 ‘孝經’이라고 한 것이다. 〈古文孝經序〉에 “孝經이란 무엇인가? ‘孝’는 사람의 高尚한 행위이고, ‘經’은 항상됨이다.”⁵⁾라고 한 것과, 皇侃이 “‘經’은 항상됨이요, 법도이다.”라고 한 것,⁶⁾ 그리고 董鼎의 《孝經大義》에 “‘經’은 항상됨을 뜻하니, ‘孝經’이라 이름한 것은 이 책이 천하 만대의 不變의 法이라 이를 수 있기 때문이다.”라고 한 것⁷⁾이 모두 이와 통한다.

1) 《효경》의 저자

《효경》은 孔子와 曾子가 孝에 대해 一時에 주고받은 문답 형식을 취하고 있으나 《논어》에 보이는 孝에 대한 문답과 차이가 있다. 《論語》〈爲政〉에서 공자는 “살아계실 때는 禮로 섬기고, 돌아가시면 禮로 장사 지내고, 禮로 제사 지내야 한다.(孟懿子)” “부모는 오직 자식이 병을 앓을까 걱정하신다.(孟武伯)” “말이나 개도 모두 길러줌이 있으니, 공경하지 않는다면 개와 말을 기름과 무슨 차이가 있겠느냐.(子游)” “안색을 좋게 갖는 것이 어려우니, 일이 있을 때 수고로움을 대신해드리고 술과 밥이 있을 때 먼저 드시게 하는 것만 가지고 孝라고 할 수 있겠느냐.(子夏)”라고 답하여 질문자에게 절실한 점만을 구체적이고 단편적으로 말하였다.⁸⁾ 반면에 《효경》에서는 증자 개인의 특성과는 무관하게 보편적이고 장황한 논설로 답하였다.

3) 이러한 의미의 ‘經’은 《莊子》〈天運〉의 “孔子謂老聃曰 丘治詩書禮樂易春秋六經 自以爲久矣 孰知其故矣”에서 처음 보인다. 《장자》에는 莊周(B.C. 369~B.C. 286)와 후학들의 저술이 섞여 있으므로 그 저작 연대를 전국시대부터 한초까지로 보고 있다.

4) 漢 武帝 때 董仲舒가 제자백가를 모두 물리치고 오직 유가의 학술만을 존숭할 것을 주장하였는데 무제가 이를 받아들였다. 이후 2,000년 간 중국에서 유가 철학이 독보적인 위치를 점하게 되었다.(《漢書》〈董仲舒傳〉)

5) 《古文孝經》〈序〉“孝經者何也 孝者 人之高行 經 常也”

6) 《孝經注疏》〈御製序并注〉. “皇侃曰 經者 常也 法也”

7) 鄭太鉉 譯註, 《孝經大義》, 傳統文化研究會(2009), 22~23쪽.

8) 《論語》〈爲政〉. “孟懿子問孝 子曰 無違 樊遲御 子告之曰 孟孫問孝於我 我對曰 無違 樊遲曰 何謂也 子曰 生 事之以禮 死 葬之以禮 祭之以禮” “孟武伯問孝 子曰 父母唯其疾之憂” “子游問孝 子曰 今之孝者 是謂能養 至於犬馬 皆能有養 不敬 何以別乎” “子夏問孝 子曰 色難 有事弟子服其勞 有酒食先生饌 曾是以爲孝乎”

또 《논어》에서는 자식이 부모의 뜻을 존중하여 함부로 벗어나지 말아야 함을 강조하였다. “부모를 섬길 때는 은근히 諫해야 하니, 諫言을 따르지 않으시거든 더욱 공경할 뿐 어기지 말아서, 고달프더라도 원망하지 말아야 한다.” “부모가 살아계시면 멀리 나가 놀지 말아야 하며, 놀러 나가게 되면 반드시 일정한 方所가 있어야 한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3년 동안은 아버지의 道를 바꾸지 말아야 孝라 할 수 있다.” “孟莊子の 효행 중에 다른 것은 웬만하면 할 수 있는 일이지만, 아버지의 신하와 아버지의 政事를 바꾸지 않은 것은 웬만해선 하기 어려운 일이다.”라고 한 것이 그것이다.⁹⁾ 반면에 《孝經》〈諫諍章〉에서는 부모로 하여금 一家를 넘어선 객관적 是非의 기준을 따르도록 적극적으로 간쟁하는 것이 효라고 하면서, 부모의 안색을 살피라거나 아버지의 처사를 고수하라는 등의 언급이 없다.

이 때문에 《효경》은 孔子가 曾子에게 일러준 것을 증자가 기록한 것이라고 한 司馬遷의 기록에 많은 이설이 제기되었다. 역대의 이설을 정리하면 표 1과 같다.

표 1. 《효경》의 저자에 대한 諸說

저자	근거 또는 주장	論者 또는 出處
孔子	공자가 “나의 뜻은 《春秋》에 있고, 행실은 《孝經》에 있다.”라고 함. ¹⁰⁾	孝經緯 《鉤命訣》
曾子	공자가 曾參이 孝道에 밝다 여겨 孝에 대해 가르침. 증삼 ¹¹⁾ 이 가르침을 듣고 《효경》 저술. ¹²⁾	司馬遷(B.C. 145 또는 B.C. 135~?) 孔安國(西漢)
孔子의 제자	공자와 증자가 효에 대해 논한 것을 공자의 제자들이 기록. ¹³⁾	司馬光(1019~1086)
曾子의 제자	증삼을 ‘曾子’로 칭하여 높임. ¹⁴⁾ 증삼이 공자에게 들은 것을 제자들에게 口述하고 제자들이 정리하여 《효경》 저술.	胡寅(1098~1156) 晁公武(宋)
子思	子思가 《中庸》을 짓고, 할아버지인 孔子의 말을 追述함. 공자의 字(仲尼)를 칭한 것은 이 때문. ¹⁵⁾	馮椅(宋)
齊·魯일대의 陋儒	〈三才章〉 이후는 모두 齊·魯 일대의 陋儒가 《春秋左氏傳》 등의 말을 모아 만든 것. ¹⁶⁾	朱熹(1130~1200) 熊禾(宋末元初)

9) 《論語》〈里仁〉. “子曰 事父母幾諫 見志不從 又敬不違 勞而不怨” “子曰 父母在 不遠遊 遊必有方” “子曰 三年無改於父之道 可謂孝矣”; 《論語》〈子張〉. “曾子曰 吾聞諸夫子 孟莊子之孝也 其他可能也 其不改父之臣與父之政 是難能也”

10) 漢代의 緯書 孝經緯 《鉤命訣》 “昔者孔子有云 吾志在春秋 行在孝經 此二學者 聖人之極致 治世之要務也”

11) 증삼: 曾參의 字가 子輿이므로 ‘參’은 ‘驂(결마 참)’의 통용자로 보아 ‘참’으로 읽어야 한다는 설이 近理하다. 字는 이름자와 관련 있는 글자로 짓는 것이 통례이기 때문이다. 다만, 우리나라에서는 통상 ‘삼’으로 읽어왔으므로 본고에서는 우선 이에 따라 표기하였다.

12) 《史記》 권67 〈仲尼弟子列傳 曾參〉. “孔子以爲能通孝道 故授之業 作孝經 死於魯” 《古文孝經》〈序〉 “唯曾參躬行匹夫之孝 而未達天子諸侯以下揚名顯親之事 因侍坐而諮問焉 故夫子告其誼 於是曾子喟然知孝之爲大也 遂集而錄之 名曰孝經 與五經並行於世”

13) 司馬光, 《古文孝經指解》〈序〉. “故孔子與曾參論孝 而門人書之 謂之孝經”

저자	근거 또는 주장	論者 또는 出處
先秦~漢初의 儒者	《효경》의 문장이 《禮記》와 가까움. 원래 《예기》의 한 편이었던 것이 떨어져 나옴. ¹⁷⁾	紀昀(1724~1805)
漢代의 儒者	공자의 저술이 아닐 뿐만 아니라 周秦時代의 말도 아님. ¹⁸⁾	姚際恒(1647~1715)
孟子的 제자	《효경》의 사상이 《맹자》의 사상과 유사함. ¹⁹⁾	王正己(中國)
공자·증자 및 이들의 제자와 再傳 제자	戰國時代의 《효경》 원본이 유실되고 漢初에 《呂氏春秋》에 인용된 《효경》 문구와 先秦時代 各書에서 뽑아 今本 《효경》을 僞撰함. ²⁰⁾	胡平生(中國)
呂不韋의 食客	《呂氏春秋》의 전 체계에서 ‘孝’가 매우 중시되었으며, 〈孝行覽 孝行〉은 《효경》과 상통함. ²¹⁾	김용옥(韓國)
漢初 公孫弘류의 俗儒	‘孝로 粉飾된 忠’을 강조한 《효경》의 저술 의도가 법 치를 儒術로 분식한 한초 유자들의 사상과 상통함. ²²⁾	李成珪(韓國)

2) 《효경》의 성립시기

《효경》의 저자에 대한 설이 분분한 것과 달리, 그 저술 시기는 다른 古籍들과의 사상적 공통점 및 상호 引用 관계에 근거하여 대체로 전국시대 말기(B.C. 3C)부터 漢初까지로 보고 있다.²³⁾ 《효경》에는 《춘추좌씨전》·《순자》·《여씨춘추》와 유사한 문구들이 발견되는데 정리하면 표 2와 같다.

14) 《郡齋讀書志》〈孝經類 孝經 1卷〉. “今其首章云 仲尼居 曾子侍 則非孔子所著明矣 詳其文義 當是曾子弟子所爲書也”

15) 《困學紀聞》 권7 〈孝經〉. “馮氏曰 子思作中庸 追述其祖之語 乃稱字 是書當成於子思之手”

古禮에는 자손이 죽은 조상을 칭할 때 字를 칭하여 이름을 諱하였다는 설에 근거한 것인데, 이와 같은 설은 《儀禮義疏》 권37 〈少牢饋食禮〉에서 ‘主人曰孝孫某……尙饗’에 대한 義疏의 ‘稱祖之字 諱名 不諱字 如子思作中庸 稱仲尼是也’에 보인다.

16) 《經義考》 권222 〈孝經〉. “朱子曰 孝經獨篇首六七章爲本經 其後爲傳文 然皆齊魯間陋儒纂取左氏諸書之語爲之”

17) 《四庫全書總目》〈經部 孝經類敘〉. “今觀其文 去二戴所錄爲近 要爲七十子徒之遺書 使河間獻王採入一百三十一篇中 則亦禮記之一篇 與儒行緇衣轉從其類 惟其各出別行 稱孔子所作”

18) 姚際恒, 《古今僞書考》. “案是書來歷 出于漢儒 不惟非孔子作 併非周秦之言也”

19) 王正己, 〈孝經今考〉《古史辨》 第4冊, 海南出版社, 1933.

20) 胡平生, 〈孝經是怎樣的一本書〉《孝經譯注》, 中華書局, 2009.

21) 김용옥은 呂不韋가 秦帝國을 운영할 제1원리로 권위주의를 탈피하여 자연적이면서도 보편적 덕성인 ‘孝’에 주목했다고 하였다.(김용옥, 《효경한글역주》, 통나무, 2010, 243~245, 250~265쪽)

22) 李成珪, 〈漢代 孝經의 普及과 그 理念〉《韓國思想史學 10-1》, 한국사상사학회(1998), 215쪽.

23) 胡平生, 〈孝經是怎樣的一本書〉《孝經譯注》, 中華書局, 2009.

표 2. 《춘추좌씨전》·《순자》·《여씨춘추》와 유사한 《효경》의 문구

효경 三才章	夫孝 天之經也 地之義也 民之行也 天地之經 而民是則之 則天之明 因地之利	춘추좌씨전 昭公 25년	夫禮 天之經也 地之義也 民之行也 天地之經 而民實則之 則天之明 因地之性
효경 聖治章	以順則逆 民無則焉 不在於善 而皆在於凶德	춘추좌씨전 文公 18년	以訓則昏 民無則焉 不度於善 而皆在於凶德
효경 聖治章	君子則不然 言思可道 行思可樂 德義可尊 作事可法 容止可觀 進退可度 以臨其民	춘추좌씨전 襄公 31년	故君子在位可畏 施舍可愛 進退可度 周旋可則 容止可觀 作事可法 德行可象 聲氣可樂 動作有文 言語有章 以臨其下
효경 事君章	君子之事上也 進思盡忠 退思補過	춘추좌씨전 宣公 12년	林父之事君也 進思盡忠 退思補過
효경 諫諍章	曾子曰……敢問子從父之令 可謂孝乎 子曰……昔者 天子有爭臣七人 雖無道 不失其天下 諸侯有爭臣五人 雖無道 不失其國 大夫有爭臣三人 雖無道 不失其家 士有爭友 則身不離於令名 父有爭子 則身不陷於不義	荀子 子道篇	魯哀公問於孔子曰 子從父命 孝乎……子貢曰……孔子曰……昔萬乘之國 有爭臣四人 則封疆不削 千乘之國 有爭臣三人 則社稷不危 百乘之家 有爭臣二人 則宗廟不毀 父有爭子 不行無禮 士有爭友 不爲不義
효경 諸侯章	高而不危 所以長守貴也 滿而不溢 所以長守富也 富貴不離其身 然後能保其社稷 而和其民人	呂氏春秋 先識覽 察微	孝經曰 高而不危 所以長守貴也 滿而不溢 所以長守富也 富貴不離其身 然後能保其社稷 而和其民人
효경 天子章	愛親者不敢惡於人 敬親者不敢慢於人 愛敬 盡於事親 而德教加於百姓 刑于四海 蓋天子之孝也	呂氏春秋 孝行覽 孝行	故愛其親 不敢惡人 敬其親 不敢慢人 愛敬盡於事親 光耀加於百姓 究於四海 此天子之孝也

이와 같은 유사성은 《효경》과 《춘추좌씨전》·《순자》·《여씨춘추》의 강한 관련성을 추측케 한다. 특히 《孝經》〈諫諍章〉과 《荀子》〈子道篇〉의 사상적 공통성(절대적 服從보다 적극적인 諫諍을 장려하는 객관주의·합리주의)을 근거로 《효경》의 성립 시기 상한선을 순자가 활동한 B.C. 280년 이후로 좁혀 볼 수 있다.²⁴⁾

또 《呂氏春秋》〈先識覽〉에 “《孝經》에 이르기를〔孝經曰〕”이라는 출전 제시와 함께 《孝經》〈諸侯章〉의 내용이 그대로 인용되고 〈孝行覽〉에 출전 제시는 없으나 《孝經》〈天子章〉의 내용과 거의 일치하는 서술이 있음에 근거할 때 《효경》의 성립 시기 하한선을 《여씨춘추》가 완성된 B.C. 241년 이전으로 좁혀 볼 수 있다. 다만, 《여씨춘추》에 後代의 僞撰이 섞여 있을 가능성과 함께 《효경》의 문장이 《禮記》와 가까운 점, 그리고 ‘孝로 粉飾된 忠’을 강조한 저술 의도를 고려하여 하한선을 漢初까지로 늦춰 잡기도 한다.

24) 김용옥, 《효경 한글역주》, 통나무(2010), 217~222쪽.

3) 《今文孝經》과 《古文孝經》

유가의 많은 경전들과 마찬가지로 《효경》도 今文과 古文의 양대 계통이 있다. 今文經은 漢代의 隸書로 쓰여진 경서이고, 古文經은 先秦時代의 蝌蚪文字로 쓰여진 경서이다. 秦 始皇의 焚書坑儒를 거친 후 漢 惠帝 때 挾書律이 폐지됨에 따라 그 동안 비밀리에 口傳되거나 보관되었던 경서가 다시 세상에 모습을 드러내었다.

《금문효경》과 《고문효경》 중 먼저 재출현한 것은 《금문효경》이다. 秦나라 때 河間의 顏芝가 협서율을 피해 은밀히 보관해두었던 18장의 《효경》을 漢 武帝 建元(B.C.140~B.C.135) 初²⁵⁾에 그의 아들 顏貞이 꺼내어 바쳤는데, 河間獻王(?~B.C.130)²⁶⁾이 이를 무제에게 바쳤다. 이것이 《금문효경》이다.²⁷⁾ 長孫氏, 博士 江翁, 小府 后倉, 諫議大夫 翼奉, 安昌侯 張禹 등이 《금문효경》을 연구하여 일가를 이루었으며,²⁸⁾ 成帝 때 劉向(B.C.77~B.C.6)이 황실 典籍을 校勘 정리할 때 《금문효경》을 바탕으로 《고문효경》과 비교하여 번잡하거나 난해한 부분을 삭제하고 18장의 定本을 만들었다. 이 定本을 가지고 鄭衆(?~83)·馬融(79~166)·鄭玄(172~200) 등이 注를 내었는데, 그 중 정현의 《孝經注》를 《금문효경》 계열의 대표 주석서로 일컫는다.²⁹⁾

정현의 《今文孝經注》는 東晉 穆帝 永和 11년(355)과 孝武帝 太元 원년(376)에 왕명으로 《효경》에 대해 토의할 때 박사 荀昶에 의해 처음 최고의 《효경》 주석서로 인정받았다.³⁰⁾ 이 책은 梁나라 말기의 혼란 속에도 유실되지 않았으나, 南朝 齊나라의 국자감 박사 陸澄(425~494)이 僞作說을 제기하며 尙書令 王儉에게 小學類로 취급하도록 요구하면서 위기를 맞았다. 그러나 왕검이 《효경》은 전통적으로 경전의 지위를 인정받아 왔으며 정현 僞作說이 前代에는 문제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國學의 교과목으로 존치시킴에 따라 보존될 수 있었다.³¹⁾

25) 文帝 때 혹은 惠帝 때로 올려잡기도 한다.

26) 漢 景帝의 아들 劉德으로, 儒術을 좋아하고 先秦의 舊書 모으기를 좋아하여 藏書 규모가 황실과 비등했다고 한다.

27) 《隋書》 권32 〈經籍志〉. “遭秦焚書 爲河間人顏芝所藏 初 芝子貞出之 凡十八章”; 《古文孝經》 〈序〉. “至漢興 建元之初 河間王得而獻之 凡十八章”

28) 《漢書》 권30 〈藝文志〉에 “孝經一篇 十八章”에 이어 기록된 “長孫氏說二篇 江氏說一篇 翼氏說一篇 后氏說一篇 安昌侯說一篇”이 그것이다.

29) 그러나 《孝經》 鄭氏注의 내용이 여타 전적에 대한 정현의 주석과 다르다는 이유로 일찍부터 회의적인 시각이 있었다. 《隋書》 권32 〈經籍志〉. “至劉向典校經籍 顏本比古文 除其繁惑 以十八章爲定 鄭衆馬融 并爲之注 又有鄭氏注相傳 或云 鄭玄其立義 與玄所注餘書不同 故疑之”

30) 《唐會要》 권77 〈論經義〉. “至晉穆帝永和十一年及孝武帝太元元年 再聚群臣 其論經義 有荀昶者 撰集孝經諸說 始以鄭氏爲宗”

31) 《南齊書》 권39 〈陸澄列傳〉. “澄謂尙書令王儉曰 孝經 小學之類 不宜列在帝典……世有一孝經 題爲鄭玄注 觀其用辭 不與注書相類 案玄自序所注衆書 亦無孝經 儉答曰……疑孝經非鄭所注 僕以此書明百行之首 實人倫所先 七略藝文並陳之六藝 不與蒼頡凡將之流也 鄭注虛實 前代不嫌 意謂可安 仍舊立置”

《고문효경》은 漢 昭帝(재위 B.C. 86~B.C. 74) 때 獻上되었다. 武帝 말년에 魯 恭王이 집을 넓히기 위해 孔子의 옛 講堂을 허물다가 벽 속의 돌로 된 함에서 竹簡에 과두문자로 쓰여진 22장의 《효경》을 발견하였다.³²⁾ 노나라의 三老(지방의 원로로서 교화를 담당한 관리)인 孔子惠가 소제에게 바치자 소제가 학자들을 시켜 隸書로 옮겨 쓰게 하였다.

《고문효경》 계열의 대표적인 古注로는 孔安國(西漢)의 傳을 꼽는다. 그 序文의 다음과 같은 말이 《고문효경》 출현 이후의 상황을 짐작케 한다. “황실 도서관에서 《고문효경》을 정본으로 삼고 있는데, 다만 《금문효경》이 먼저 알려졌기 때문에 오류가 많은데도 여전히 세상에 통행되고 있다. 漢나라 先帝(文帝·景帝·武帝)의 조칙에서 《효경》을 인용할 때면 모두 ‘傳曰’이라고 했는데, 실은 《금문효경》의 字句이다.”³³⁾

공안국의 《古文孝經傳》은 南朝 梁나라까지 정현의 《今文孝經注》와 함께 國學에 나란히 채택되다가 양나라 말엽 혼란 중에 다시 유실되었다.³⁴⁾ 隋 文帝 開皇 14년(594)에 秘書監 王劭가 京師에서 우연히 이 책을 발견하여 河間의 劉炫에게 보내자 유현이 이를 바탕으로 《古文孝經述義》를 짓고 민간에서 강의하여 유포시켰는데, 이 일이 조정에서 알려져 다시 정현의 《금문효경주》와 함께 국학의 정식 교과로 채택되었다. 그러나 유현이 입수했다는 공안국의 《고문효경전》은 애초부터 유현의 僞作이라는 회의적인 시각이 있다.³⁵⁾

《금문효경》과 《고문효경》은 18장과 22장이라는 편장의 차이가 있으나, 내용의 차이는 크지 않다. 《고문효경》 22장은 《금문효경》의 18장에서 〈庶人章〉이 두 장으로, 〈聖治章〉이 세 장으로 나뉘고 24字의 〈閨文章〉이 더 들어간 것이다. 〈廣至德章〉 뒤부터는 금·고문의 章次가 어긋나며, 대체로 고문의 표현이 금문보다 다소 길다.³⁶⁾ 표 3에 이를 정리하였다.

32) 《漢書》 권30 〈藝文志〉. “武帝末 魯共王壞孔子宅 欲以廣其宮 而得古文尙書及禮記論語孝經凡數十篇 皆古字也”; 《晉書》 권36 〈衛恒列傳〉. “漢武時 魯恭王壞孔子宅 得尙書春秋論語孝經 時人以不復知有古文 謂之科斗書”; 《古文孝經》 〈序〉. “魯恭王使人壞夫子講堂 於壁中石函 得古文孝經二十二章 載在竹牒 其長尺有二寸 字科斗形 魯三老孔子惠抱詣京師 獻之天子 天子使金馬門待詔學士與博士群儒從隸字寫之”

33) 《古文孝經》 〈序〉. “今中祕書皆以魯三老所獻古文爲正 河間王所上雖多誤 然以先出之故 諸國往往有之 漢先帝發詔稱其辭者 皆言傳曰 其實今文孝經也”

34) 《隋書》 권32 〈經籍志〉. “古文孝經一卷 孔安國傳 梁末亡逸 今疑非古本” “梁代 安國及鄭氏二家 并立國學 而安國之本 亡於梁亂 陳及周齊 唯傳鄭氏”

35) 《隋書》 권32 〈經籍志〉. “至隋 秘書監王劭於京師訪得孔傳 送至河間劉炫 炫因序其得喪 述其議疏 講於人間 漸聞朝廷 後遂著令 與鄭氏并立 儒者喧喧 皆云炫自作之 非孔舊本 而祕府又先無其書”

최근에는 일본 학자 林秀一(하야시 히데이찌)이 일본에 전해지는 관련 문헌을 토대로 劉炫의 《古文孝經述義》를 일부 복원하여, 위작자는 王肅 일파의 한 사람이며, 유현은 교정자에 불과하다는 설을 발표하였다.(김용옥, 《효경한글역주》, 통나무(2010), 282쪽)

36) 내용상의 차이가 크지 않기 때문에 黃震은 《금문효경》과 《고문효경》이 별개의 책이 아니라고 하였다. 《經義考》 권222 〈孝經〉. “非今文與古文 各爲一書也”

표 3. 《고문효경》과 《금문효경》의 章次와 字句 비교

금문효경			고문효경			(고문- 금문) 字數
章次	章名	대조 자구	章次	章名	대조 자구	
1	開宗明義章	▷ 仲尼居 ▷ 曾子侍	1	開宗明義章	▷ 仲尼閒居 ▷ 曾子侍坐 ▷ 參	+3
2	天子章	▷ 而	2	天子章	▷ 然後	+1
3	諸侯章		3	諸侯章	▷ 子曰	+2
4	卿大夫章	▷ 能守其宗廟	4	卿大夫章	▷ 子曰 ▷ 能保其祿位而守其宗廟	+5
5	士章		5	士章	▷ 子曰	+2
6	庶人章		6	庶人章	▷ 子曰	+4
		▷ 故自天子	7	孝平章	▷ 故自天子以下	
7	三才章		8	三才章		
8	孝治章	▷ 臣妾	9	孝治章	▷ 臣妾之心	+2
9	聖治章		10	聖治章		+3
			11	父母生績章	▷ 子曰	
		▷ 故	12	孝優劣章	▷ 子曰	
10	紀孝行章	▷ 三者	13	紀孝行章	▷ 此三者	+1
11	五刑章		14	五刑章		
12	廣要道章		15	廣要道章		
13	廣至德章	▷ 日見之也	16	廣至德章	▷ 日見之	-1
14	廣揚名章		18	廣揚名章		
15	諫諍章	▷ 子曰是何言與是何言與	20	諫諍章	▷ 子曰參是何言與是何言與言之不通邪	+6
16	感應章		17	感應章	▷ 必有長也	+4
17	事君章		21	事君章		
18	喪親章	▷ 以死傷生 ▷ 孝子之事親	22	喪親章	▷ 以死傷生也 ▷ 孝子之事	0
없음			19	閨門章	▷ 子曰 閨門之內 具禮矣乎 嚴親嚴兄 妻子臣妾 猶百姓 徒役也	+24
고문효경이 금문효경에 비해 많은 글자의 총수						56

《고문효경》의 글자수에 대해 唐 玄宗의 서문에는 桓譚의 《新論》을 인용하여 1,872자라 하고, 阮元의 교감기에는 ‘宋本 《고문효경》 말미에 1,810자, 日本 信陽 太宰純이 교감한 《擬古文孝經孔傳》 말미에 1,861자로 기록되어 있다.’라고 하였다. 판본에 따라 글자수의 차이가 적지 않음을 알 수 있다. 표 3의 작성에 사용한 《금문효경》은 1816년 阮元 校

刻 《十三經注疏》本(中華書局, 2009)이고, 《고문효경》은 1241년 日本 清原教隆(키요하라노 노리타가)이 校點한 仁治本(김용옥, 《효경한글역주》, 통나무(2010), 324~403쪽)이다.

2. 《효경》의 주석서

梁末에 공안국의 《고문효경전》이 유실된 뒤로 南朝 陳, 北齊·北周 때는 정현의 《금문 효경주》만 전해지다가³⁷⁾ 五代의 전란 중에 정현의 注마저 유실되었다. 그 후 중국에 재출현한 정현의 주는 雍熙 원년(984)에 일본 東大寺의 승려 裔然(조연, 초오넨, ?~1016)이 北宋 太宗에게 바친 것이다.³⁸⁾

표 4는 隋·唐·宋의 正史 〈藝文志〉 또는 〈經籍志〉에 기록된 《효경》 주석서를 정리한 것이다. 正史名 뒤의 ‘(亡)’ 표시는 해당 志에 이미 유실되었다고 기록되었음을 나타낸 것이고, 그 밖에 참고할 만한 기록을 ‘()’ 속에 부기하였다. 주석가와 주석 양식이 기록되지 않은 경우는 ‘?’ 등의 표시로 대체하지 않고 비워두었다.

표 4. 隋·唐·宋의 正史 〈藝文志〉 또는 〈經籍志〉에 기록된 《효경》 주석서

주석가	書名	주석양식	卷數	正史名	주석가	書名	주석양식	卷數	正史名
孔安國	古文孝經	傳	1	隋書(梁末亡逸, 今疑非古本) 舊唐書·宋史	釋 慧始	孝經	注	1	隋書(梁撰, 亡)
鄭玄	孝經	注	1	隋書 舊唐書·宋史	陶弘景	集注孝經		1	隋書(梁撰, 亡)
馬融·鄭衆	孝經	注	2	隋書(梁有, 亡)	諸葛循	孝經序		1	隋書(梁撰, 亡)
王肅	孝經	解	1	隋書	釋 慧林	孝經	注	1	隋書
		注	1	舊唐書					
蘇林	孝經	注	1	隋書(梁有, 亡) 舊唐書		晉孝經		1	隋書(晉穆帝時撰, 亡)
何晏	孝經	注	1	隋書(梁有, 亡)		送總明館孝經講		1	隋書(晉武帝時撰, 亡)
劉邵	孝經	注	1	隋書(梁有, 亡)		送總明館孝經議		1	隋書(晉武帝時撰, 亡)
	古文孝經	注	1	舊唐書					
孫熙	孝經	注	1	隋書(梁有, 亡) 舊唐書	何約之	孝經義疏	執經	1	隋書(宋大明中東宮講, 亡) 舊唐書
韋昭	孝經解贊	解	1	隋書		孝經義疏		1	隋書(齊永明三年東宮講, 亡)

37) 앞의 주 34) 참조.

38) 《宋史》 권491 〈日本傳〉. “其國多有中國典籍 裔然之來 復得孝經一卷 越王孝經新義第十五卷……孝經即鄭氏注者 越王者乃唐太宗子越王貞 新義者記室參軍任希古等撰也”

22 古典 번역의 미래와 A.I. 번역

주석가	書名	주석 양식	卷數	正史名	주석가	書名	주석 양식	卷數	正史名
	孝經	注	1	舊唐書					
徐整	孝經默注	注	1	隋書		孝經義疏		1	隋書(齊永明中諸王講, 亡)
		撰	2	舊唐書					
謝萬	集解孝經	集	1	隋書		孝經義疏		1	隋書(賀綏講, 亡)
	孝經	注	1	舊唐書					
荀昶	集議孝經	撰	1	隋書(晉撰, 亡)		孝經義疏		1	隋書(賀綏議, 亡)
	孝經	注	2	隋書(晉撰, 亡)					
袁敬仲	集議孝經	集	1	隋書		孝經義疏		2	隋書(齊臨沂令李玉之爲始興王講, 亡)
宋均	孝經皇義	撰	1	隋書(梁有, 亡)	梁武帝	孝經義疏		18	隋書
						孝經疏		18	舊唐書
楊泓	孝經	注	1	隋書(晉撰, 亡)		孝經義		3	隋書(梁皇太子講, 亡)
虞繁佐	孝經	注	1	隋書(晉撰, 亡) 舊唐書		孝經義		1	隋書(梁天監八年皇太子講, 亡)
孫氏	孝經	注	1	隋書(晉撰, 亡) 舊唐書	梁簡文帝	孝經義疏		5	隋書(亡)
殷仲文	孝經	注	1	隋書(晉撰, 亡) 舊唐書	蕭子顯	孝經義疏		1	隋書(亡)
殷叔道	孝經	注	1	隋書(晉撰, 亡) 舊唐書		孝經敬愛義	撰	1	隋書(梁撰)
車胤	孝經	注	1	隋書(晉撰, 亡)	無名先生	孝經私記	撰	4	隋書
	講孝經義	注	4	舊唐書(車胤等)					
孔光	孝經	注	1	隋書(晉撰, 亡)		孝經義		1	隋書
何承天	孝經	注	1	隋書(宋撰, 亡)	趙景韶	孝經義疏	撰	1	隋書
費沈	孝經	注	1	隋書(宋撰, 亡)	皇侃	孝經義疏	撰	1	隋書
								3	舊唐書
王玄載	孝經	注	1	隋書(齊撰, 亡)	周弘正	孝經私記	撰	2	隋書
明僧紹	孝經	注	1	隋書(齊撰, 亡)	劉炫	古文孝經述義	撰	5	隋書
						孝經述義	撰	5	舊唐書
嚴植之	孝經	注	1	隋書(梁撰, 亡)	徐孝克	孝經講疏	撰	6	隋書
曹思文	孝經	注	1	隋書(梁撰, 亡)	叔明	孝經義	撰	1	隋書(梁撰)
江繫之	孝經	注	1	隋書(梁撰, 亡)		孝經發題	撰	4	舊唐書
江遜	孝經	注	1	隋書(梁撰, 亡)		孝經玄		1	隋書(梁有, 亡)
魏克己	孝經	注	1	舊唐書		孝經圖		1	隋書(梁有, 亡)
唐玄宗	孝經	注	1	舊唐書·宋史		孝經孔子圖		2	隋書(梁有, 亡)
賈公彥	孝經疏	撰	5	舊唐書		國語孝經		1	隋書

주석가	書名	주석양식	卷數	正史名	주석가	書名	주석양식	卷數	正史名
	孝經應瑞圖		1	舊唐書	荀勗	講孝經集解	撰	1	舊唐書
元行沖	孝經疏	撰	3	舊唐書·宋史	任希古	越王孝經新義	撰	10	舊唐書
邢昺	孝經正義		3	宋史	張士儒	演孝經	撰	13	
趙克孝	孝經傳		1	宋史	蘇彬	孝經疏		1	宋史
張元老	講義		1	宋史	司馬光	古文孝經指解		1	宋史
						古文孝經指解 ³⁹⁾		1	宋史
呂惠卿	孝經傳		1	宋史	任奉古	孝經講疏		1	宋史
家滋	解義		2	宋史	范祖禹	古文孝經說		1	宋史
林椿齡	全解		1	宋史	吉觀國	孝經新義		1	宋史
趙湘	孝經義		1	宋史	王文獻	詳解		1	宋史
張九成	解		4	宋史	沈處厚	解		1	宋史
黃干	本旨		1	宋史	張師尹	通義		3	宋史
馮椅	古孝經輯注		1	宋史	朱熹	刊誤		1	宋史
	古文孝經解		1	宋史	項安世	孝經說		1	宋史
王行	孝經同異		3	宋史	袁甫	孝經說		3	宋史

《수서》〈경적지〉에 기록된 61家の 《효경》 주석서 가운데 18종이 隋代에 實在하는 책이었다. 書名마저 유실되어 기록되지 못한 주석서도 없지 않을 터이다. “각종 유파의 주석서들이 큰 수레로도 다 실을 수 없을 정도였다.”⁴⁰⁾라는 말이 지나친 과장은 아닐 듯하다. 《효경》에 대한 연구 熱氣를 상상해볼 수 있다.

《구당서》〈경적지〉에는 모두 26家が 기록되었다. 유실 여부가 표시되지 않아 實在 여부는 알 수 없으나 《수서》〈경적지〉에 비해 魏克己·唐 玄宗·荀勗·賈公彥·任希古·張士儒·元行沖 등 7家の 주석서가 추가되었으며, 隋代에 존재했던 10家の 주석서를 포함하여 19家が 《수서》〈경적지〉의 기록과 겹친다. 《송사》〈예문지〉에는 26家が 기록되었는데, 《수서》〈경적지〉·《구당서》〈경적지〉와 겹치는 것은 공안국의 傳과 정현의 注뿐이고, 《구당서》와만 겹치는 것도 唐 玄宗 注와 元行沖 疏뿐이다.

隋·唐의 왕조 교체는 唐 高祖가 隋 恭帝한테 제위를 선양받아 비교적 순조롭게 이루어졌

39) 《宋史》 권202 〈예문지〉에 “司馬光 古文孝經指解一卷 又古文孝經指解一卷”이라고 하여 동일한 서명이 기록되어 있다. 사마광이 이 책을 仁宗 皇祐 연간(1049~1053)에 올리고 至和 元年(1054)에 다시 올렸는데 두 본의 내용이 달랐던 것인지, 이 중 하나는 范祖禹의 《古文孝經說》과 合編한 本을 지칭한 것인지 분명치 않다.

40) 《古文孝經》〈序〉. “今文十八章 諸儒各任意巧說 分爲數家之誼 淺學者以當六經 其大車載不勝”

다. 이에 비해 唐 멸망에서 宋 건국까지는 70여 년간 전란이 연속된 五代十國의 시기가 가로 지르고 있다. 위 표에서 볼 수 있는 수-당, 당-송의 典籍 傳承 규모의 상이함은 일차적으로 이 같은 시대적 상황에 기인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隋·唐의 주석서가 대부분 유실되었지만, 孔安國·鄭玄·王肅·謝萬·嚴植之·梁武帝·劉炫·皇侃 등의 설은 다행히 唐 玄宗의 御注와 元行沖 疏를 이어받은 宋 邢昺의 《孝經正義》에 일부 실려 지금까지 전해지고 있다. 아래에서는 대표적인 《효경》 주석서 4종을 자세히 살펴보았다.

1) 唐 玄宗의 《御注孝經》

《효경》은 西漢 때부터 통치자들의 존송을 받았다. 서한 文帝 때는 중앙의 국립대학에 孝經博士를 설치하였고, 宣帝 때는 지방 학교에도 효경 經師를 1명씩 배치하여 전국적으로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東漢 光武帝는 유생들뿐만 아니라 궁궐을 수비하는 병사들도 반드시 《효경》을 읽게 하였다.⁴¹⁾ 《효경》을 국가 차원에서 중시한 사례는 앞의 표 4에서도 볼 수 있다. 梁武帝와 唐玄宗 같은 제왕들이 손수 《효경》 주석서를 낸 사실, 그리고 황태자와 諸王이 《효경》을 講하고 그 내용을 책으로 편찬한 사례들이 그것이다. 앞서 언급했듯이 東晉 穆帝와 孝武帝 때 왕명으로 《효경》 今·古文에 대한 토의가 이루어진 사실도 《효경》에 대한 통치자들의 큰 관심을 보여준다.

《효경》 今·古문의 경쟁은 唐代에도 이어져, 開元 7년(719)에 당 현종의 명으로 공안국 傳과 정현 注의 眞僞를 議定하기 위한 토의가 벌어졌다.⁴²⁾ 이때 劉知幾(661~721)는 劉炫이 교정한 공안국 傳의 정통성을 옹호하며 정현 注가 위작임을 증명하는 12가지 증거를 제시하였고, 司馬貞은 劉炫이 교정한 공안국 傳이 위작임을 주장하였다. 이 토의가 결론을 내지 못함에 따라 현종은 금문과 고문을 병행하도록 하였다.⁴³⁾

그러나 이때의 토의가 발판이 되어 《효경》 주석의 역사에 한 획을 긋는 주석서가 나오게 되었다. 현종이 손수 18장의 《금문효경》을 바탕으로 금문파와 고문파의 주석을 절충하여 《御注孝經》을 만든 것이다. 현종은 위 토의가 있는 지 3년 만인 開元 10년(722)에 孔安國·鄭玄·韋昭·王肅·魏克己 등의 注를 채용하여 1차로 開元始注를 저술하고, 21년이 지난

41) 《後漢書》 권79 〈儒林列傳〉. “中元元年……自期門羽林之士 悉令通孝經章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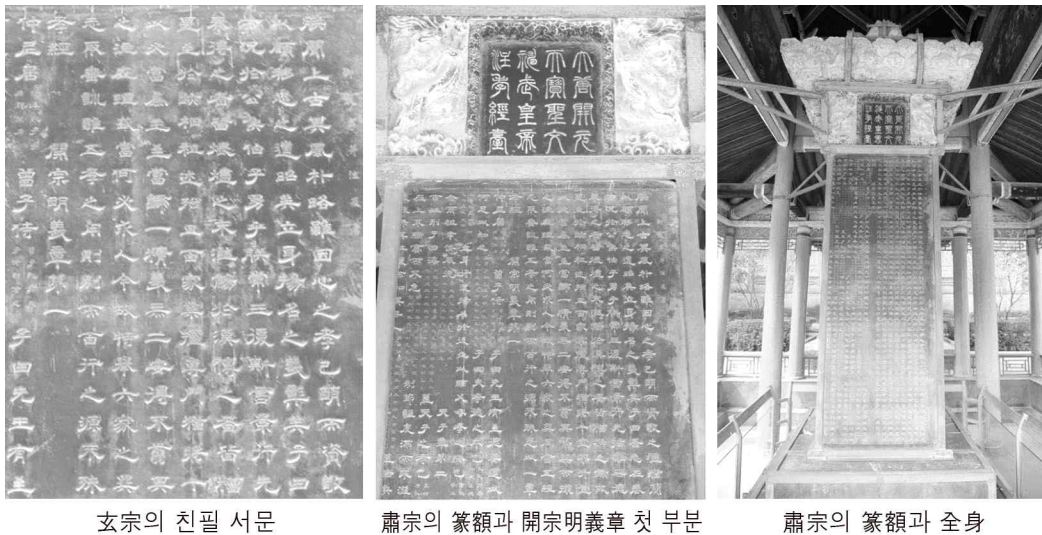
42) 唐 玄宗(685~762, 713~755 재위)은 당나라의 5대 황제로, 姚崇(650~721)·宋璟(663~737) 같은 어진 재상을 임용하여 ‘貞觀之治(唐太宗 때 번영을 이룩한 정치)’에 비견되는 ‘開元盛世’를 이룩하는 등 비교적 開明한 정치를 하였다. 그러나 天寶(742~755) 연간에 楊貴妃(719~756)에 고희되어 李林甫(?~752)·楊國忠(?~756)을 임용하다가 安祿山·史思明的 亂을 부르는 失政을 행하였다. 현종이 《효경》에 관심을 쏟은 것은 개원 연간과 천보 초년의 일로, ‘開元盛世’의 일환이었다.

43) 《唐會要》 권77 〈論經義〉. “其年四月七日左庶子劉子元上孝經註議曰 謹按今俗所行孝經 題曰鄭氏註 爰自近古皆云鄭即康成 而魏晉之朝無有此說……其驗十二也……國子祭酒司馬貞議曰……其古文二十二章 元出孔壁 先是安國作傳 緣遭巫蠱 世未之行 荀昶集注之時 尚有孔傳 中朝遂亡其本 近儒欲崇古學 妄作此傳 假稱孔氏 輒穿鑿改更 又僞作閨門一章 劉炫詭隨妄稱其善……准式孝經鄭注與孔傳依舊俱行”

天寶 2년(743)에 개원시주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2차로 天寶重注를 저술하였다. 2년 뒤인 천보 4년(745)에는 천보중주를 八分體로 친히 필사하고 돌에 새겨 長安의 太學 앞에 세우게 하였는데, 이를 石臺孝經이라고 한다.⁴⁴⁾ 이는 국가 차원의 권위를 지닌 定本을 수립한 것으로, 이를 계기로 사실상 《今文孝經》이 독주하게 되었다.

이후로는 《어주효경》이 유행하면서⁴⁵⁾ 정현의 注와 공안국의 傳 등 이전 주석서들의 사회적 효용이 점차 떨어져 五代 이후 대부분의 《효경》 주석서가 유실되는 중요한 배경 중 하나가 되었다.

그림 1. 西安 碑林에 보존된 石臺孝經



玄宗의 친필 서문

肅宗의 篆額과 開宗明義章 첫 부분

肅宗의 篆額과 全身

2) 邢昺의 《孝經正義》

당 현종은 開元 10년(722) 開元始注를 간행할 때 元行沖(653~729)에게 명하여 御注를 부연하는 疏를 짓게 하였는데, 원행충은 그 후 7년 만인 개원 17년에 별세하였다. 따라서 그는 다시 17년 뒤인 천보 5년(746)의 天寶重注 疏 작업에는 참여하지 못하였다. 이 때문에 疏에 미비한 점이 있었는데, 宋 眞宗이 咸平 3년(1000)에 邢昺(932~1010)에게 조령을 내려 杜鎬·舒雅·孫奭과 함께 疏를 개정하도록 하였다.

형병은 北宋의 저명한 經學家로 字는 叔明이다. 眞宗의 명을 받아 위 세 사람과 함께 《論語正義》·《爾雅正義》도 편찬하였다. 형병이 왕명으로 편찬한 《효경정의》는 뒤에 《十三經注疏》⁴⁶⁾에 포함되어 《孝經注疏》로도 불린다. 이 책으로 인해 당 현종의 御注가 《효

44) 石臺孝經은 지금 西安의 碑林博物館에 보존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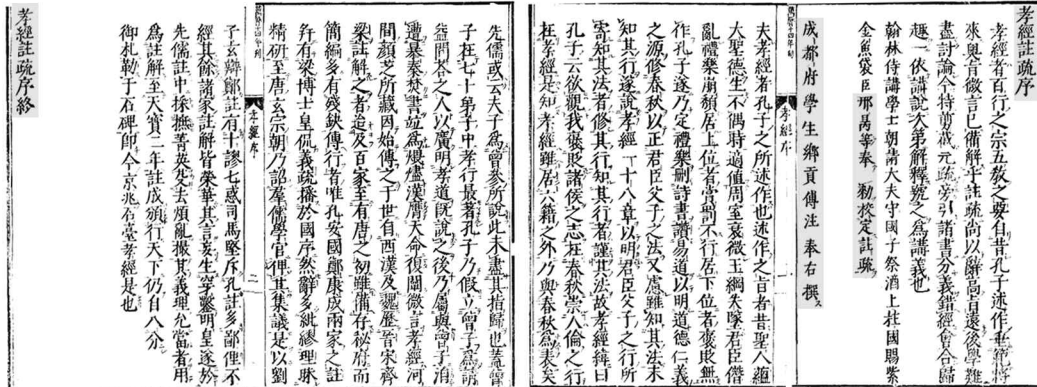
45) 開元始注는 중국에서 유실되고 天寶重注가 유행하였으니, 이후에 '御注'라고 한 것은 모두 천보중주를 말한다. 다만 최근 일본에 개원시주가 보존되어 있다는 보고가 있었다.(김용욱, 《효경한글역주》, 통나무(2010), 286쪽)

46) 《易》·《書》·《詩》·《禮記》·《周禮》·《儀禮》·《春秋左氏傳》·《春秋公羊傳》·《春秋

경》의 여타 注를 제치고 더욱 확고한 위상을 차지하게 되었다.

형병의 疏에는 원행충의 소와 천보중주 때 개정된 소 및 형병 자신의 소가 공존하는데, 각 부분에 특별한 표시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각각의 疏를 구분할 수 없게 되어 있다. 唐代的 疏는 御注의 撰者인 玄宗의 명에 의해 동시대에 이루어진 것이므로 御注의 의미를 贊者의 의도에 맞게 충실히 부연했을 것이다.⁴⁷⁾

그림 2. 《孝經注疏》 서문



형병의 小引과 傳注의 序로 구성되었다. 형병은 스스로 ‘註疏를 校定’했다고 밝히고 있다.

형병은 〈孝經注疏序〉 小引에서 “원래의 疏를 經文과 注에 따라 分節하고 여러 가지 책에서 폭넓게 관련 자료를 인용하여, 내용별로 나누어 經文 사이사이에 끼워 넣음으로써 의미가 모이지도록 하였다.”라고 하였다. 자신의 疏 작업은 새로이 의미를 밝혔기보다 ‘經文-御注’와 별도로 존재하던 疏를 경문과 어주에 맞게 분절하여 끼워 넣는 편집 작업과 자료의 보충에 국한되었다는 말인데, 이는 형병의 작업에 대해 自他가 공히 ‘校定’이라 표현하고,⁴⁸⁾ 이렇게 만들어진 책의 서문을 형병이 직접 작성하지 않고 원래의 疏本에 있던 唐나라 傳注의 서문을 존치한 채 자신의 말은 이에 앞선 75자의 간단한 小引으로 갈음한 사실과도 부합한다.⁴⁹⁾

형병은 《효경정의》의 편찬 경위에 대해 〈효경주소서〉의 小引에 “한결같이 講論했던 내용에 따라 차례로 해석하여 《孝經講義》라고 이름 붙였다.”라고 밝혔다. 형병은 東宮과 內庭에

穀梁傳》·《孝經》·《論語》·《爾雅》·《孟子》 등 儒家의 13經에 대한 ‘經-注-疏’를 합刻한 叢書名이다. 南宋 光宗 紹熙(1190~1194) 연간에 三山(지금의 福州)의 黃唐(字는 雍甫·信厚)이 그 이전까지 注와 疏가 따로 간행되던 것을 처음으로 합하여 간행하였는데, 그의 刻本이 元·明 때까지 보존되었다. 明·清 때는 새로운 판본이 다수 출현하였는데, 清 阮元(1764~1849)이 교감하여 판각한 阮刻本이 善本으로 일컬어진다.

47) 이는 십삼경주소 중 다른 經에 대한 注疏와 구별되는 《효경주소》만의 특징이다.

48) 〈孝經注疏序〉의 小引 뒤에 “臣 邢昺 등이 勅令을 받들어 《孝經注疏》를 校定함.”이라고 하였고, 《宋史》 卷431 〈邢昺列傳〉에도 “형병에게 《효경》 등을 교정하도록 명했다.”라고 하였다. “二年始置翰林侍講學士 以昺爲之 受詔與杜鎬 舒雅 孫奭 李慕清 崔偓佺等 校定周禮 儀禮 公羊穀梁春秋傳 孝經論語爾雅義疏”

49) 본 역주서 55쪽 〈孝經注疏序〉의 주 1), 2) 참조.

서 眞宗를 모시고 《孝經》·《禮記》·《論語》·《書》·《易》·《詩》·《春秋左氏傳》을 강론한 바 있는데,⁵⁰⁾ 이 중 《효경》 강론 내용을 정리하여 《효경강의》를 저술했다는 것이다. 《효경강의》와 《효경주소》의 관계는 淸 周中孚(1767~1831)의 “형병이 저술한 《孝經注疏》의 본래 명칭은 《孝經講義》였다. 여러 書目書들에서 이를 ‘孝經講義’라고 칭하지 않고 ‘孝經正義’라고 칭한 것은 《논어》 및 《이아》에 대한 그의 疏本과 같은 명칭을 쓰기 위함이다.”⁵¹⁾라는 설명을 통해 알 수 있다.

3) 朱熹의 《孝經刊誤》

성리학을 집대성한 朱熹(1130~1200)는 57세(1186)에 《고문효경》의 원문 22장을 새로이 편집하여 經 1장, 傳 14장으로 만들고 각 장 말미에 있던 《시경》·《서경》의 인용문 등 총 223자를 삭제하였다. 여기에 덧붙여 각 장 말미에 編次 이유와 대의를 밝히고,⁵²⁾ 권말에 저술 경위를 스스로 밝힌 책이 《孝經刊誤》이다.

주희는 《禮記》에서 〈大學〉을 떼어내어 經 1장, 傳 10장으로 재편집하고 格物致知 補傳을 창작하여 傳 제5장에 끼워 넣은 바 있는데, 《효경간오》도 이와 양상이 유사하다. 그러나 〈대학〉에 대해서는 상세히 주석하여 완결된 讀本 《大學章句》를 만듦으로써 四書 중 하나로 격상시킨 데 반해, 《효경》에 대해서는 상세히 주석하는 데까지 나아가지 않고 校勘書 성격의 《孝經刊誤》를 내는 데 그쳤다. 주희는 45~46세에 《대학장구》를 편찬하고 나서 11년이 흐른 57세에 《효경간오》를 저술했으며 그 뒤로 별세할 때까지 14년의 기간이 더 있었다. 따라서 《효경》을 章句로까지 발전시키지 않고 刊誤에 그친 것은 力量 또는 시간의 부족이 아니라 《효경》에 대한 근본적인 懷疑에 기인한 것이었다. 그는 傳 14장의 내용을 두고 “이 책은 대부분 後人이 傳會한 것”⁵³⁾이라고 하여 《효경》의 학문적 권위를 인정하지 않았다.

50) 《宋史》 권431 〈邢昺列傳〉. “昺在東宮及內庭 侍上講孝經 禮記 論語 書 易 詩 左氏傳”

51) 《鄭堂讀書記》 권1 〈經部 孝經注疏九卷〉. “至叔明奉勅校定 其序稱翦截元疏 旁引諸書 分義錯經 會合歸趣 一依講說 次第解釋 號之爲講義也 是此疏本名議義 諸家書目不稱爲講義而稱爲正義者 蓋欲與論語 爾雅之疏畫一耳”

52) 《孝經刊誤》는 淸 康熙 연간에 中呂氏가 寶誥堂에서 간행한 朱子遺書本 등의 淸代 본과 明 朱鴻이 編한 孝經十書本이 있다. 《四庫大辭典 孝經刊誤》. 朱熹가 사용한 《효경》은 宋本孝經이었다고 한다. (김용옥, 《효경한글역주》, 통나무(2010), 287쪽)

53) 《孝經刊誤》〈跋文〉 “此書多出後人傳會”

그림 3. 《孝經刊誤》經 1章 후반부와 注

故非法不言非道不行口無擇言身無擇行言滿天下	無口過行滿天下無怨惡三者備矣然後能守其宗廟	蓋卿大夫之孝也詩云夙夜匪懈以事一人資於事父	以事母而愛同資於事父以事君而敬同故母取其愛	而君取其敬兼之者父也故以孝事君則忠以敬事長	則順忠順不失以事其上然後能保其爵祿而守其祭	祀蓋士之孝也詩云夙興夜寐無忝爾所生子日用天	之道因地之利謹身節用以養父母此庶人之孝也故	自天子以下至於庶人孝無終始而患不及者未之有	也	此一節夫子曾子問答之言而曾氏門人之所記也	疑所謂孝經者其本文止如此其下則或者雜引傳	記以釋經文乃孝經之傳也竊嘗考之傳文固多傳	會而經文亦不免有離析增加之失顧自漢以來諸	儒傳誦莫覺其非至或以為孔子之所自著則又可	笑之尤者蓋經之首統論孝之終始中乃數陳天子	諸侯卿大夫士庶人之孝而其末結之曰故自天子	以下至於庶人孝無終始而患不及者未之有也其	首尾相應次第相承文勢連屬脈絡通貫同是一時	之言無可疑者而後人妄分以為六七章	章又增子曰及引詩書之文以離乎其間使其文意	分斷間隔而讀者不復得見聖言全體大義為害不	細故今定此六七章者合為一章而刪去子曰者二	引書者一引詩者四凡六十一字以復經文之舊其
-----------------------	-----------------------	-----------------------	-----------------------	-----------------------	-----------------------	-----------------------	-----------------------	-----------------------	---	----------------------	----------------------	----------------------	----------------------	----------------------	----------------------	----------------------	----------------------	----------------------	------------------	----------------------	----------------------	----------------------	----------------------

본문의 《詩經》 인용문을 삭제하도록 지시하고 있다.

《효경》에 대한 주희의 해석은 《효경간오》의 체재에서부터 대략 드러난다. 《효경》은 본디 ‘천자-제후-경대부-사-서인’의 계급별 孝를 논한 것인데, 《효경간오》는 천자와 士의 孝만을 중심에 두었다. 그는 傳 열네 장의 내용 대부분을 〈開宗明義章〉에 대한 해설로 간주하면서, 제10장은 천자의 효를, 제9·11·12장은 士의 효를, 제13·14장은 별도의 의미를 밝힌 것으로 해석하였다. 중간 세 계급의 효에 대응하는 傳은 설정하지 않아 제후·경대부·서인의 효의 의미를 퇴색시킨 것이다. 봉건제의 요소가 잔존했던 秦·漢代와 달리 宋代는 공고한 중앙집권 관료제 사회였다. 이에 따라 유가 경전의 이념을 군주와 관료의 修己治人으로 정의하려 한 그는 《효경》 역시 그러한 이념에 복무하는 책으로 개조하려고 시도하였다.⁵⁴⁾

그러나 《효경》은 漢代 陰陽家の 냄새가 짙은 〈感應章〉, 《효경》 전체에 法家の 분위기를 질게 드려온 〈五刑章〉, 《論語》에 드러난 孔子의 태도와 배치되는 〈諫諍章〉 등 四書를 중심으로 한 성리학 체계와 어긋나는 점이 적지 않다. 이 때문에 주희는 《효경간오》에 담은 《효경》 재해석의 구상을 章句로 구체화하여 위상을 제고하는 데까지 나아가지는 못했던 것이다.

4) 董鼎의 《孝經大義》

宋末元初의 經學家이자 朱熹의 再傳 제자인 董鼎이 《효경간오》의 체재(經文-傳文)와 注를 근간으로 하여 상세 주석을 가한 책이 《효경대의》이다. 앞에서 《효경간오》는 《고문효경》에서 총 223자를 삭제했다고 했는데, 그것은 삭제 표시만 하고 글자는 그대로 둔 것이었다. 董鼎은 주희의 표시에 따라 글자를 삭제하여 판면을 정리하고, 주희의 뜻에 충실히 주해를 가하였다. 古·今文의 相異한 字句를 注記한 것 외에 《효경간오》와 다르게 새로이 의

54) 김용옥, 《효경한글역주》, 통나무(2010), 39~45쪽.

미를 천명하거나 논란을 벌인 것은 없다.

이 때문에 《효경대의》는 《효경》에 대한 가장 권위 있는 성리학적 주해서로 통하여, 성리학이 대세이던 조선에서는 《효경》이라 하면 곧 이 책의 略稱으로 통용될 정도였다. 그러나 元 成宗 大德 9년(1305) 熊禾의 서문에 그의 族兄이 처음으로 글방(書塾)에서 이 책을 간행해 준 사실이 보이고, 明 憲宗 成化 22년(1486) 徐貫의 발문에 “애석하도다! 이 책이 간행된 것이 적어서 궁벽한 시골이나 작은 고을의 선비들이 다 볼 수 없음이여.”⁵⁵⁾라고 한 것으로 볼 때 중국에서는 활용도가 그리 높지 않았던 것으로 생각된다.

《明史》〈藝文志〉孝經類에는 35家の 《효경》 주석서가 기록되어 있다. 清代에는 《효경》 주석서가 많지 않은 가운데 順治帝(世祖)가 《御注孝經》을 내고 雍正帝(世宗)가 《御纂孝經集註》를 내는 등 제왕의 관심이 여전하였다.

3. 《효경》의 한반도 전래와 간행

본 장에서는 《효경》이 한반도에 끼친 영향을 고찰하기 위해 우선 이 책이 한반도에 언제 전래되었는지 살펴보고, 삼국시대와 고려·조선에서 이 책의 위상이 어떠했으며 어떤 시대적 변화를 겪었는지 조사하였다. 나아가 한반도에서 이 책의 간행 양상을 一瞥하였다.

1) 《효경》의 한반도 전래와 삼국·고려·조선에서의 위상

《효경》은 늦어도 삼국시대에 이미 한반도에 전래되어 있었다. 백제에 五經子史의 서적이 있었다는 기록이 있는데, 여기에 《효경》도 포함되었을 가능성이 있고,⁵⁶⁾ 4~5세기 백제의 博士 王仁이 《논어》·《천자문》과 함께 《효경》을 일본에 전했다고 사료되며,⁵⁷⁾ 신라의 强首(삼국통일 시기에 활동)가 스승에게서 《孝經》·《曲禮》·《爾雅》·《文選》을 배웠다는 기록이 있다.⁵⁸⁾ 신라 元聖王 4년(788)에 설치한 讀書三品科에서는 《논어》·《춘추좌씨전》·《예기》·《문선》과 함께 《효경》에 밝은 자를 上品으로 선발하도록 하였고,⁵⁹⁾ 신라 國學의 필수공통 과목에 《논어》와 더불어 《효경》이 들어 있었다.⁶⁰⁾

55) 鄭太鉉 譯註, 《孝經大義》, 傳統文化研究會(2009), 17~19쪽, 122쪽.

56) 《舊唐書》 권211 〈百濟列傳〉. “其書籍有五經子史 又表疏并依中華之法”

57) 이러한 사실이 《삼국사기》, 《삼국유사》 등에는 보이지 않으나 《日本書紀》, 《古史記》 등 일본 사료를 통해 추정되고 있다.(김용옥, 《효경한글역주》, 통나무(2010), 22쪽)

58) 《三國史記》 권46 〈强首列傳〉. “遂就師讀孝經曲禮爾雅文選”

59) 《三國史記》 권10 〈新羅本紀〉 ‘元聖王’조. “○四年 春 始定讀書三品 以出身 讀春秋左氏傳若禮記若文選 而能通其義 兼明論語孝經者爲上 讀曲禮論語孝經者爲中 讀曲禮孝經者爲下 若博通五經三史諸子百家書者 超擢用之”

60) 《三國史記》 권38 〈雜志7 職官上〉 ‘新羅國學’조. “教授之法……或以禮記周易論語孝經 或以春秋左傳毛詩論語孝經 或以尙書論語孝經文選教授之”

고려에서도 《효경》은 신라 때와 같이 관리 양성과 선발의 필수 과목으로서 위상이 유지되었다. 중국의 後周 世宗 6년(959)에 고려 光宗(王昭)이 《別敍孝經》 1권, 《越王新義》 8권, 《皇靈孝經》 1권, 《孝經雌圖》 1권을 바쳤다는 기록이 있는 것⁶¹⁾으로 보아 당시 고려에는 《효경》 관련 서적이 다양하게 존재했던 것으로 보인다. 또 成宗 때 설립된 國子監의 필수공동 과목으로 《논어》와 함께 《효경》이 선정되었다.⁶²⁾

그러나 조선에서는 《효경》이 成均館 교육이나 科擧의 고시 과목에 들지 못하였다. 太宗 4년(1404)에 사간원에서 올린 學制 개선책에 漢城 五部の生徒들 중 《小學》·《四書》·《文公家禮》와 함께 《효경》에 능통한 자를 小學에 입학시키는 방안이 건의되고,⁶³⁾ 承文院의 提調가 열흘마다 관원들과 講讀하는 과목에 들어 있었지만⁶⁴⁾ 이미 주변으로 밀려났음을 볼 수 있다. 經筵에서 《효경》을 進講한 왕은 재위 8개월 만에 승하한 仁宗의 뒤를 이어 12세에 급작스레 즉위한 明宗뿐이고, 《효경》 관련 저술은 尹鑄(1617~1680)의 《孝經章句考異》·《孝經外傳》·《孝經外傳續篇》, 黃德壹(1748~1800)의 《孝經外傳》, 金梔(1896~1978)의 《孝經章句》, 崔世珍(1473~1542)의 《女孝經》, 朴齊賢(1521~1575)의 《孝經論》 정도가 널리 알려졌을 뿐이다.

다만 이 책이 世子 書筵의 과목으로 꾸준히 읽히고, 많은 문인·학자들이 어린 시절에 《효경》을 읽었다는 기록이 전해지며, 사대부가의 부인들이 자제를 가르칠 만큼 《효경》에 능통했다는 기록들로 보아 조선에서도 《효경》이 애독되기는 마찬가지였으나, 학문적·사회정치적 영역에서 멀어진 것이다.

이 같은 위상의 변화는 두 가지 측면에서 원인을 찾을 수 있다.

첫째, 사회 체제의 변화이다. 중국에서는 宋代를 전후하여 《효경》의 위상이 크게 바뀌었다. 漢代부터 唐代까지는 대체로 官學 교육과 明經科의 필수 과목이었다가 明·清代에는 관학과 科擧에서 《효경》이 제외되었다. 또 清代 사대부들은 《효경》에 대한 관심이 저조하여 《皇清經解》와 《續皇清經解》 중에 《효경》 관련 저술은 많지 않다.

이러한 현상은 唐末 이후로 문벌귀족이 해체됨에 따른 것으로 해석된다. 이전의 문벌귀족들은 宗黨 內의 孝悌 윤리를 명분으로 삼아 國法과 군주가 요구하는 忠에 실질적으로 대립할 수 있는 사회적 실체였다. 秦·漢 이후로 꾸준히 관료제로의 전환이 이루어지긴 했으나 唐代

61) 《新五代史》〈四夷附錄3〉‘高麗’조. “高麗俗知文字 喜讀書 昭進別敍孝經一卷 越王新義八卷 皇靈孝經一卷 孝經雌圖一卷 別敍 敍孔子所生及弟子事迹 越王新義 以越王爲問目 若今正義 皇靈 述延年辟穀 雌圖 載日食星變 皆不經之說”

62) 《高麗史》 권74 〈志28 選舉2〉. “仁宗朝式目都監詳定學式 國子學生……凡經周易尙書周禮禮記毛詩春秋左氏傳公羊傳穀梁傳各爲一經 孝經論語必令兼通”

63) 《朝鮮王朝實錄》 太宗 4년 8월 20일. “五部教授官……其生徒之能通孝經小學四書文公家禮者 升之小學 令成均正錄所 敦加教養 其通三經已上 孝悌謹厚 許赴監試 升于成均 擇其能通五經通鑑而德行著聞者 方許赴試”

64) 《大典會通》〈禮典 獎勸〉. “○承文院官員每旬提調講所讀書(詩書四書 魯齋大學 直解小學 成齋孝經 少微通鑑 前後漢史學指南 忠義直言 童子習 大元通制 至正條格 御製大誥 朴通事 老乞大 吏文謄錄)”

까지는 여전히 귀족과 有力戶를 중심으로 한 近隣 친족들의 결속이 잔존하여 지방의 하부 단위까지는 국가의 지배력이 직접 미치지 못하였다. 이 때문에 一族 내의 孝悌는 국법과 갈등할 수 있는 현실적인 기반을 갖게 되었으며 이러한 현실을 무시한 일방적인 법치의 강행은 사실상 불가능하였다. 이것이 '私家의 孝'의 완성을 '公家의 事君'을 통해 실현하도록 설계한 《효경》을 국가에서 적극적으로 보급하여 유가 최고의 경전으로 격상시킨 배경이었다.⁶⁵⁾ 宋代 이후에도 孝는 인간의 당연하고 기초적인 규범으로 확고한 위치를 유지했지만, 公的 활동과 직결시키던 이전과 달리 私家의 영역에 묶이는 색채의 변화를 겪었다.

고려 말 조선 초의 상황 변화는 위와 같은 중국의 체제 변화와 유사하였다. 고려는 4대 光宗 때 과거제를 도입하고 6대 成宗 때 3성6부의 중앙관제를 확립하고 지방에 12목을 설치하는 등 중앙집권적 행정체제를 갖추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방의 豪族 세력이 강고하여 통치의 안정을 위해서는 이들의 동의를 끌어내야만 했는데, 忠을 통한 孝의 완성을 설계한 《효경》이 훌륭한 정신적 기반을 제공해주었다. 그러나 지방 호족이 해체되고 완전한 중앙집권 관료제 사회가 구현된 조선에서는 더 이상 《효경》의 그와 같은 사회 정치적 효용이 필요치 않았고 따라서 공적인 영역에서 《효경》의 위상이 약화된 것은 자연스러운 귀결이었다.

둘째, 朱熹의 《孝經刊誤》에 담긴 《효경》 해석의 영향이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주희는 《효경》의 대부분을 後人이 傳會한 것으로 규정하고 校勘書를 내는 데 그치는 등 이 책의 학문적 권위를 인정하지 않았다. 그 이유는 앞서 살펴보았듯이 성리학 체계와 맞지 않는 부분이 적지 않기 때문이었다. 《효경간오》를 계승한 董鼎의 《孝經大義》 서문에 “이 책은 初學들을 위해 만든 것이다.”⁶⁶⁾라고 하여 아예 아동용 학습서로 못박은 것은 《효경》에 대한 주희의 이 같은 입장을 충실히 반영한 것이다. 성리학이 대세로 자리잡은 조선에 《효경대의》가 유행하면서 《효경》의 위상은 결국 童蒙教材로 굳어져갔다.

2) 고려와 조선에서 《효경》의 간행

고려는 《효경》의 위상과 활용도가 높았던 만큼 印行도 상당한 정도로 이루어졌을 테지만 확인되는 것은 거의 없다. 다만 최근에 洪武 6년(공민왕22, 1373)의 跋文과 刊行記가 붙어 있는 목판본 《효경》이 발견되었다는 보고가 있었다.⁶⁷⁾ 이는 한반도에서 간행된 《효경》 판본 중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것으로, 唐 玄宗의 御注本 《금문효경》 계열로 사료되고 있다. 여기에는 延祐 3년(1216) 林華甫의 自序와 이듬해(1217) 曹氏 進德齋의 서문, 그리고 당 현종의 서문이 있고, 寧海郡守 韓冲浩가 1373년에 쓴 발문에 3인이 각기 가지고 있던 落帙을 한 데 합쳐 간행했다는 경위가 기록되어 있다. 또 孔子부터 당 현종에 이르는 孝經類저자 계통을 나타낸 도표와, 《금문효경》에 대한 여러 주석서의 저자와 서명, 《고문효경》

65) 李成珪, 〈漢代 孝經의 普及과 그 理念〉 《韓國思想史學 10-1》 한국사상사학회(1998) 216~217쪽.

66) 鄭太鉉 譯註, 《孝經大義》, 傳統文化研究會(2009), 17쪽.

67) 李宰榮, 《朝鮮時代 孝사상의 전개와 孝經의 간행》, 경북대 석사학위논문(2007), 77~78쪽.

과 《금문효경》의 구성 비교 등 《효경》에 대한 계통적 접근을 위한 참고 사항이 기록되어 있으며, 본문은 각 장의 제목 뒤에 그 장에 해당하는 《孝經正義》의 내용을 간략히 설명한 다음 대문을 쓰고 雙行小字로 注를 달았다고 한다. 이에 따르면 고려 말까지는 당 현종의 注와 邢昺의 疏가 달린 《효경정의》 계열의 판본이 유통되었음을 알 수 있다.

조선의 《효경》 간행 사실은 해당 서책의 刊行記와 朝鮮王朝實錄에서 다음과 같이 일부 확인된다.⁶⁸⁾

世宗 5년(1423) 鑄字所에서 《直解孝經》 인출⁶⁹⁾

世宗 11년(1429) 주자소에서 經筵의 《句解孝經》 250질 간행⁷⁰⁾

成宗 6년(1475) 全州府에서 《효경》 開板⁷¹⁾

中宗 16년(1521) 大·小字 《효경》 각 30권 인출⁷²⁾

中宗 25년(1530) 南原府에서 《효경》 重刊(成宗 6년 全州府 開板本)⁷³⁾

조선에서 간행된 본은 표제가 《효경》이더라도 실제 내용은 대체로 《孝經大義》이다. 다만 세종 5년에 인출된 《直解孝經》과 세종 11년에 간행한 《句解孝經》은 承文院의 강독 과목이었던 《成齋孝經》과 유사한 부류의 책으로 생각된다.

조선에서는 또 대중용으로 《효경언해》를 편찬했는데, 대체로 《효경대의》에서 經과 傳만을 언해한 것이다.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효경언해》 판본은 庚辰字本으로, 일본 동경 尊經閣에 소장되어 있으며 《효경대의》와 《효경언해》의 합본이다. 熊禾의 서문과 徐貫·柳成龍(1542~1607)의 발문 그리고 內賜記가 붙어 있다. 발문은 선조 22년(1589), 내사기는 선조 23년(1590)에 쓴 것이므로 간행 시점을 추정할 수 있다. 顯宗 7년(1666)과 哲宗 14년(1863)의 중간본 등이 있다.⁷⁴⁾

68) 현존하는 冊版目錄에 의거하면 조선 16세기부터 19세기까지 《효경》과 《효경언해》의 간행은 校書館과 경기 1곳, 강원 2곳, 경상 6곳, 충청 1곳, 함경 2곳, 전라 11곳, 평안 1곳, 황해 1곳 등 전국적으로 이루어졌다.(李宰榮, 위 논문, 71쪽)

69) 《世宗實錄》 5년 6월 23일. “禮曹據司譯院牒呈啓 老乞大朴通事前後漢直解孝經等書 緣無板本 讀者傳寫誦習 請令鑄字所印出 從之”

70) 《世宗實錄》 11년 3월 22일. “判府事許稠啓 孝經小學 皆初學所當先習之書也 而小學講於科舉之時 故儒者皆不得已而讀之 若孝經則世之初學 專不讀習 請出經筵句解孝經刊行 以教初學 上曰 然 命左代言許誠曰 可令鑄字所印出二百五十(秩)〔帙〕 頒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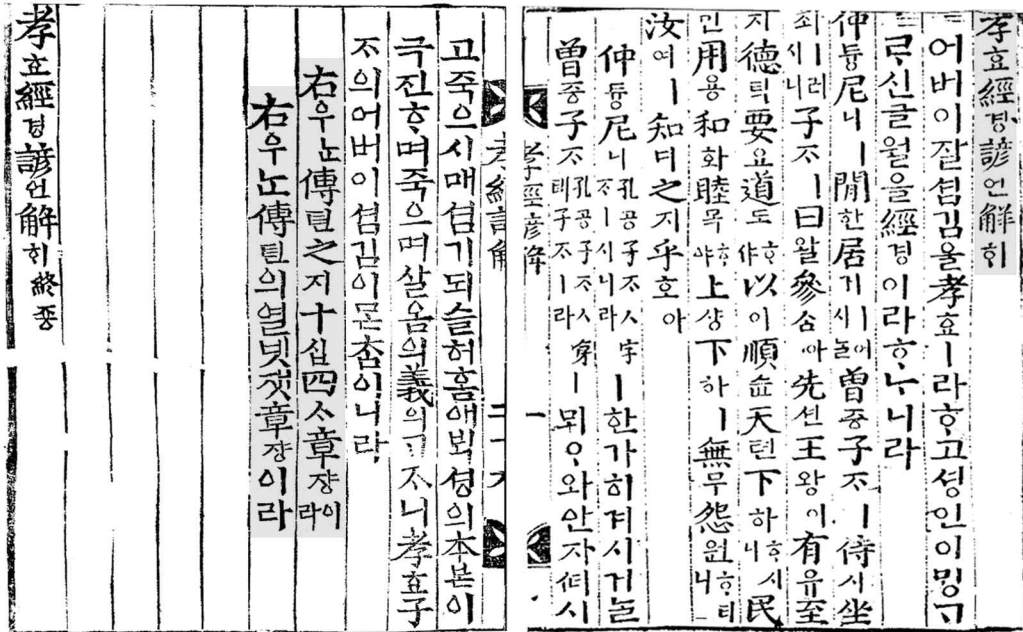
71) 계명대학교 동산도서관 소장(180.79-효-1) 卷末 刊記 “成化十一年乙未 全州府開板”

72) 《中宗實錄》 16년 2월 4일. “傳曰 昨日入內孝經乃中字 而非大字也 其令有板本處 三十件急速印出 且小字孝經三十件 并旁求印納 可也 【大字在全州 小字在外館】”

73) 국립중앙도서관 소장(BA1236-30) 卷末 刊記 “歲在庚寅十二月日 南原府重刊” 跋文 “成化十有一年乙未 五月下泮 守府尹通政大夫南原尹孝孫有慶謹跋”

74) 李宰榮, 《朝鮮時代 孝사상의 전개와 孝經의 간행》, 경북대학교 석사학위논문(2007), 80~81쪽.

그림 4. 《효경언해》 卷首와 卷末



‘右는 傳 14章이다.’라는 말이 《孝經大義》에 근간했음을 알려준다.

종합하면 고려에서는 《효경정의》 계열의 판본이, 조선 세종 때는 《直解孝經》과 《句解孝經》이, 성종 이후로는 《효경대의》와 그 언해본들이 간행되었다. 여기에 고려 光宗(王昭)이 중국의 後周에 《別敍孝經》 등을 바쳤다는 기록과, 조선 承文院의 提調가 每旬에 《成齋孝經》을 관원들과 강독한다는 《大典會通》의 규정⁷⁵⁾을 함께 놓고 보면 고려와 조선에서 유통된 《효경》이 어떤 책들이었는지 대체로 알 수 있다.

《別敍孝經》은 鄭玄의 注가 달린 《효경》으로 보고 있다.⁷⁶⁾ 《成齋孝經》은 元 貫雲石(1286~1324, 본명 : 小雲石海涯)이 元代의 구어체 漢語로 《효경》을 풀이한 《新刊全相成齋孝經直解》⁷⁷⁾인데, 承文院은 외교 문서를 담당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이 책을 외국어 교본으로 사용했던 것이다.

4. 《효경주소》의 내용

《효경주소》는 經文-注-疏로 구성되어 있다. 경문은 금문 《효경》이고, 注는 당 현종의 天寶重注이며, 疏는 元行沖 등이 지은 唐代의 소와 宋 邢昺의 소가 합쳐진 것이다. 注와

75) 앞의 주 64) 참조.

76) 韓致堯의 《海東釋史》 卷44 〈藝文志3 經籍3 中國書目1〉 ‘別敍孝經’조 《宋三朝藝文志》를 인용하여 이와 같이 비정하였다.

77) 중국 廈門大學圖書館古籍庫(<http://libs.xmu.edu.cn/cn/guji/list>)에 “新刊全相成齋孝經直解一卷, 貫雲石(元)撰, 民國二十七年(1938) 北平琉璃廠來薰閣影印本, 檢索번호 181.7/771”로 수록되어 있다.

疏에 대해서는 앞에서 언급했으므로 여기서는 경문을 중심으로 注疏에서 풀이한 의미에 따라 《효경》 전체의 의미 구조를 살펴보기로 한다.

《효경》은 孝道를 전문적으로 논술한 책으로, 핵심 내용은 孝는 인류 보편의 덕행이며 事父와 事君에는 공통된 덕성인 義가 있으므로, 통치자가 효를 숭상하고 또 피치자들의 부형을 존중해주면 피치자들은 이를 본받아 효를 실천하고 또 통치자를 좋아하여 자발적으로 통치자의 事親을 돕게 되는데, 그 결과로 통치자가 先親을 하늘에 배향하고 피치자가 입신양명하게 되면 이것이 효의 완성이라는 것이다. 각 장의 내용을 핵심어 중심으로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開宗明義章

- 제왕의 教化에 있어서 孝의 역할 : 孝는 제왕이 민심을 따라 화목한 사회를 이룰 수 있는 기본 德性[至德]이자 簡要한 方道[要道].
- 효의 始終 : 事親 → 事君 → 立身揚名.

2) 天子章

천자의 효 : 부모에 대한 사랑과 공경 → 타인에 대한 사랑과 공경으로 확장 → 德教.

3) 諸侯章

제후의 효 : 겸손과 절약 → 社稷 보전 → 민심 和平.

4) 卿大夫章

경·대부의 효 : 예법에 맞는 服裝과 언행 → 宗廟 보전.

5) 士章

사의 효 : 父에 대한 愛敬 → 上官에 대한 忠順으로 확장 → 爵祿 보전 → 제사 보전.

6) 庶人章

서인의 효 : 謹身과 절약 → 부모 봉양.

7) 三才章

- 효는 천·지의 객관 법칙과 이로움을 따르는 인류의 보편적 덕행.
- 효의 보편성에 기반한 孝治의 원리 : 제왕의 仁義禮智 숭상 → 백성이 본받음.

8) 孝治章

孝治의 구조 : 통치자가 被治者 존중 → 被治者가 좋아함 → 통치자의 事親·事先이 가능해짐 → 통치자의 부모가 평안하고 조상이 흠향 → 천하 화평.

9) 聖治章

- 聖治(孝治의 궁극 모델) : 제왕이 제후들의 자발적 도움으로 先親을 하늘에 배향하는 경지에 도달.
- 聖治의 구조 : 인류 보편의 事親 감정을 근간으로 군주에 대한 愛敬을 끌어냄.
- 聖治의 원리 : 事君과 事父에 공통으로 義가 존재.
- 聖治의 핵심 방법 : 술선. 悖德과 悖禮(술선 없이 德과 禮를 강요)는 호응을 얻을 수 없음.

10) 紀孝行章

- 事親의 방법 : 공경과 사랑, 근심과 슬픔, 엄숙함 등 상황에 맞게 진심을 다하는 것.
- 중대한 불효 : 망국, 패가, 망신.

11) 五刑章

불효죄 : 五刑에 속하는 3천 가지 죄목 중 가장 중대한 것. 大亂을 초래하므로 임금 겁박죄, 聖人 비방죄와 동급.

12) 廣要道章

- 교화의 방법 : 제왕이 효와 공경 술선 → 피치자가 자발적으로 통치자 사랑·공순.
- 簡要한 통치 방도[要道] : 통치자가 피치자의 아버지·형·임금 공경 → 그 자식·아우·신하들이 좋아함.

13) 廣至德章

지극한 덕을 지닌 제왕의 통치 : 효와 공경 술선 → 피치자의 자발적인 부형·군주 공경.

14) 廣揚名章

부형에 대한 공경 → 군주·上官에 대한 충성과 공순으로 확장 → 입신양명.

15) 諫諍章

부모와 군주가 불의에 빠지지 않고 지위와 명예를 보존할 수 있도록 간쟁하는 것이 진정한 효와 충.

16) 感應章

지극한 효도와 공경은 신명과 통하므로 종묘에 공경을 다하면 귀신의 감응이 나타남.

17) 事君章

事君의 올바른 방법 : 군주의 좋은 점은 따르고 나쁜 점은 바로잡아 소통하는 것.

18) 喪親章

事親의 마무리 : 부모상을 당했을 때 슬픔을 다하여 喪禮를 잘 치루는 것.

이상은 ○제1단락(開宗明義章 : 대전제) ○제2단락(天子章~庶人章 : 계급별 효의 내용) ○제3단락(三才章~聖治章 : 孝治의 원리와 궁극 모델) ○제4단락(紀孝行章·五刑章 : 효행과 불효의 要目, 불효죄의 중대함) ○제5단락(廣要道章~廣揚名章 : 제왕의 要道·至德과 제후 이하의 揚名) ○제6단락(諫諍章~喪親章 : 간쟁과 효, 효와 신명, 事君의 도리, 居喪의 준칙) 등 크게 6단락으로 이루어져 있다.

요약하자면 인류 보편의 덕행인 孝를 매개로 私的 영역의 事親에서 출발하여 公的 영역의 통치와 事君을 자연스럽게 이룰 수 있고, 또 거꾸로 공적 영역의 성공적 통치와 입신양명을 통해 私的 영역의 事親을 완성할 수 있음을 실파한 것이 《효경》이다.

5. 《효경주소》 번역의 의의

전통시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전통시대 중법제도와 忠孝를 핵심으로 한 뿌리 깊은 봉건사상을 이해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효경》 연구가 필수적인데, 전통문화연구회에서는 1996년에 《효경대의》⁷⁸⁾를 대본으로 國譯한 바 있다. 당시 대본 선정의 주요 이유는 우리 先人들이 주로 읽은 책이 《효경대의》였고 또 《효경대의》가 孝를 추상적으로 해석한 감이 없지 않으나 전체적으로 볼 때 孝의 本旨를 천명한 점은 평가할 만하기 때문이었다.⁷⁹⁾

그런데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효경대의》는 《효경》의 성리학적 주해서이므로, 성리학의 범주를 넘어서는 先學들의 해석을 볼 수 없는 한계가 있었다. 이번에 漢·唐의 古注를 아우른 《孝經注疏》를 번역하는 것은 《효경》 이해의 넓은 시야를 확보한다는 데 의의가 있다.

78) 《孝經大義》 內閣本(保景文化社 영인본, 1987)을 국역대본으로 하고, 輔養廳 重刊本(甲戌)과 四庫全書本을 참고하였다. 鄭太鉉 譯註, 《孝經大義》, 傳統文化研究會(2009), 7쪽.

79) 鄭太鉉 譯註, 《孝經大義》, 傳統文化研究會(2009), 6쪽.

阮元の 《孝經正義》 해제와 邢昺·傅注의 〈孝經注疏序〉, 그리고 당 현종의 〈御製序并注〉를 통해 《효경》의 속·古文 논쟁과 《효경주소》 성립 과정에 대한 각 시대 碩學들의 해설을 살펴볼 수 있다. 또 《효경주소》는 《효경대의》와 금·고문의 차이에 따른 상이한 편제를 보일 뿐만 아니라 경문을 판이하게 해석한 부분들도 있다. 일례를 들면 다음 표 5와 같다.

표 5. 동일한 경문을 《효경주소》와 《효경대의》에서 판이하게 해석한 사례

구 분	《효경대의》	《효경주소》
위 치	經1장 말미	庶人章 후반
원문과 현토	故自天子已下로 至于庶人히 孝無終始요 而患不及者 未之有也니라	故自天子로 至於庶人히 孝無終始니 而患 不及者는 未之有也니라
번 역	그러므로 천자로부터 아래로 庶人에 이르기까지 孝에 終(立身行道 以顯父母)·始(身體髮膚 不敢毀傷)가 없고서, 몸에 患亂이 미치지 않는 자 있지 않다.	그러므로 천자로부터 庶人에 이르기까지 孝는 끝(서인)과 처음(천자)의 차이가 없으니, 효에 도달하지 못할까 걱정하는 사람은 있지 않다.

經文의 ‘終始’와 ‘患’에 대한 해석이 두 책에서 서로 다르기 때문에 위와 같이 확연히 다른 번역으로 귀결되었다. 양자 간에 어떤 해석을 취할 것인지는 연구자와 독자의 몫이지만, 이와 같은 해석의 차이가 옛 碩學들부터 존재했음을 아는 것은 사고의 확장이라는 점에서 긍정적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효경주소》 전체를 살펴보면 이와 유사한 차이를 보이는 지점이 심심찮게 발견된다.

변화하는 시대에 따라 새롭게 해석되어 시대정신에 근원적 통찰을 붙여넣는 것이 고전이다. 《효경》 역시 시대적 소명을 다한 과거의 해석에 매이지 말고 시대정신에 발맞추어 읽을 수 있다면 부모-자녀 및 가정-국가의 관계에 대한 더욱 깊은 이해를 끌어낼 수 있을 것이다.

한 예를 들자면 《효경》에는 자식의 생존이 아버지의 사회경제 활동에 전적으로 달렸던 시대의 가치관이 투영되어 시대를 초월한 보편성을 지니기에 부족한 측면이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자식이 어머니에 대해 느끼는 감정과 아버지에 대해 느끼는 감정을 구분하여 해석한 것은 父子 간에 권위적 관계보다 친밀한 관계를 중시하는 현대⁸⁰⁾에도 여전히 주목할 만한 점이다.

최근 유아 교육 연구에서는 아버지가 유아의 인지학습·성역할·성취동기·사회성 발달 등 제반 영역에서 어머니보다 더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데, 아버지와의 관계에서 얻는 자극은 어

80) 이숙현, 〈장년기 아버지의 일과 가족생활-아버지의 일과 가족생활〉, '95 가정복지세미나 자료집 3-34, 1995. 한경혜, 〈남성의 부모기로의 전이와 직업 역할-전이시기와의 관련을 중심으로〉 《대한 가정학회지》 34(2), 1996, 231~244. 곽은영, 《아버지의 부모역할 만족도와 양육태도가 유아의 사회성에 미치는 영향》, 충북대학교 석사학위논문(2012), 18쪽에서 재인용.

머니로부터 받는 자극에 비해 유아의 사회적 발달에 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보고⁸¹⁾가 이어지고 있다. 대체 아버지와의 관계는 어머니와의 관계와 무엇이 다르기에 유아의 사회적 발달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일까? 그 해답에 다가가는 통찰을 2000년 전의 《효경》이 이미 품고 있다.

《효경》이 설파한, 私的 영역의 事親과 私的 영역의 事君·통치의 긴밀한 연관은 事父와 事君에 공통으로 ‘義’가 존재한다는 분석에 기반하고 있다. 이를 ‘義’에 대한 古註의 풀이 ‘만물을 이롭게 함[利物]’과 함께 놓고 볼 때, 자식과 아버지의 관계는 어머니와의 관계보다 기본적으로 객관성을 농후하게 지닌다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아버지와의 유대와 소통의 경험 이 향후 사회적 관계맺기에 原型으로 작용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귀결이라 할 것이다. 이와 같이 《효경》을 시대정신에 맞추어 새롭게 해석해 내려 할 때도 옛 석학들의 古注를 통해 시야를 확장하는 일은 의미 있는 일이라 할 수 있다.

《효경》의 孝가 전통시대에 가부장적 봉건윤리의 근간을 이루었던 것은 사실이다. 경직된 봉건 위계질서에 반쪽은 가려진 채 나머지 반쪽만이 전부인 것처럼 오인되어 온 세월이 길었다. 그러나 그것은 객관적 是非의 기준을 기반으로 부자간, 군신간의 쌍방향 소통을 강조한 《효경》의 진정한 孝의 정신과는 거리가 있는 것이었다. 가정과 사회 전반이 유연한 소통을 중시하는 현대 사회에서조차 《효경》을 봉건윤리의 그늘 속에서 읽는다면 그것은 너무나 타성에 젖은 시대착오적 讀法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효경》은 현대에 비로소 온전히 이해될 수 있는 여건을 만났다고도 할 수 있다. 평등하고 자유로운 가정과 사회 질서 아래 자애와 사랑, 돌봄과 공경, 상호 부조와 소통의 관계 맺기를 찾아보며 《효경》을 새롭게 읽어보면 좋을 것이다.

81) 박광균, 《아버지의 자녀 양육태도와 유아의 사회적 능력과의 관계》, 경희대학교 석사학위논문(2000). 곽은영(2012), 19쪽에서 재인용.

참고문헌

1. 原典

〔韓國〕

- 《三國遺事》
- 《高麗史》
- 《世宗實錄》
- 《中宗實錄》
- 《大典會通》
- 韓致滌, 《海東釋史》

〔中國〕

- 《史記》
- 《漢書》
- 《後漢書》
- 《南齊書》
- 《隋書》
- 《舊唐書》
- 《唐會要》
- 《新五代史》
- 《宋史》
- 《論語》
- 孝經緯 《鉤命訣》
- 《莊子》
- 晉 張華, 《博物志》
- 南宋 王應麟, 《困學紀聞》
- 宋 朱熹, 《孝經刊誤》
- 宋 司馬光·范祖禹, 《古文孝經指解》
- 清 朱彝尊, 《經義考》
- 清 周中孚, 《鄭堂讀書記》
- 清 姚際恒, 《古今僞書考》
- 清 永瑤·紀昀, 《四庫全書總目提要》

2. 譯註와 論著

[韓國]

- 鄭太鉉 譯註, 《孝經大義》, 傳統文化研究會, 2009.
- 김용옥, 《효경한글역주》, 통나무, 2010.
- 곽은영, 《아버지의 부모역할 만족도와 양육태도가 유아의 사회성에 미치는 영향》, 충북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2.
- 李宰榮, 《朝鮮時代 孝사상의 전개와 孝經의 간행》, 경북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7.
- 강문식, 〈조선전기의 효경 이해〉《정신문화연구》 35-1, 2012.
- 이지영, 〈孝經諺解 이본에 대한 비교 연구〉《정신문화연구》 35-1, 2012.
- 옥영정, 〈효경간오, 효경대의, 효경언해의 간행본과 그 계통 연구〉《정신문화연구》 35-1, 2012.
- 이재영, 〈朝鮮時代 孝經의 刊行과 그 刊本〉《서지학연구》 제38집, 2007.
- 여찬영, 〈효경언해의 원문에 대한 연구〉《어문학》 제84집, 2004.
- 정호훈, 〈朱子 孝經刊誤와 그 성격〉《東方學志》 제116집, 2002.
- 李成珪, 〈漢代 孝經의 普及과 그 理念〉《韓國思想史學 10-1》, 한국사상사학회, 1998.
- 金東仁, 〈아동용 교재로서 孝經과 小學〉《教育史學研究》 제2·3집, 1990.

[中國]

- 胡平生, 〈孝經是怎樣的一本書〉《孝經譯注》, 中華書局, 2009.
- 王正己, 〈孝經今考〉《古史辨》 第4冊, 海南出版社, 1933.

3. 전자문헌과 웹사이트

- 文淵閣 四庫全書 전자판
- 中國基本古籍庫 전자판
- 한국고전번역원 고전종합DB(<http://db.itkc.or.kr>)
- 尙友千古(<http://www.s-sangwoo.kr>)
- 중국 廈門大學圖書館古籍庫(<http://libs.xmu.edu.cn/cn/guji/list>)

연구
발표
02

《孔子家語》의 流傳과 讀者

許敬震^{*)}

(연세대 명예교수)

..... 목 차

1. 僞書로 의심받으며 전해졌던 《孔子家語》
2. 竹簡의 발견으로 밝혀진 《孔子家語》의 저술 연대
3. 僞書 與否와 관련없이 인정되었던 《孔子家語》의 가치
4. 《孔子家語》의 板本과 流傳
5. 《孔子家語》의 韓國 流傳
6. 《孔子家語》의 한국 讀者들
7. 현대 독자를 위한 《孔子家語》 번역의 의의

《孔子家語》는 孔子의 이름이 들어간 특별한 책이면서도 오랫동안 僞書일 것이라는 의심을 받아 經典 대우를 받지 못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이 읽었으며, 여러 종류의 주석이 출판되었다. 국내에서 가장 오래된 명지대 소장본 《新刊標題孔子家語句解》는 보물 제1149호로 지정되었다.

朱熹가 《공자가어》의 가치를 인정하여 《中庸章句》에 인용함으로써 위서 여부를 떠나서 가치가 있는 책으로 인정받았다. 조선에서는 正祖가 과거시험에 《공자가어》의 구절을 자주

*) 오늘 발표자는 《孔子家語》의 책임번역자 許敬震이지만, 발표 내용은 공동번역자 具智賢이 허경진과의 토론과정을 거쳐 집필한 〈孔子家語 解題〉를 바탕으로 수정·보완하여 작성하였다. 讀者 부분을 중점적으로 확장하였다.

출제함으로써 많은 학생들이 이 책을 읽게 유도하기도 하였다. 그러다가 1970년대에 《공자가어》의 竹簡이 출토되면서 위서 논쟁이 마무리되고, 傳統文化研究會에서 國譯懸吐本을 출간하여 한국의 독자들이 정본을 읽게 되었다.

1. 僞書로 의심받으며 전해졌던 《孔子家語》

《공자가어》는 ‘孔子家에서 傳해 오는 말’이란 뜻으로, 孔子와 공자 제자들의 思想과 言行을 기록한 책이다. 楊朝明이 밝힌 것처럼, 《史記》〈孔子世家〉에 따르면 공자가 죽은 뒤에 孔子家는 儒生들이 모여서 禮義를 논하고 鄉飲禮를 행하며 활쏘기를 하는 장소가 되었다. 그들은 각자 정리해서 간직하던 공자의 수업기록을 한 데 모으기도 했던 것이다.¹⁾

《공자가어》에 대해 가장 처음 언급한 기록은 《漢書》〈藝文志〉에 보이는데, “凡論語十二家 二百二十九篇” 가운데 “孔子家語二十七卷”이 포함되어 있다. 이에 대해 顏師古(581~645)는 “지금 전해지는 《공자가어》가 아니다.[非今所有家語]”라고 하여, 《漢書》〈藝文志〉에 보이는 《공자가어》가 그가 살던 初唐 때 유전하던 《공자가어》와는 다르다고 注를 달았다.

안사고가 언급한 《공자가어》가 어떤 본인지는 확실치 않다. 그런데 《隋書》〈經籍志〉에 “《공자가어》 21권 王肅 解[孔子家語二十一卷王肅解]”라는 구절이 나오고, 《舊唐書》〈經籍志〉에 “孔子家語十卷王肅注”라고 하였으며, 《新唐書》〈藝文志〉에도 “王肅이 《論語》 10권을 주해하였고, 또 《공자가어》 10권을 주해하였다.[王肅注論語十卷 又注孔子家語十卷]”라는 구절이 보인다. 隋唐 시대에 유행하였던 《공자가어》는 王肅(195~256)의 注解本으로 추정되며, 왕숙은 《論語》를 주해하던 연장선상에서 《공자가어》도 주해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문헌상의 기록을 종합해보면 兩漢에서 唐과 五대에 이르기까지 《공자가어》는 27권본과 21권본, 10권본 등이 전해졌고, 그 가운데 21권본과 10권본은 왕숙의 주해본이었던 것으로 짐작된다.²⁾ 宋代에 출현한 目錄書에서도 《공자가어》의 서목은 쉽게 찾을 수 있는데, 대부분 왕숙의 주해본이다. 따라서 송대에 流傳된 《공자가어》는 모두 10권의 왕숙 주해본이라 할 수 있다.³⁾

송나라의 유학자들은 ‘漢代의 《공자가어》는 이미 逸失되었다’고 보았다. 왕숙과 비슷한 시대를 살았던 馬昭는 《禮記》〈樂記〉의 疏 가운데 “《공자가어》는 왕숙이 덧붙인 것으로, 鄭玄이 본 것이 아니다.[孔子家語王肅所增加 非鄭所見]”라고 설명하였는데, 이 구절은 안사고의 注와 함께 이 시기 왕숙의 주해본이 僞書일 것이라는 추정의 근거가 되었다. 이로 인해, 《공

1) 楊朝明, 〈孔子家語의 成書與可靠性研究〉, 楊朝明·宋立林 主編, 《孔子家語通解》, 齊魯書社, 2009, 4쪽.

2) 姜贊洙, 〈중국본 《孔子家語》의 국내 수용과 간행 양상〉, 《中國文學研究》 35집, 한국중문학회, 2007, 1~22쪽.

3) 姜贊洙, 전제 논문.

자가어》는 오랜 세월 위서 논란으로 인해 신빙성에 의심을 받아오기도 하였다.

《공자가어》의 僞書說을 제일 먼저 주장했던 유학자는 王柏(1197~1274)이다. 그는 〈家語考〉에 다음과 같이 기록하였다.

지금의 《孔子家語》 10권은 모두 44편이다. 내 생각에 王肅이 《春秋左氏傳》, 《國語》, 《荀子》, 《孟子》, 《二戴》(《大戴禮記》와 《小戴禮記》)의 잉여에서 마구 취해서 精粗를 섞고 전후를 잘라내어 편집해 만들고서 孔安國의 이름을 가탁한 것이고 孔衍의 서문 역시 王肅이 스스로 지은 것이다.⁴⁾

왕백은 朱熹(1130~1200)의 《中庸章句》를 읽으면서 《공자가어》와 《중용》을 비교할 때 ‘有缺有衍’이 있음을 발견하고 懷疑가 생겨났으며, 주희의 《공자가어》에 대한 입장에도 의문이 생겼다. 주희는 《공자가어》에 대해서 오히려 “기록이 불순하더라도 당시의 책이다. [雖記得不純 却是當時書]”, “책에 흠이 많더라도 왕숙이 지어낸 것은 아니다. [其書雖多疵 然非肅所作]”라고 평가하였기 때문이다.⁵⁾ 비슷한 시기 陳振孫(1179~1262)은 다음과 같은 의견을 내놓았다.

《孔子家語》 10권은 孔子 22세손 孔猛이 전한 것인데, 魏나라 散騎常侍 王肅이 注를 냈다. 왕숙은 鄭玄(127~200)의 학문을 배척하였다. 孔猛이 왕숙에게 배운 적이 있어 왕숙이 공맹에게서 이 책을 얻었다. 왕숙이 논한 바와 합치하는 것이 많아, 이 책을 따라 논증하여 마침내 세상에 유행하게 되었다. 박사 孔安國이 벽 속에서 얻은 책이라고 하나 꼭 그렇다고는 할 수 없다. 책에 실린 것이 《左氏傳》과 《大戴禮記》 등의 책에 많이 보인다고 한다.⁶⁾

진진손은 위서라고 보지는 않았지만 《공자가어》를 왕숙이 내어놓은 목적이 정현을 반대하는 데 있었고, 공안국에게서 연원하였다는 설은 거짓이라고 보고 있다.

이렇게 시작된 僞書說은 清代까지 맹위를 떨쳤다. 孫志祖(1737~1801)의 《家語疏證》, 範家相의 《家語證僞》 등 왕숙이 거짓으로 만들었다고 주장하는 학자의 논증이 ‘疑古思潮’, 즉 考證學의 영향 하에 광범위하게 이루어졌다. 陳士珂의 《孔子家語疏證》처럼 위서가 아니라고 주장하거나 錢腹의 〈家語疏證跋〉처럼 왕숙이 增減하였다는 설 역시 존재하였으나, 위서설

4) 王柏, 《魯齋集》 권9 〈家語考〉. “今之家語十卷 凡四十有四篇 意王肅雜取左傳國語荀孟二戴之緒餘 混亂精粗 割裂前後 織而成之 托以安國之名 孔衍之序 亦王肅自爲也”

5) 楊朝明, 〈《孔子家語》의 成書與可靠性研究〉, 《學術季刊》 26권 제1기, 臺灣故宮博物院, 2008년 가을.

6) 陳振孫, 《直齋書錄解題》 권9 〈儒家類〉. “孔子家語十卷 孔子二十二世孫猛所傳 魏散騎常侍王肅爲之注 肅闢鄭學 猛嘗受學於肅 肅從猛得此書 與肅所論多合 從而證之 遂行於世 云博士安國所得壁中書也 亦未必然 其間所載 多已見左氏傳大戴禮諸書云”

은 근대까지 뿌리 깊게 이어졌다. 顧頡剛(1893~1980)은 中山大學 시절에 편찬한 《孔子研究講義》에서 위서설을 주장하는 논증만을 다루며, “〈《공자가어》는〉 취할 만한 어떤 가치도 없다.〔却無任何取信之價值〕”고까지 말할 정도였다.

2. 竹簡의 발견으로 밝혀진 《孔子家語》의 저술 연대

《공자가어》가 위서라는 것이 거의 定說로 굳어져 가는 듯하였으나, 현대에 와서 새로운 전기가 마련되었다.⁷⁾ 王肅 이전에 기록된 《공자가어》 내용이 발견된 것이다. 1973년 중국 河北省 定縣 八角廊 40호 漢墓에서 다량의 竹簡이 출토되어 80년대에 정리가 되었다. 8종의 古籍 가운데 《儒家者言》이라고 명명된 자료는 李學勤의 연구에 따라 ‘竹簡《家語》’라고 일컬어질 정도로 《공자가어》와 유사한 형태를 취하고 있었다. 이학근은 《유가자언》과 《論語》가 같은 墓에서 나온 것으로 여기고, 《漢書》〈藝文志〉가 ‘《家語》’를 ‘論語類’에 배열한 기록은 둘 사이의 관계가 밀접함을 설명하는 증거라고 생각하였다.⁸⁾ 이로써 《가어》 孔安國序의 일부 전해도 입증되었다.

1977년 安徽省 阜陽雙古堆 1號 漢墓에서 이른바 ‘阜陽漢簡’이 발굴되었는데, 西漢 때 유물로써 1호 木簡이 《공자가어》와 밀접한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었다. 같은 시기 공개된 上海博物館 소장의 죽간과 영국의 燉煌 寫本 《공자가어》의 존재는 《공자가어》의 實傳에 대한 강한 확신을 주었다. 출토자료에 기반한 연구를 통해 《공자가어》는 漢魏 시기 孔氏 집안에서 이루어진 책으로서 流傳되어 내려오던 것을 王肅이 정리한 것으로 결론이 이어졌다.

그러나 출토자료 연구를 주도하였던 寧鎮疆은 현존본 《공자가어》의 특성을 재론하면서 출토자료의 한계도 또한 지적하였다.

마지막으로, 필자는 현재 발견된 《공자가어》 연관 출토 자료들도 필경 한계가 있음을 강조하고 싶다. 때문에 필자가 《가어》 문제에 관한 판단 역시 일가의 주장일 뿐, 완전하지 못한 점이 없을 수 없다. 학술이 천하의 공적인 무기인 만큼, 무릇 사건도 만드시 두 번의 논증을 거쳐야만 비로소 그 시비를 정확히 가릴 수 있다. 《辨》을 비롯한 문장에서 《공자가어》 연관 문제에 대해, “정확히 인식”했다고 자칭하는 점 역시, 학계에 맡기어 스스로 판단을 내리도록 하는 편이 낫겠다.⁹⁾

그가 이 논문의 결론에서 《공자가어》의 流傳을 ‘偽造’가 아닌 ‘累積’이라는 용어로 설명한

7) 霍婉雯, 〈《孔子家語》及王肅注研究〉, 香港中文大學 碩士論文, 2008.

8) 李學勤, 〈竹簡《家語》與漢魏孔氏家學〉, 《孔子研究》 1987年 2期, 60~66쪽.

9) 寧鎮疆, 〈“層累”非“作偽”—再論今本《孔子家語》的性質〉, 《學術界》 第138期, 2009, 117쪽.

것을 보면, 보다 완전한 후속 연구를 기다리는 듯하다.

3. 僞書 與否와 관련없이 인정되었던 《孔子家語》의 가치

僞書說의 난립과 상관없이, 《공자가어》의 가치는 어느 시대에나 인정받아왔다. 《공자가어》의 가치를 가장 먼저 확신한 유학자는 朱熹인데, 그는 《中庸章句》에서

○ 《공자가어》에도 이 장이 실려 있는데, 그 문장이 더욱 상세하다.[孔子家語亦載此章 而其文尤詳]

○ ‘博學之’ 이하는 《공자가어》에 없으니 〈《공자가어》에〉 꺾문이 있는 것이거나 〈《중용》에〉 子思가 보충한 것이 아닌가 한다.[博學之以下 家語無之 意彼有關文 抑此或子思所補也歟]

라는 등의 주를 달아, 《공자가어》를 《중용》과 상보적인 문헌으로 활용하였다. 같은 시기에 葉適(1150~1223)은 다음과 같이 평가하였다.

《공자가어》 44편은 비록 孔安國이 撰次하였을지라도 〈後序〉를 살펴보면 실로 孔氏의 제자들이 옛날에 모아 기록한 것이다. 《論語》, 《孝經》과 같은 시대이다. 正實하여 사실에 입각한 것을 취하여 따로 《논어》를 만들었고, 나머지는 모두 모아 기록하여 《공자가어》라 이름한 것이다.¹⁰⁾

위 인용문에 보듯 공자의 언행을 기록한 책으로 《논어》와 《공자가어》를 함께 들면서 동시대에 출현한 것으로 추정하였다. 비록 《논어》 쪽이 “正實而切事”하다고 인정하고는 있으나, 《공자가어》 역시 공자에 관한 주요한 문헌으로 다루고 있는 것이다.

僞書 여부에 상관없이 《공자가어》를 주요한 문헌으로 다루는 것은 청대까지 계속되었다. 다음은 《四庫全書總目》에 나오는 《공자가어》에 대한 설명이다.

반복해서 고증해보면 王肅의 손에서 나온 것이 분명하나, 다만 流傳된 지 이미 오래되었고 遺文과 軼事가 왕왕 그 가운데 많이 발견되므로 唐代 이래로 위서임을 알면서도 없애지 못하였다. 책이 明代에 이르러서는 전해지는 본이 매우 드물었기 때문에 何孟春이 《공자가어》를 注解한 곳에서는 王肅本을 보지 못하였다고 自述하였다.

10) 葉適, 《習學記言》 권17 〈孔子家語〉. “孔子家語四十四篇 雖安國撰次 按後序 實孔氏諸弟子舊所集錄 與論語孝經並時 取其正實而切事者 別爲論語 其餘則都集錄之 名曰孔子家語”

王鏊의 《震澤長語》 역시 《공자가어》를 일컬어 今本은 근세 용렬한 이들이 산삭한 것이고 오직 왕숙의 注만이 今本에 없는 것이 많이 갖추어져 있다고 하였으니 역시 겨우 본 것이다. 明代에 전한 것은 모두 2개의 본인데, 閩의 徐燭家本은 20여 장이 결락되어 있고, 海虞의 毛晉家本은 조금 다르나 처음부터 끝까지 완전하였다. 지금 徐燭家本은 전하는지 아닌지 알 수 없다. 이 본은 毛晉이 校刊한 것이니 坊刻本과 비교하여 오히려 옛것에 가깝다.¹¹⁾

《四庫全書》를 정리한 館臣 또한 《공자가어》를 위서라고 여기고 있다. 그러나 遺文과 軼事가 많이 보이는 내용의 풍부성 때문에 여전히 유전되어 왔다고 설명하였다. 위 기술에 따르면 明代에 이르러 상당히 다양한 주해본이 민간에 유포되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何孟春(1474~1536)과 王鏊(1450~1524)의 기술을 근거로, 왕숙 주해본이 희귀하면서도 善本이라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이상을 살펴보면, 현재 《공자가어》는 위서가 아님이 증명되었으며 내용상으로도 공자에 관해 《논어》 못지않은 풍부성과 원시자료를 담고 있는 문헌이라고 할 수 있다.

4. 《孔子家語》의 板本과 流傳

宋代 이전의 《공자가어》는 각종 문헌에서 자취를 찾아볼 수 있을 뿐 완본을 찾기는 어렵다. 가장 오래된 《공자가어》는 필사본인 燉煌本으로, 英國 博物館에 소장된 ‘斯一八九一’호이다. 모두 73행이 남아 있는데, 今本の 〈郊問〉과 〈五刑解〉에 해당되며, 〈郊問〉의 篇末 12행과 〈五刑解〉 전부로 구성되어 있다.¹²⁾

또 하나의 본은 唐 太宗 때 편찬한 것으로 알려진 《群書治要》에 실린 《공자가어》이다. 이 책은 중국에서는 失傳되었으나, 일본 金澤文庫에 전해지다가 현재는 宮內廳 書陵部에 소장되어 있는데 이를 저본으로 江戸時代に 세 차례 간행된 바 있다. 이 역시 완본이 아니라, 〈始誅〉·〈王言〉·〈大婚〉·〈問禮〉·〈五儀〉·〈致思〉·〈三恕〉·〈好生〉·〈觀周〉·〈賢君〉·〈辨政〉·〈六本〉·〈哀公問政〉·〈顏回〉·〈困誓〉·〈執轡〉·〈五刑〉·〈刑政〉·〈問玉〉·〈屈節〉·〈正論〉·〈子夏問〉만을 초록한 것이다. 이 두 본이 완본은 아니더라도 篇目과 順序를 대조해보면 王肅本과 거의 같다. 이를 통해 魏晉 이전에 이미 《공자가어》의 내용과 편목이 정해졌음을

11) 《欽定四庫全書總目》 권91 〈儒家類 孔子家語〉. “反覆考證 其出於肅手無疑 特其流傳既久 且遺文軼事 往往多見於其中 故自唐以來 知其僞而不能廢也 其書至明代傳本頗稀 故何孟春所註家語 自云未見王肅本 王鏊震澤長語亦稱家語 今本爲近世妄庸所刪削 惟有王肅註者 今本所無多具焉 則亦僅見之也 明代所傳 凡二本 閩徐燭家本中缺二十餘頁 海虞毛晉家本 稍異而首尾完全 今徐本不知存佚 此本則毛晉所校刊 較之坊刻 猶爲近古者矣”

12) 王重民, 《敦煌古籍敘錄》, 中華書局, 1979, 146쪽.

알 수 있으며,¹³⁾ 王肅本이 僞書가 아님도 알 수 있다.

宋代의 목록을 살펴보면, 王堯臣 등의 《崇文總目輯釋》에 “孔子家語十卷 東垣按孔子二十二世孫猛所傳 王肅注 卽王肅依託也 今本二十一卷”, 晁公武의 《群齋讀書志》에 “孔子家語十卷……右魏王肅序 注凡四十四篇”, 陳振孫의 《直齋書錄解題》에 “孔子家語十卷……魏散騎常侍王肅爲之注”라고 한 기록들을 찾아볼 수 있다. 이러한 기록들은 송대에 통용되던 《공자가어》가 왕숙이 주해한 10권본이라는 사실을 짐작하게 한다.¹⁴⁾

실제 板本에 관련된 기록은 陳造(1133~1203)의 《江湖長翁集》 31권 〈題家語〉에 “이 蜀本은 종이가 훌륭하고 글자가 크다. 制置使 袁公이 하사한 것인데 48년 동안 잃어버렸다가 지금에야 찾아서 가지고 있다.〔此蜀本 紙佳字大 蓋制置袁公所賜 去眼四十有八年 迺今得而有之〕”라고 한 것과 《景定建康志》 33권 〈文籍志〉에 “《공자가어》에 監本과 建本이 있다.〔孔子家語 藍本建本〕”라고 한 것이 있다.宋代에 板刻한 《공자가어》는 蜀本(四川 간행본), 監本(國子監 간행본), 建本(建陽書房 간행본)의 3종이다. 그러나 影宋蜀大字本(모각본)만이 전할 뿐 나머지 두 종은 전하지 않아 상세한 내용을 알 수 없다.¹⁵⁾

元代의 書目에서 달라진 점은 王肅 注本 외에 王廣謨 注本이 등장하기 시작하였다는 점이다. 이 시기의 간본은 4종으로 정리할 수 있다.¹⁶⁾

첫째, 《新編孔子家語句解》 10권 1책이다. 현재 중국 國家圖書館에 소장되어 있으며, 至正 27년(1367)에 간행된 劉祥卿家 刻本이다. 1권 1행에 “新編孔子家語句解卷之一”, 2행에 “竝依王肅註義詳爲句解”라고 되어 있어, 본래 王肅의 注本을 기초로 하여 劉祥卿이 더 상세한 주석을 달았다는 사실을 밝히고 있다.

둘째, 《標題句解孔子家語》 6권 3책이다. 元나라 王廣謀가 지은 것으로 泰定 元年(1324) 蒼巖書院 刊本이다. 元代의 官刻은 그 지방의 서원에서 담당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蒼巖書院 역시 유명한 서원 가운데 하나였다. 현재 이 본은 중국에서 실전되었다. 1599년 일본에서 간행한 古活字本이 현전하는데, 德川家康의 명에 따라 京都 伏見円光寺에서 출판한 伏見版이다.

목록은 1권에 〈相魯〉·〈始誅〉·〈王言解〉·〈大婚解〉·〈儒行解〉·〈問禮〉·〈五儀解〉, 2권에 〈致思〉·〈三恕〉·〈好生〉·〈觀周〉·〈弟子行〉·〈賢君〉, 3권에 〈辯政〉·〈六本〉·〈辯物〉·〈哀公問政〉·〈顏回〉·〈子路初見〉·〈在厄〉, 4권에 〈入官〉·〈困誓〉·〈五帝德〉·〈五帝〉·〈執轡〉·〈本命解〉·〈論禮〉, 5권에 〈觀鄉射〉·〈郊問〉·〈五刑解〉·〈刑政〉·〈禮運〉·〈冠頌解〉·〈廟制解〉·〈辯樂〉·〈問玉〉, 6권에 〈屈節解〉·〈七十二弟子解〉·〈本姓解〉·〈終記解〉·〈正論解〉·〈曲禮子貢問〉·〈曲禮子貢問〉·〈曲禮公西赤問〉라고 되어 있다. 상책에 〈辯政〉까지, 중책에 〈刑政〉까지

13) 金鎬, 〈孔子家語版本源流考略〉, 《故宮學術季刊》 第20卷 2期, 故宮博物院, 2002, 165~201쪽.

14) 김호, 〈辨章學術, 考鏡源流: 目錄과 學術思想의 關係 - 《孔子家語》를 중심으로〉, 《중국어문논역총간》 31, 중국어문논역학회, 2012, 35~57쪽.

15) 金鎬, 전개 논문.

16) 이하 간본의 종류에 관한 것은 金鎬의 전개 논문을 참조하였다.

분권되어, 상중하 3책이다. 《木犀軒藏書題記及書目》에 “素王事紀前列家語後序 目錄後題泰正甲子秋蒼巖書院刊行一行 後又附聖朝通制孔子廟祀一卷”이라는 구절이 보이는 것으로 미루어, 본래는 後序 뒤에 《素王事記》가 있고 또 《聖朝通制孔子廟祀》 1권이 덧붙여져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셋째, 《新刊標題孔子家語句解》 6권 1책이다. 역시 王廣謀의 것으로 泰定 2년(1325) 崇文書塾 간본이다. 현재 臺灣 國家圖書館에 소장되어 있다. 본권은 《標題句解孔子家語》와 같고, 권말에 〈元封時序〉와 〈孔安國傳略〉이 실려 있으며, 《新刊素王事記》가 부록되어 있고, 그 뒤에 〈魯司寇象〉·〈先聖紀年圖〉·〈先聖世系圖〉·〈歷代追崇事始〉가 수록되어 있다.

넷째, 《標題句解孔子家語》 3권 3책이다. 王廣謀 注本으로 원나라 간본이기는 하나 정확한 출간 시기는 밝혀져 있지 않다. 현재 대만 국가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다. 상권에 〈辯政〉까지, 중권에 〈刑政〉까지, 하권에 나머지가 실려 있다. 서명, 권수, 편차를 볼 때 蒼巖書院 간본과 같은 계통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素王事記》가 없으며, 卷頭に 실린 악곡명, 배치도, 제복 등의 자료는 《聖朝通制孔子廟祀》의 내용과 일치한다.

宋本을 복각한 첫 번째 《新編孔子家語句解》를 제외한다면 元代는 王廣謀의 注本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明代 初期에는 《공자가어》가 유행하지 않았지만, 중기 이후 여러 종의 판본이 등장하였다. 중앙과 지방의 관아에서도 판각하였지만, 현전하는 판본은 대부분 개인적인 판본들이다. 김호의 연구에서는 明代의 판본을 12종으로 정리하였다.¹⁷⁾

①의 何孟春(1474~1536) 注本은 여러 종의 판본이 현전한다. 하맹춘은 跋文에 “王肅의 注本을 내가 보지 못하였으나, 그 서문을 보니 금세에 전하는 《공자가어》는 왕숙의 본이 전혀 아니고 顏師古가 말한 ‘지금 있다’는 본도 아니다. 孔安國의 본은 시대가 멀어져 다시 찾아볼 수 없으니 이제 어디에서 찾아 바로잡을 것인가?……지금 《공자가어》는 원나라 王廣謀가 句解한 것인데 注가 庸陋荒昧하여 새로 밝힌 것이 없으니 어찌 述作家와 더불어 말하기에 족하랴?〔肅之注 愚不獲見 而見其序 今世相傳家語 殆非肅本 非師古所謂今之所有者 安國本 世遠不復可得 今於何取正哉……今家語勝國王廣謨所句解也 注庸陋荒昧 無所發明 何足與語於述作家〕”라고 하였다.

하맹춘은 당시 유행하던 왕광모의 注本에 불만을 품고 자세한 주해본을 냈는데, 王肅本은 참고하지 않았다. 그러나 《四庫全書總目提要》에서는 “하맹춘이 어찌 옛날 《공자가어》를 얻었겠는가? 이 假借한 말은 篤論이 아니다. 최근의 교열본이 하맹춘이 빠뜨린 것과 잘못된 것을 보충하였는데, 모두 수백 조이고 모두 근거가 정확하니 하맹춘 注의 오류와 누락을 알 만하다.〔孟春安得古家語 此假借之詞 非篤論也 至近本所校 補孟春闕誤 凡數百條 皆引據精確 則孟春是註之舛漏 抑可知矣〕”라고 평가하였다. 하맹춘이 왕광모를 비판하였으나, 清代에 이르러 왕숙본

17) 金鎬, 전계 논문.

의 신뢰를 넘을 수는 없었다.

②와 ③은 白文本(注解가 없는 본)이다. ②는 왕광모 주해본의 편차를 따르고 있고 ③은 하맹춘 注本の 편차와 같다. 白文本이라 하더라도 당시 유행하던 두 본을 따랐던 것이다. ⑥, ⑦, ⑧은 왕숙 注를 기초로 하여 보정이 이루어진 것이니, 같은 계통으로 추정된다. ⑨와 ⑪은 일본에서 재간행된 것으로 宋本에서 유래한 것이다.

이상의 간본들을 네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첫째, 宋代의 蜀本·監本·建本에서 유래한 王肅의 注本이다. 둘째는 元代에 나타난 王廣謀의 注本으로 가장 오래된 본은 蒼巖書院 刻本이다. 셋째는 明代에 출현한 何孟春 注本이다. 넷째는 주해가 없는 白文本이다. 清代에 출판된 《공자가어》 역시 이 범주를 벗어나지 않는다.

일본에서는 江戸時代에 儒學者가 출현하면서 《공자가어》의 注釋書도 등장하였다. 최초의 주석서는 德川家康 시대에 출간된 元나라 왕광모의 《標題句解孔子家語》로 본래의 注本을 대폭 축약한 것이었고, 여기에 대항해 유행했던 것이 《日本博士家所傳王注全本》(元和本)으로 왕숙의 주석서였다. 이후 ⑨의 元和本을 저본으로 복각된 ⑪의 寬永本이 나왔으며, 이 두 판본의 등장으로 일본 內 《공자가어》의 주석은 왕숙이 대세가 되었다. 일본에서 최초의 본격적인 주석서로 평가되는 것은 岡白駒의 《補註孔子家語》(1741)와 太宰純의 《增註孔子家語》(1742, 崇山房)이다. 수준 역시 에도시대를 통틀어 최고로 평가된다.

이처럼 《공자가어》는 위서라는 인식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까지 전파되어 근세까지 지속적으로 출간되었다.

5. 《孔子家語》의 韓國 流傳

일본과 달리 우리나라는 중국과 직접적인 교류하고 있었으므로 《공자가어》 역시 이른 시기에 전파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현재 우리나라 도서관에서 明代에 출간된 王廣謀 注本과 何孟春 注本, 王肅 注本, 吳嘉謨 注本과 일본에서 간행된 太宰純 注本까지 확인할 수 있으나, 언제 한국에 전래되었는지 확인하기는 어렵다.

《高麗史》〈選舉志〉의 仁宗 10년(1132) 윤4월 기록에 《공자가어》가 처음 등장한다.

仁宗 10년 윤4월 崔滋盛이 知貢舉, 林存이 同知貢舉였다. 林存이 賦의 試題를 내기를 “聖人이라야 능히 天下를 一家로 삼는다(聖人耐以天下爲家)”라고 하자 省에서 아뢰기를, “살펴보건대 ‘耐’자는 ‘能’자의 古字로써 ‘奴’와 ‘登’의 半切이운데, 지금 ‘奴’로써 대신 韻을 삼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청컨대 명령을 고치시어 다른 사람으로 다시 시험을 치르게 하시옵소서.” 라고 하였다.

왕이 允許하지 않고, 그대로 최자성 등에게 명하여 다시 시험을 치르게 하였다. 또

〈최자성 등이〉 시제를 명하기를, “하늘의 도는 한가롭지 않으므로 능히 오래 간다.[天道不閑而能久]”라고 하였다.

省臺에서 다시 아뢰기를, “《禮記》를 살펴본즉 ‘하늘의 도는 막혀있지[閑] 않으므로 능히 오래 간다.[天道不閑而能久]’라고 하였습니다. 鄉本 《家語》에서 ‘不閑’을 ‘不閑’이라고 한 것은 대개 잘못된 말일 뿐입니다. 지금 貢院에서 正本 經典을 상고하지 않고 잘못된 판본[錯本]에 의거하였으니, 청하건대 두 貢舉의 직책을 파직하고 금년의 科擧를 정지하시옵소서.”라고 하였다.

왕이 윤허하지 않고 經義와 論에 합격한 자들만 가려 뽑으라고 하였다.¹⁸⁾

이 기사에서 鄉本 《家語》의 “天道不閑而能久”라는 구절을 出題하였다가 글자가 틀렸다는 이유로 知貢舉 崔滋盛과 同知貢舉 林存이 파직되었다고 하였으며, 같은 내용이 권98 〈崔滋盛列傳〉에도 실려 있다. 그러나 이번에 출판한 國譯懸吐本에는 이 구절이 없으므로, 1132년 과거시험에 문제를 일으켰던 《공자가어》는 王廣謀 本이 아니었던 듯하다. 鄉本이라 하였으니 高麗에서 輸入 刊行하여 流傳되었겠지만, 이 이상의 기록을 확인할 수는 없다.

그 이후의 수입 간행에 관해서는 몇 가지 단서를 찾아볼 수 있다. 權近(1352~1409)이 韓尙敬(1360~1423)에게 다음과 같은 시를 지어 보냈다.

소왕의 가어가 정미하기 최고인데	素王家語最精微
이 책이 남아 있어도 아는 이가 드물었네	方冊雖存識者稀
선생께서 가지고 와 주신 마음 감사한데	多謝先生持贈意
더욱이 밝은 촛불이 광휘를 더 돕는 데라	明燈況復助光輝 ¹⁹⁾

素王, 즉 孔子의 ‘家語’는 곧 《공자가어》를 가리킨다. 위는 《공자가어》와 초를 선물해준 당시 江原道 巡察使 韓尙敬에게 감사하여 쓴 시이다. 2구에 보이듯 《공자가어》는 고려말 조선초에 이미 들어와 있었으나 쉽게 손에 넣어 읽을 수 있는 책은 아니었다. 조선 초기를 대표하는 학자인 권근조차 아는 사람이 적다고 할 정도였다.

흥미로운 점은 이 책을 준 사람이 ‘江原道使相’인 한상경이라는 점이다. 우리나라 最初의 刊本이 江陵에서 간행되었기 때문에 연관이 있다. 한상경은 조선 개국공신으로 1392년에 우승지, 1393년에 도승지에 임명되고 잇달아 재상을 역임했으므로, 강원도 관찰사로 나갈 시간이 없었다. 1408년 7월 3일에 처녀를 선발하기 위해 각도에 순찰사를 파견했는데, 경기좌도·강원도·동북면에는 한상경을 파견했다. 이 시기에 江原道에 巡察使로 나갔던 한상경이 1402년에 간행된 강릉 간본 《공자가어》를 구해 권근에게 준 듯하다.

18) 《高麗史》 권74 〈選舉2 科目2〉(한국사데이터베이스).

19) 權近, 《陽村先生文集》 권8 〈謝江原道使相家語玉燭之惠 韓尙敬〉.

6. 《孔子家語》의 韓國 讀者들

《공자가어》의 독자 가운데는 자신이 《공자가어》를 읽었다고 언급한 독자도 있지만, 작품 속에 《공자가어》에서만 볼 수 있는 故事成語를 사용한 독자들도 있다.

1) 中國 遊學生들

最初의 독자들은 당연히 《공자가어》가 韓國에 수입되기 이전에 中國에 遊學한 학생들이다. 明나라 初期까지는 外國人의 遊學이 자유로워서 隋·唐·宋·元에 僧侶와 遊學生이 많이 입국했으며, 科擧에 급제한 유학생은 벼슬도 하였다.

현재 확인할 수 있는 문헌에서는 868년에 唐으로 유학하였던 崔致遠(857~?)의 글에서 처음 보인다. 당나라에서 지은 작품을 편집한 《桂苑筆耕》뿐만 아니라, 귀국 후의 작품을 수록한 《孤雲集》에도 《공자가어》에만 보이는 고사성어들이 많이 실려 있다.

子路의 負米 故事라든가 曾參이 계모에게 잘 익히지 않은 야채를 올렸다고 아내를 내쫓은 이야기는 《공자가어》에만 보이는데, 元나라에 유학한 高麗末 시인 李穀(1298~1351)은 1332년 征東省 鄉試에 수석으로 선발되고 벼슬하다가 귀국한 뒤에 《공자가어》의 글자들을 문장에 많이 가져다 썼다. 세 겹으로 입을 봉한 金人의 등에 새겨진 “말이 많으면 잘못이 많아지고, 일이 많으면 근심이 많아진다.[多言多敗 多事多患]”라든가 “좋은 약은 입에 쓰다.[良藥苦於口]” 등의 구절은 속담으로 널리 사용되었으며, 공자를 상갓집 개[喪家之狗]라고 표현한 글자도 《論語》가 아니라 《공자가어》에서 나왔다. 물론 “喪家之狗”라는 표현은 《史記》에서 나왔지만, 星湖 李瀾도 《공자가어》의 注를 인용하여 소개할 정도로 이 책을 통해서 널리 퍼졌다고 볼 수 있다.

2) 朝鮮의 王과 臣下들

經筵이나 王과 臣下의 대화에 《공자가어》의 故事나 句節들이 자주 등장한다. 《공자가어》의 구절들이 이미 俗談처럼 널리 통용되었기에 왕도 사용할 수 있었겠지만, 책을 읽었다는 증거가 많이 보인다.

成宗 14년(1483) 9월 16일 經筵에서 成宗이 《공자가어》 제22편 〈困誓〉의 구절을 질문하였다.

夜對에 나아갔다. 《공자가어》를 講하다가 ‘그 아들을 알자면 그 아버지를 보고자 한다.’는 데에 이르러, 임금이 묻기를 “무엇을 이르는 말인가?” 하니, 參贊官 金宗直

이 대답하기를, “아버지가 가르침이 있으면 아들이 착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아들을 알자면 그 아버지를 보고자 한다.’고 한 것입니다.”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그렇다면 堯舜의 아들은 어찌하여 착하지 못한가?” 하니, 김종직이 말하기를 “만약 下愚로서 성품을 바꿀 수 없는 자이면, 비록 聖人일지라도 능히 교화하여 착한 길로 들어가게 할 수 없으나, 中人 이상은 가르쳐서 착하게 할 수 있습니다.” 하고, 右承旨 成俔은 말하기를 “이는 經常의 이치를 말한 것이며, 요순의 아들은 〈경상이 아닌〉 變則된 것입니다.” 하였다.

이날 경연에 참석한 김종직이나 성현은 당대의 대표적인 학자들이었는데, 왕의 질문에 대답하기 위하여 미리 《공자가어》를 꼼꼼하게 읽으며 토론을 준비해왔을 것이다.

英祖도 대화 중에 《공자가어》에 나오는 ‘負米之歎’을 인용하였다.

上께서 전교하시기를,

“일찍이 故 兪 奉朝賀 兪拓基의 말을 들으니, ‘국초에 列聖朝께서 밤에 옥당에 오셨다가 돌아가실 때 대내에서 촛불을 받들어 와서 창틈으로 밝게 비추었다.’라고 하였다. 아, 선왕께서 지난날 夜對할 때 지으신 詩도 御製에 실려 있다. 선왕께서 일찍이 들르신 곳이라 이번에 향축을 맞이한 뒤 감회가 일어 이곳에 왔다. 돌아갈 때에는 다시 사옹원에 들러 仲由의 ‘쌀을 짊어지고 왔다는 탄식[負米之歎]’을 본받으려고 한다. 다시 생각해 보니 어제 내가 지은 글을 쓰라고 명하였고 오늘 충자와 함께 북쪽 담벼락, 곧 옥당에 왔으니 돌아갈 때에는 그곳에 임하여 충자와 함께 〈陟岵〉를 읽으면서 돌아가갈 터이니 그리 알게 하라.” 하였다.……“우리 손자가 글 읽는 소리를 올해에 처음으로 들었다.” 하고, 이어서 ‘늙은 임금과 젊은 신하들이 한자리에 같이 모였다. [老君少臣會一堂]’라는 여덟 글자를 직접 쓰시고 옥당 벽에 걸게 하셨다.²⁰⁾

공자의 제자 仲由(子路)가 “부모가 살아 계실 때에는 부모를 위해 백 리 밖에서도 쌀을 짊어지고 왔는데, 부모가 돌아가신 뒤에는 그렇게 할 수 없다.”라고 탄식한 말은 《공자가어》 권2 〈致死〉에 나오는데, 영조가 그 고사를 본받겠다고 한 것은 돌아가신 부왕을 추억해보겠다는 뜻이다. 당시 世孫이었던 正祖도 이 글을 기록하면서 《공자가어》에 관심을 가졌을 것이다.

정조가 왕이 된 뒤에도 신하들과의 대화에 《공자가어》의 고사들이 자주 보이는데, 《日省錄》에서 정조 17년(1793) 3월 10일 蔡濟恭이 아뢴 “文王의 백성은 경작하는 자가 밭두둑을 양보하였다.”는 구절은 《공자가어》 〈好生〉에 보이며, 정조 18년(1794) 5월 24일 韓致重의 書啓에 보이는 “훈풍이 백성의 분노를 풀어 준다.”는 표현은 舜임금이 지은 〈南風〉시에

20) 《日省錄》 英祖 49년(1773) 8월 24일(한국고전종합DB).

“훈훈한 남풍이여 우리 백성의 분노를 풀어 주리라.[南風之薰兮 可以解吾民之慍兮]”라는 구절을 인용한 말인데 《공자가어》〈辯樂解〉에 나온다.

誠正閣에서 대신과 비국 당상을 소견하였다.

○ 내가 이르기를 “공자는 魯나라의 司寇가 되자 정사를 어지럽힌 大夫 少正卯를 죽였다. 공자가 정사에 종사한 지 7일 만에 갑자기 兩觀에서 소정묘를 誅罰한 것은 소정묘가 감히 정권을 뒤흔들었기 때문이다.……한 세상이 유지되는지는 오직 기강에 달려 있을 뿐이다. 그런데 오늘날 조정에 기강이 있다고 해야겠는가, 없다고 해야겠는가?”²¹⁾

공자가 魯나라의 司寇가 된 지 7일 만에 大夫 少正卯를 양관 아래에서 죽인 사건은 《공자가어》〈始誅〉에 보이는데, 공자의 性稟과 관련된 내용이어서 사실 여부가 논쟁거리이기도 했다. 정조는 조정의 기강을 확립하기 위해 《공자가어》의 소정묘 고사를 과감하게 인용하였다.

3) 시험 출제자

과거시험의 문제는 응시자들의 능력을 시험하기 위해서 출제하는데, 왕이나 출제자의 政策에 따라 응시자들의 讀書 方向을 誘導하기 위해서 출제하기도 하였다. 試題는 대부분 四書三經이나 史書 文集에서 출제되었지만, 《공자가어》에서 출제한 경우도 보인다.

정조는 韓致重의 書啓를 읽어보고, 보름 뒤에 실시된 抄啓文臣의 親試에서 《공자가어》의 그 구절을 출제하였다.

翼善冠에 袞龍袍를 갖추고 御座에 올랐다. 시관이 여러 문신을 이끌고 뜰에 들어와 예를 행하였다. “순 임금의 백성들이, 노여움을 풀어 주겠다고 순 임금이 유지한 데 대해 사례하는 것을 상징하여 지으라.[擬虞舜民人等 謝諭以解慍]”로 表題를 삼고, “남풍이 훈훈함이여.[南風之薰兮]”로 賦題를 삼았다.²²⁾

같은 해 8월 6일에도 右議政 李秉模가 차자를 올려, “무릇 만물은 화평함을 얻지 못하고 제자리를 얻지 못하면 모두가 억울하고 곱었다고 할 수 있으니, 이 때문에 노여움을 풀어 준다는 詩가 虞舜의 五絃琴에 오른 것입니다.”라고 하며 《공자가어》〈辯樂解〉에 나오는 〈南風歌〉를 인용하였다. 시험을 치르고 나자 이런 구절이 자연스럽게 입에 밴 것이다.

21) 《日省錄》 正祖 21년(1797) 9월 28일(한국고전종합DB).

22) 《日省錄》 正祖 18년(1794) 6월 9일(한국고전종합DB).

11월에 치렀어야 할 科試는 “南薰琴”으로 銘題를 삼았는데, 姜浚欽·李勉昇·李存秀·金履載가 三上을 맞아 등급이 똑같았다. 비교를 보이라고 명하여 “招搖旗”로 銘題를 삼았는데, 金履載가 三上一을 맞아 首席를 차지하였다.²³⁾

정조가 계속 《공자가어》 〈辯樂解〉에 나오는 〈南風歌〉를 出題하자 신하들도 이 책을 열심히 읽어 다들 높은 점수를 받게 되었다. 三上의 동점자를 처리하기 위해 재시험을 치를 정도였다. 이듬해인 1797년 4월 2일에 應敎 韓用鐸, 副應敎 朴載淳, 校理 尹悌東, 副修撰 李翊模 등이 聯名으로 劄刺를 올렸는데, “모든 사람들이 金人처럼 입을 세 겹으로 봉하는 것을 일신을 편하게 하는 방책으로 삼는다.”고 하여 《공자가어》 〈觀周〉에 나오는 내용을 인용하였다. 저본의 표제에 “후직의 사당에 들어가 금으로 주조된 사람의 등에 새겨진 명문을 보다.[入后稷廟金人銘]”라고 되어 있다.

위의 출제들은 韓致重의 書啓에서 시작된 현상인데, 정조는 이미 그 이전부터 《공자가어》에서 문제를 출제하였다.

○ 翼善冠에 袞袍를 갖추고 輿를 타고 春塘臺에 이르러 여에서 내려 御座에 올랐다. 試官이 講經과 製述의 儒生을 거느리고 뜰에 들어와 예를 행하였다.

○ 下敎하기를 “지금 내린 御題를 가지고 兼史로 하여금 大司成과 함께 泮宮으로 가서 方外를 통틀어 지어서 올리게 하라. “노나라의 못 신하가 대사부 공자의 말을 따라 협곡의 모임에 左司馬와 右司馬를 갖추 것을 청한 일에 대해 의작하라.[擬魯羣臣請從大司寇孔某之言 夾谷之會 具左右司馬]”로 箋의 제목을 삼고, “좌사마와 우사마를 갖추 것을 청하다.[請具左右司馬]”로 賦의 제목을 삼아, 원하는 쪽으로 지어 올리게 하라.” 하였다.²⁴⁾

春塘臺試에서 《공자가어》 제1편 〈相魯〉의 구절을 출제하자 신하들이 이 책을 열심히 읽어 한치중의 서계에도 자연스럽게 인용되었던 것이다. 曺文秀의 《雪汀詩集》에 보이는 것처럼 〈南薰琴 二十韻〉이 月課로 출제되었으며, 李回寶의 《石屏集》에는 月課로 제출했던 〈擬南薰琴銘〉이 실려 있다.

4) 향교와 서원의 학자와 학생들

《공자가어》가 학생들이 사용하기 좋은 교재이기에 元나라 書院에서 많이 간행되었던 것처럼, 한국에서도 鄕校에서 많이 간행되었다.

우리나라에 현전하는 가장 오래된 《공자가어》 판본은 江陵刊本 《新刊標題孔子家語句解》

23) 《日省錄》 正祖 20년(1796) 11월 29일(한국고전종합DB).

24) 《日省錄》 正祖 12년(1788) 8월 26일(한국고전종합DB).

인데, 다음과 같은 刊記가 붙어 있다.

《공자가어》는 고금을 통틀어 천하에서 보물로 여겼으나 우리나라에는 아직 판본이 없었다. 내가 이 본을 얻어서 江陵에서 간행하도록 명하여 後學에게 남긴다. 建文 4년 7월 보름에 潘溪 朴崑이 쓰다.²⁵⁾

1402년 7월에 江原道都觀察黜陟使였던 朴崑(1370~1422)이 쓴 刊記이다. 간략한 서지사항을 기술하면, 6권 1책, 크기는 11.6cm×18.7cm, 半葉 版框, 有界欄, 每半葉 12行 每行 22字, 註文은 小字雙行이며, 上下 小黑口로 下向黑魚尾이고, 上下單邊이다.

1권에 〈相魯〉·〈始誅〉·〈王言解〉·〈大婚解〉·〈儒行解〉·〈問禮〉·〈五儀解〉, 2권에 〈致思〉·〈三恕〉·〈好生〉·〈觀周〉·〈弟子行〉·〈賢君〉, 3권에 〈辯政〉·〈六本〉·〈辯物〉·〈哀公問政〉·〈顏回〉·〈子路初見〉·〈在厄〉, 4권에 〈入官〉·〈困誓〉·〈五帝德〉·〈五帝〉·〈執轡〉·〈本命解〉·〈論禮〉, 5권에 〈觀鄉射〉·〈郊問〉·〈五刑解〉·〈刑政〉·〈禮運〉·〈冠頌〉·〈廟制〉·〈辯樂〉·〈問玉〉·〈屈節解〉·〈七十二弟子解〉, 6권에 〈本姓解〉·〈終記解〉·〈正論解〉·〈曲禮子貢問〉·〈曲禮子貢問〉·〈曲禮公西赤問〉가 실려 있으며, 권말에 孔安國의 〈後序〉가 실려 있고 《新刊素王事記》가 부록되어 있다.

이 책에 “泰定甲子秋蒼巖書院刊行”이라는 刊記가 있는 것으로 보아 元代에 간행된 王廣謀 注本인 《新刊標題孔子家語句解》의 重刻本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즉 元代 蒼巖書院本 계열이 底本으로 사용되었던 것이다. 원나라 서원에서 간행되었던 책이어서, 현재까지도 최초의 모습을 지니고 있는 江陵鄉校에서 간행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우리나라 최초의 서원은 白雲洞書院이다. 周世鵬(1495~1554)이 1541년에 풍기군수로 부임하여 1543년에 백운동서원을 세우고, 사당과 서원 설립에 관한 기록을 수집하여 《竹溪誌》를 간행하였다. 《죽계지》에 〈太平曲 五章〉이 실려 있는데, “《공자가어》에서 번안해 내었다.〔翻出家語〕”고 하였다.

몸애란 允恭호시고 사르매란 克讓호시니 再唱. 偉. 唐堯聖德이 하를와 ㄱㅌ샏다
 伯禹이 居左 皐陶이 在右 再唱. 偉. 帝舜無爲. 믁으 이리 잇브시리잇고
 內修七敎. 外行三至 再唱. 偉. 太平景幾何如.
 齊有鮑叔. 鄭有子皮 再唱. 偉. 進賢景幾何如.
 滿호면 損호느니 益호든 謙호쇼셔 再唱. 偉. 江海能下. 百川이朝宗. 景幾何如.

〈太平曲〉은 高麗 文人들이 즐겨 부르던 景幾體歌 형식인데, 제1장에 노래한 七敎 三至가

25) 江陵刊本 《新刊標題孔子家語句解》 刊記. “家語古今天下寶之 而吾大東未有板本 予得是本 命刊于江陵 以貽後學焉 建文四年七月望潘溪朴崑誌.”

모두 《공자가어》〈王言解〉에 나오는 내용들이다. 저본의 標題에 “안으로는 七教을 닦고, 밖으로는 三至를 행하다.[內修七教 外行三至]”라고 되어 있다. 주세붕이 《공자가어》를 읽고 번안하여 이 노래까지 지었으니, 백운동서원에서조차 자연스럽게 《공자가어》를 읽었을 것이다.

《標題句解孔子家語》 3권 3책이 1603년 高興 興陽鄉校에서 간행되었으며,²⁶⁾ 임진왜란 이전인 1581년이 이미 舒川 鳴谷書院에서도 王廣謨本 《標題句解孔子家語》를 木活字本으로 간행하였다는 기록이 李仁榮의 《淸芬室書目》에 보이지만 그의 소장본이 흩어져 있어 실물을 확인할 수 없다.

국립중앙도서관에 37권까지 틀을 붙인 金騏燁 筆寫本 《標題句解孔子家語》가 소장되어 있는데, 金騏燁은 마지막 페이지에 筆寫記를 쓰면서 자신이 1897년에 필사했던 저본의 刊記도 그대로 써서 刻手들의 이름까지 옮겨 썼다. 刻手들의 이름이 같은 것을 보면 興陽鄉校 木版本을 보고 필사했음을 알 수 있으니, 이 책이 삼백년 가까이 流傳되었음을 알 수 있다.

중국과 지속적인 교류가 있었는데도 明清 시기의 주해본과 비교적 좋은 판본들이 조선으로 유입되지 않은 이유를 정확히 알 수는 없다. 《新刊標題孔子家語句解》는 ‘節要’의 형태로서, 내용은 풍부하지 않더라도 신속하게 간행하고 간편하게 열람할 수 있는 장점을 지니고 있다. 서원이나 향교에서 初心者가 읽기에는 元代 蒼巖書院本을 저본으로 한 판본이 유용한 측면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 지방이나 향교에서 간행되었던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5) 다양한 판본을 비교하며 읽었던 문인 학자들

《공자가어》는 공자에 관한 일을 자세히 알려준다는 매력이 있어 문인 학자들에게 널리 읽혔다. 李滉(1501~1570)은 “공자 당시에 공경대부 및 제자들이 묻고 대답한 것들 가운데 正實하여 사실에 입각한 것을 취하여 따로 《論語》를 만들었고, 나머지는 모두 모아 기록하여 《공자가어》를 만들었다.”라고 하여²⁷⁾ 王肅 이래로의 인식을 그대로 받아들였다. 宋時烈(1607~1689) 역시 “공자의 도는 詩書를 산삭하고 禮樂을 제정하고 〈繫辭〉와 《春秋》를 지은 데 있어 갖춰지지 않은 것이 없으나, 또 《논어》와 《공자가어》가 있어 언행의 상세함에 유감이 없다고 할 만하다.”²⁸⁾라고 하여 공자의 遺事를 보여주는 문헌으로 평가하였다.

내가 《孔子家語》의 글을 살펴보니 《春秋左氏傳》·《禮記》와 부합하는 것이 많으나 《論語》의 취지와는 멀다. 그러나 처음부터 끝까지 반복해서 읽으면 성인이

26) 미국 버클리대학 동아시아도서관에 소장된 《標題句解孔子家語》 刊記에 “癸卯至月下澣興陽鄉校開刊”이라고 되어 있는데, ‘逸休亭’, ‘李翻’이라는 藏書印이 찍혀 있어 李翻(1626~1688)의 생존 시기를 고려했을 때 1603년 간행이 확실하다.

27) 李滉, 《退溪先生文集考證》 권4 〈與朴澤之〉. “孔子時 公卿大夫及弟子所嘗問對者 取其正實而切事者 別出爲論語 其餘則集錄爲家語”

28) 宋時烈, 《宋子大全》 권138 〈淸陰先生遺事序〉. “孔子之道 於刪定繫作 無所不具 而又有論語家語 則其言行之詳 可謂無遺憾矣”

아니면 말할 수 없는 것이니 모아놓은 내용이 매우 상세하다. 《朱子集註》 역시 인용한 적이 있으니 그 말을 징험할 만하다. 그러나 지은 문장이, 서술하는 과정에서 한번 잘못되고 增損하다 두 번 잘못되었기 때문에 의심스러운 곳이 많다. 이것이 《논어》는 不刊之書인 聖經이 되었으나, 《공자가어》는 諸子の 反譯에 오른 까닭이다. 그러나 聖人の 말씀에 精粗가 있는 것은 아니다.²⁹⁾

위는 조선말기의 학자 黃在英(1835~1885)이 《공자가어》를 읽고 쓴 글이다. 《공자가어》가 내용상 《춘추좌씨전》·《예기》와 일치하는 부분이 있는 것을 인정하고, 의심스러운 부분이 많은 것도 받아들이지만, 孔子의 事蹟이 아닐 수도 있다는 의심은 전혀 보이지 않는다. 《논어》와 《공자가어》를 동급으로 보고 있을 뿐 아니라 서로 보완하는 문헌으로 평가하였다. 공자 때의 일을 좀 더 상세하게 알 수 있는 문헌이라는 점에서 《공자가어》가 조선시대 문인들에게 널리 수용되었던 것이다.

우리나라에 유행하는 《공자가어》는 바로 猷堂 王廣謀의 句解이다. 그 사이의 篇章이 매우 간단할 뿐 아니라 古文의 온전한 책이 아니다. 〈哀公問政〉“成功一也”의 아래에 끝내 “公曰子之言美矣至矣 寡人實固不足以成之也”라는 말이 없고 갑자기 宰予가 鬼神에 대해 묻는 것이 이어지니, 《中庸章句》에서 朱子가 논한 것과 모순될 뿐 아니라 오류가 분명하다. 王肅이 고본에 注解한 것이 동방에 혹시 유포되었을지 모르겠다. 간절히 듣고 싶다.³⁰⁾

위는 朴世采(1631~1695)가 1679년에 宋時烈의 문인인 李喜朝(1655~1724)에게 보낸 편지의 일부이다. 박세채 조차 王光모의 《新刊標題孔子家語句解》만 보았다. 《中庸章句》에 보이는 주자의 注와 대조하여, 주희가 말한 《공자가어》와 王光모 注本에 보이는 《공자가어》가 다르다는 사실을 지적하였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 王肅의 注本을 찾을 수 있는지 묻는 편지이다. 실제로 박세채조차 주희가 보았던 王肅 注本의 유포 여부를 모를 정도로, 민간에 통용되는 注本은 王光모본이었던 것이다.

후대에 와서 다음과 같은 기록을 찾아볼 수 있다.

29) 黃在英, 《大溪遺稿》 권5 〈讀家語〉. “余按家語之文 多與左傳禮記合 而於論語之旨遠矣 然反覆首尾 有非聖人不能言者 所輯頗詳悉 朱子集註亦嘗引之 其辭足可徵 但其屬文 一誤於敘述者 二誤於增損者 故往往多可疑 此所以論語爲不刊之聖經 家語同列於諸子 非聖人之言有精粗也”

30) 朴世采, 《南溪先生朴文純公文外集》 권5 〈與李同甫別紙 己未七月八日〉. “我國見行家語 乃猷堂王廣謀句解 不但其間篇章甚簡 有非古文全書者 哀公問政篇成功一也之下 終無公曰子之言美矣至矣 寡人實固不足以成之也之語 而遽以宰予鬼神之間繼之 與中庸章句朱子所論 不啻矛盾 其誤決矣 未知王肅所註古本或能流布於東方耶 切願聞之”

家語를 편찬하여 ‘孔聖家語’라고 한 것은 매우 이치에 맞지 않는다. 家語라고만 칭한다면 ‘子曰’이라고 한 것과 뜻이 같다. 만약 孔聖家語라 칭한다면 이 ‘聖’자는 평등한 제목이 되어서 세상에 무수한 聖이 있게 된다. 반드시 ‘孔’자를 쓰고 싶다면 ‘孔氏家語’라 하면 오히려 팬참을 것이다.³¹⁾

魏伯珪(1727~1875)는 湖南 實學의 대표적인 학자이다. 위백규는 《孔聖家語》라는 제목의 판본을 읽고, 이 제목이 매우 적절치 않음을 지적하였다. 그래서 많은 독자들이 표지에는 ‘孔氏家語’라 써서 소장하였다.

또한 安鼎福(1712~1791)이 李瀾(1681~1763)에게 보내는 편지글 가운데 ‘王鑿家語註’라는 구절을 발견할 수 있다.³²⁾ 〈本姓解〉에 나오는 ‘丌’의 음은 ‘堅’이라는 註釋을 언급한 구절인데, 이러한 주석은 왕광모본에 보이지 않고 《공성가어》에만 보인다. 《공성가어》의 題辭를 王鑿(1450~1524)가 썼기 때문에 안정복이 대략 ‘王鑿家語’라 칭한 것으로 보인다.

이 두 가지 예를 본다면 18세기에 들어서 《新刊標題孔子家語句解》나 《標題句解孔子家語》 외에 새로운 형태의 《공자가어》가 출현했고, 이것이 吳嘉謨 集校本인 《孔聖家語》였음을 알 수 있다.

1455년에서 1564년 사이에 간행된 것으로 추정되는 乙亥字本에는 成守琛(1493~1564)의 인장이 찍혀 있는데, 下卷 말미에 “延祐丁巳陳實夫刻于精一書舍”라는 刊記가 실려 있다. 朱彝尊의 《經義考》 권278에 “王廣謀의 家語句解 3권이 현존한다. 馬思贊이 ‘그 책 중에 延祐丁巳年의 刊本이 있는데 말미에 精一書舍에서 판각했다고 쓰여 있다. 광모의 자는 景猷이고 또 다른 자는 猷堂이다.’라고 하였다.〔王氏廣謀家語句解三卷存 馬思贊曰 其書有延祐丁巳刊本 末題刻於精一書舍 廣謀字景猷 別字猷堂〕”라는 기록을 통해보면, 을해자본의 저본이 이것임을 알 수 있다.³³⁾

임진왜란 시기에 포로로 잡혔다가 명나라로 돌아났던 魯認(1566~1622)의 일기에서 다음과 같은 기록을 찾아볼 수 있다.

明道堂 뒤 별채인 新德齋의 黃大晉 수재와 王繼皋 수재 두 사람이 책상을 바로하고 책을 펼쳐놓고 있었다. 좌우에 도서가 있었고 藏書가 서가에 가득하였다. 《공자가어》 전35권이 書案 위에 놓여 있어 내가 물었다.

“우리나라에서는 《공자가어》 상하권 밖에 보지 못하였는데 오늘 보니 이처럼 권수가 많군요. 후세에 뜻을 부연한 것이 아닙니까?”

31) 魏伯珪, 《存齋集》 권8 〈讀書劄義 陽貨篇〉. “有編家語而稱孔聖家語者 甚無義理 只稱家語則與稱子曰之義同 若稱孔聖家語則這聖字便成平等題目 人間有無數聖了 必欲下孔字 稱以孔氏家語則猶可矣”

32) 安鼎福, 《順庵先生文集》 권2 〈上星湖先生書 壬午〉. “丌官氏之丌字 王鑿家語註作開 音堅 中國之人 亦知屏官之爲非 而不能知其爲丌矣”

33) 강찬수, 전계 논문.

수재가 웃으며 말하였다.

“상하권으로 된 것은 節要일 뿐이고 지금 이것은 全秩이니 부자의 평소 일상에 대한 기록이 여기에 쓰여 있습니다.”³⁴⁾

노인은 조선에서 본 《공자가어》가 상하권으로 된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두 권짜리라기 보다는 상하의 2책으로 된 것이라고 보는 편이 문맥상 타당할 것이다. 시기를 추정해본다면 현존하는 판본 가운데 3권 2책의 을해자본이 노인이 본 것과 가깝지 않을까 한다. 상책에는 상권과 중권이, 하책에는 하권과 《新刊素王事記》가 실린 형태가 조선시대 일반적으로 볼 수 있는 《공자가어》의 형태였을 것으로 보인다.

조선후기 학자 徐秉勳(1857~1878)이 《家語輯要》를 저술하여 《공자가어》를 〈三怨〉·〈五惡〉·〈七慾〉·〈三綱〉 등 4편으로 나누어 풀이하였는데, 필사본으로만 남아 있어 널리 소개되지는 않았다.

6) 자손에게 물려주려는 선조들

조선시대의 선비들은 대부분 소장본이 많지 않았다. 《孟子諺解》 한 권만 하더라도 14권 7책이고, 《詩經諺解》는 20권 10책이었으니, 몇백 책을 소장하더라도 種數로는 그리 많지 않았다. 따라서 학자가 아닌 집안에서는 《공자가어》같은 종합참고서를 소장하여 후손들이 백과사전식으로 참고하게 하였다.

肅宗 연간에 芸閣筆書體 活字로 간행된 吳嘉謨 集校本 《孔聖家語》에는 ‘昌原世家’ ‘黃樸章’이라는 藏書印이 찍혀 있다. 英祖 때에 注書였던 黃樸이 구입하여 昌原皇氏 집안에서 대대로 전하라고 당부한 것이다.

미국 하버드대학 연칭도서관에 소장된 《新刊標題孔子家語句解》는 표제를 《공성가어》라고 하고, 자손들이 대대로 보물처럼 여기라는 선조의 염원을 담아 “子孫世寶”라는 藏書印을 찍었다.

南平文氏 仁壽文庫나 연세대학교 학술정보원의 默容室文庫, 韓氏文庫 등에 소장된 다양한 판본의 《공자가어》들이 모두 후손들에게 지혜를 전해주려는 선조들의 염원이 담긴 문고본들이다.

후손들에게 《공자가어》를 전해주려는 이유는 공자에 관한 다양한 지식이 한 권에 체계적으로 담겨져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지식은 시기가 내려오면서 더욱 다양하게 편집되어 상업출판으로 발전하였다.

1430년에 朴堧이 《공자가어》의 문장을 인용하여 상주한 것을 비롯해 《朝鮮王朝實錄》과 《承政院日記》에 지속적으로 언급된 사실만 보더라도, 《공자가어》는 국가적으로 중시

34) 魯認, 《錦溪日記》 5월 27일. “明道堂後別間新德齋黃秀才大晉王秀才繼皐二人 正榻開卷 左右圖書 牙籤滿架 而家語共三十五卷 置于案上 我問曰 我國則只見家語上下卷 今日之見 則如其多數 無乃後世之衍義耶 秀才笑曰 上下卷則只是節要 而今此全秩 則夫子平生日記 書 在于此矣”

되는 문헌이었음이 분명하다. 정조는 여러 차례 科文의 제목으로 출제하였으니, 성균관 유생을 비롯해 많은 선비들에게 이 책을 읽도록 권장하였던 것이 틀림없다. 1897년에 필사된 懸吐本 《標題句解孔子家語》의 존재는 《공자가어》가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유생들 사이에 널리 읽혔음을 알려준다.

《新刊素王事記》의 ‘素王事記’는 素王, 즉 공자에 관한 기록을 의미한다. 수록된 내용을 살펴보면, 〈魯司寇像〉은 공자의 초상이며, 〈先聖歷聘紀年之圖〉는 공자가 시기별로 열국에 초빙된 사적을 정리한 것이다. 〈孔子世系之圖〉는 공자의 조상부터 후손 子高까지의 世系를 그린 것이다. 〈歷代封諡爵號圖〉는 노나라 공자 당시부터 元代까지 공자의 封爵을 도표로 나타낸 것이다. 〈歷代追崇事始〉는 노나라부터 宋代에 이르기까지 공자가 追崇되어 온 과정을 廟宇, 祠祭, 正南面, 賜袞冕, 州縣學廟, 設戟, 二仲丁祀, 祭用三獻, 獻官法服, 賜禮器, 賜樂, 設拜, 頒降祝文, 賜贊, 禁淫祀, 賜書, 賜田, 蠲稅役, 襲封, 世宦曲阜, 墓給灑掃, 墓禁樵採, 拜謁洎政 등의 항목으로 나누어 기술하였다.

《聖朝通制孔子廟祀》는 공자에게 드리는 제사인 釋奠의 전반에 대한 것이다. 省牲-釋奠-迎神-捧俎-徹豆-送神-望塵의 각 과정에 필요한 사항을 기술하였다. 〈正配位陳設之圖〉는 神位와 음식 배열, 位官의 배치를 보여주는 그림이다.

乙亥字本보다 후대에 나온 泰仁 刊本은 을해자본과 같은 구성이나 말미에 《大明會典祀儀》와 《我朝文廟享祀位》가 덧붙여져 있다.

《大明會典祀儀》는 《大明會典》에 실려 있는 釋奠 관련 내용과 함께 陳設의 그림을 그려 놓은 것이다. 특히 正壇陳設, 四配陳設, 十哲陳設, 兩廡陳設 등 4개의 圖를 실어서 상차림을 구체적으로 참조할 수 있도록 하였다.

《我朝文廟享祀位》는 조선조 문묘에 享祀한 인물들을 나열한 것이다. 主享인 孔子, 配享인 顏子, 子思, 曾子, 孟子, 從享인 孔門十哲과 宋朝六賢, 東廡의 從祀인 澹臺滅明 이하 55인과 西廡의 從祀인 宓不齊 이하 55인이다. 아울러 啓聖祠의 향사된 공자, 증자, 자사, 안자, 맹자의 아버지가 나열되어 있다. 宋朝六賢을 大成殿 내 從享으로 올리고, 明朝 이후의 先儒는 從祀하지 않고 崔致遠 이하 우리나라 先儒를 從祀한 次第는 중국과 달리 독자적으로 조선 도통의 淵源을 확립한 우리나라 문묘의 면모를 보여준다. 공자에 관한 많은 지식과 정보를 후손들에게 간편하게 읽히기 위해, 학자가 아닌 지방의 유림들은 ‘한 권으로 편집된 공자 백과사전’인 방각본 《공자가어》를 구입하여 대대로 전하게 했던 것이다.

7. 현대 독자를 위한 《孔子家語》 번역의 의의

《공자가어》는 조선시대에는 諺解本이 없었고, 현대의 번역본은 대부분 중국 간본을 텍스트

트로 하였다. 조선시대 儒林에 가장 많은 영향을 주었던 王廣謀 註解本을 텍스트로 한 경우는 별로 보이지 않는다. 왕광모본은 중국에서 일찍이 출판되었던 王肅本과 달리 附錄을 포함하고 있어, 문헌을 많이 소장하지 못한 유림들에게 孔子事典의 역할까지 담당했기에 더 많이 읽혀져, 조선에서의 중요도가 높다.

가장 이른 시기의 간본인 江陵刊本에는 〈新刊素王事紀〉만 덧붙여 있지만, 후대에는 그 외에도 〈聖朝通制孔子廟祀〉, 〈大明會典祀儀〉, 〈我朝文廟享祀位〉 등의 여러 부록이 추가되었다. 이는 조선시대 《공자가어》의 독해가 원문을 이해하는 것에만 그치지 않고, 공자를 추송하는 사적과 의례에도 관심이 확대되었음을 알 수 있게 한다.

이러한 모든 사항을 번역 대상으로 하여 한국적 수용양상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중국에서 간행한 판본이 아니라 조선시대 국가에서 활자로 간행한 乙亥字本을 번역 저본으로 선정하였다. 시기적으로도 이른 판본이면서 인쇄상태가 좋은 을해자본(국중본 일사 貴1241-5)을 본문 번역 저본으로 삼았다. 聽松 成守琛(1493~1564)의 인장이 찍혀 있어 碩學도 이 책을 읽었음을 입증해주는 판본인데, 卷上은 精書한 筆寫本이다. 卷下 마지막 면에 “延祐丁巳陳實夫刻于精一書舍”라는 刊記가 남아 있어, 清代 朱彝尊이 《經義考》 권278에서 소개한 精一書舍 간본의 간행인 또는 刻手 이름이 陳實夫임이 밝혀졌다.

아울러 조선에서 가장 확장된 형태인 泰仁 坊刻本 《標題句解孔子家語》의 부록을 더하였다. 泰仁 刊本은 1804년에 泰仁縣 衙前 田以采와 同業者 朴致維가 간행한 坊刻本인데, 을해자본보다 《大明會典祀儀》·《我朝文廟享祀位》가 더 실려 있다. 이들은 1803년에 《孔子通紀》 8권 3책을 간행하고, 1804년에 《新刊素王事紀》 1책도 별책으로 간행하여 유통시켰지만, 이후에 佛經을 간행한 것을 보면 經典 간행에 관심이 있었다기보다 商業的인 목적으로 《標題句解孔子家語》를 간행하였음을 알 수 있다. 독자들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다양한 부록과 圖版을 첨부하였으므로, 가장 대중적인 판본이다.

또한 후대의 誤脫字를 교정하기 위해 최고본인 江陵 刊本 《新刊標題孔子家語句解》를 본문 교감본으로 사용하였다. 元 泰定元年 甲子(1324) 蒼巖書院 刊本을 저본으로 간행하였다는 刊記가 남아 있어 가장 오래 된 모습을 전할 뿐만 아니라, 牧民官이 지방 교육을 위해 간행했다는 사실도 출판문화사에 의의가 있어 보물 제1149호로 지정된 본이다. 金騏燁 懸吐 筆寫本도 懸吐에 참조하였다.

이번 《공자가어》의 번역은 한국의 선분을 망라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 실제로 한국인이 읽었던 ‘家語’가 무엇인지 파악할 수 있으며, 한국인이 이해하고 있던 공자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 알려주는 확장된 형태의 새로운 《공자가어》라 할 수 있다.

연구
발표
03

人工知能으로 인한 器械翻譯 技術의 發展 및 活用

李 清 浩

((주)에버트란 대표)

인공지능(人工知能)으로 인한
기계번역(器械翻譯)기술(技術)의 발전(發展) 및 활용(活用)

발표자: 이청호

EVERTRAN 에버트란

1. 소통의 문제와 해결 방안



번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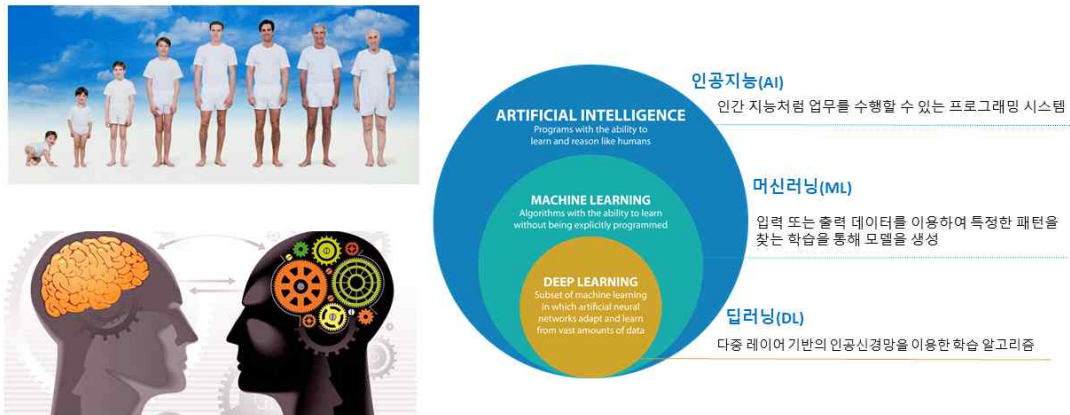


통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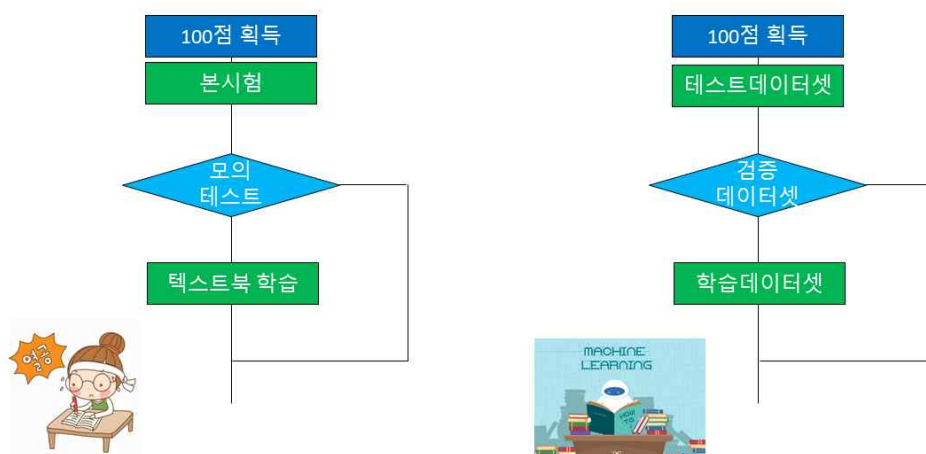
2. 4차 산업혁명 - 지능정보혁명



3. 인공지능(AI), 기계학습(Machine Learning), 딥러닝(Deep Learni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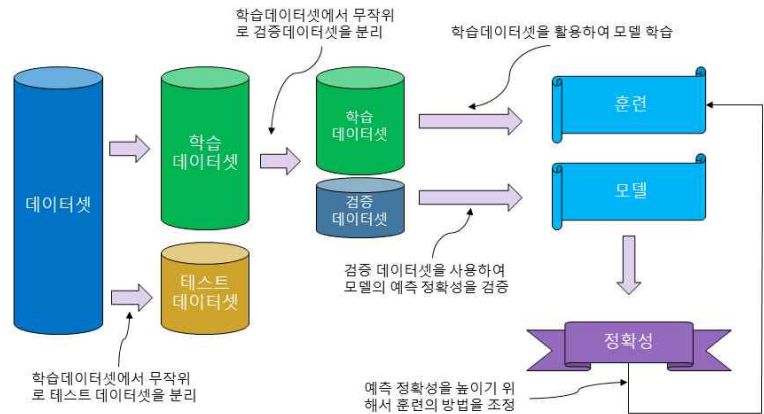


4. 인간학습과 기계학습의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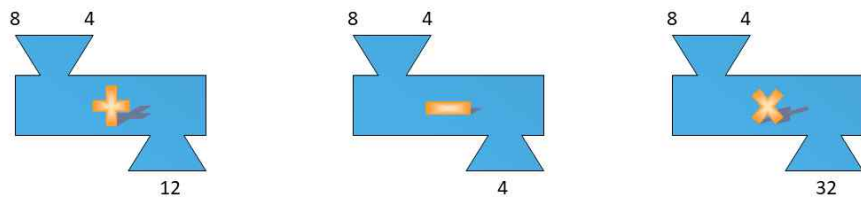
5. 머신러닝의 학습방법

원하는 정확도가 나올 때까지 학습 과정을 반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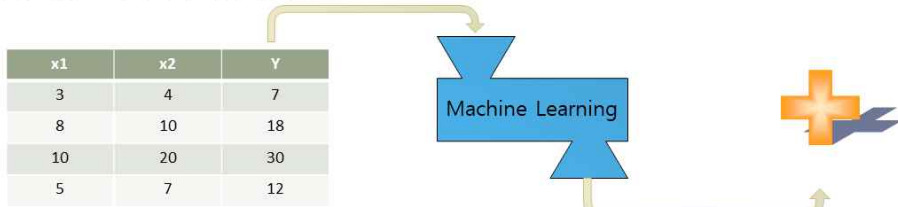


6. 인공지능에 의한 프로그램 개발 방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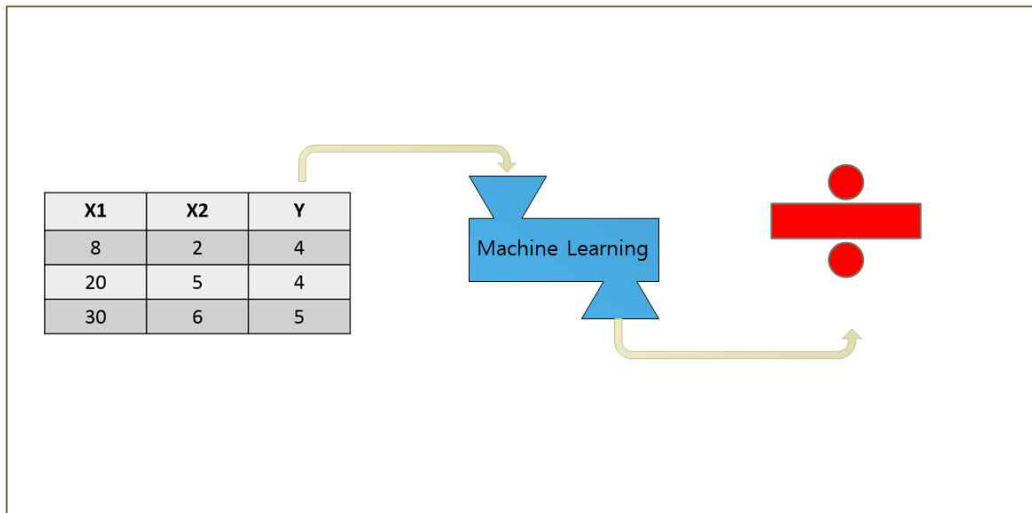
■ 전통적인 프로그래밍 - 프로그래머에 의한 개발 방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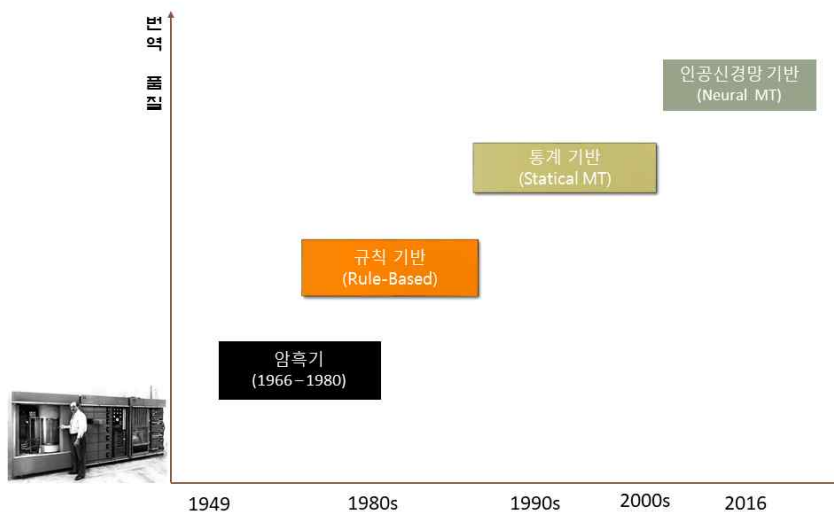
■ 인공지능 - 데이터에 의한 개발 방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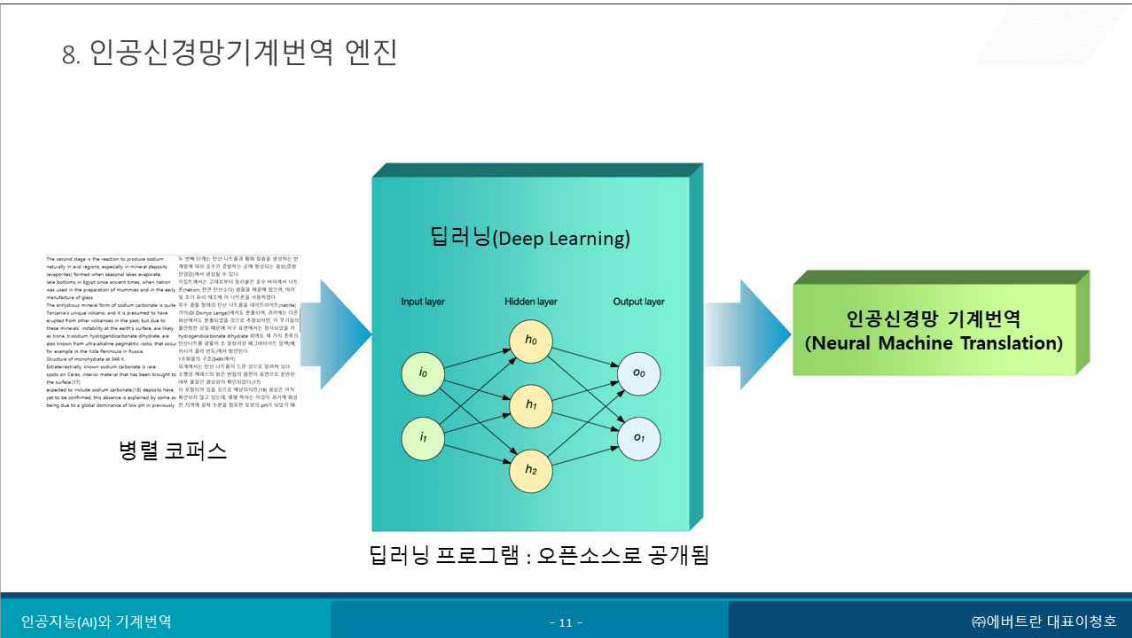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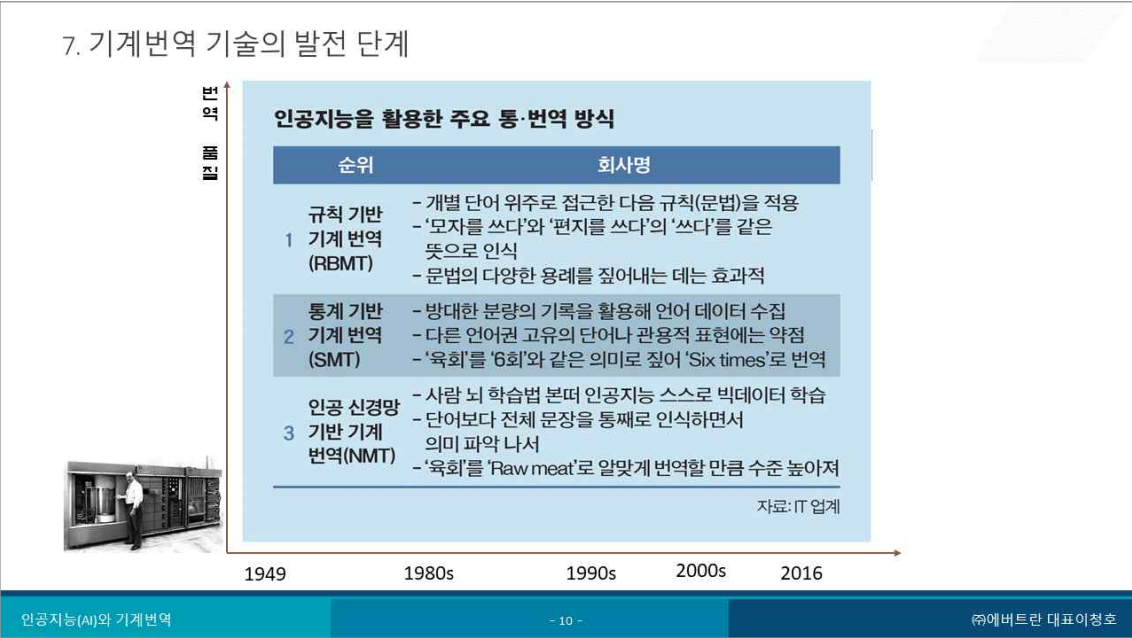


6. 인공지능에 의한 프로그램 개발 방식



7. 기계번역 기술의 발전 단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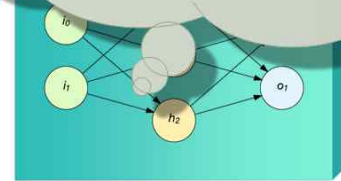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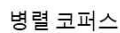


8. 인공신경망기계번역 엔진

인공지능은 프로그래머의 기술이 아닌
컴퓨터가 **컨텐츠를 이용한 머신러닝을 통해서**
지능을 갖는 것입니다.

따라서 콘텐츠를 생산하는 인문학의 디지털화
작업은 미래를 이끌어 갈 원동력이 될 것입니
다.

신경망 기계번역 (Machine Transla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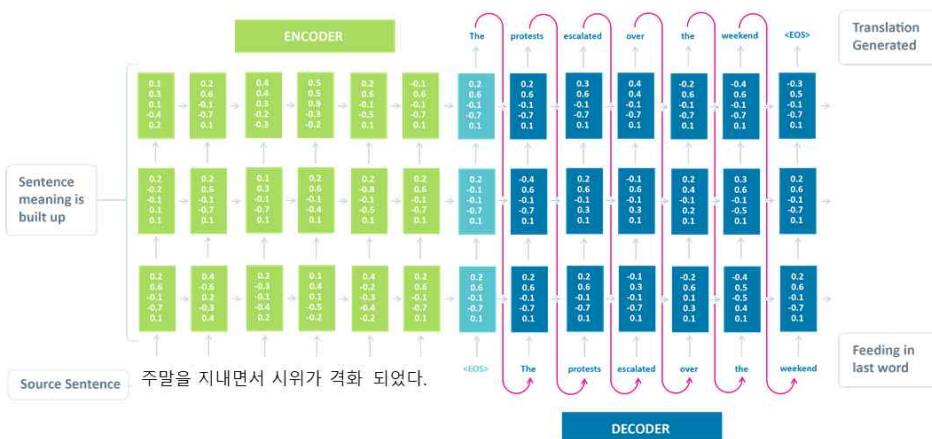


딥러닝 프로그램 : 오픈소스로 공개됨

(주)에버트란 대표이청호

9. 인공신경망 기계번역 학습 방법

A Recurrent Neural Network for Machine Transla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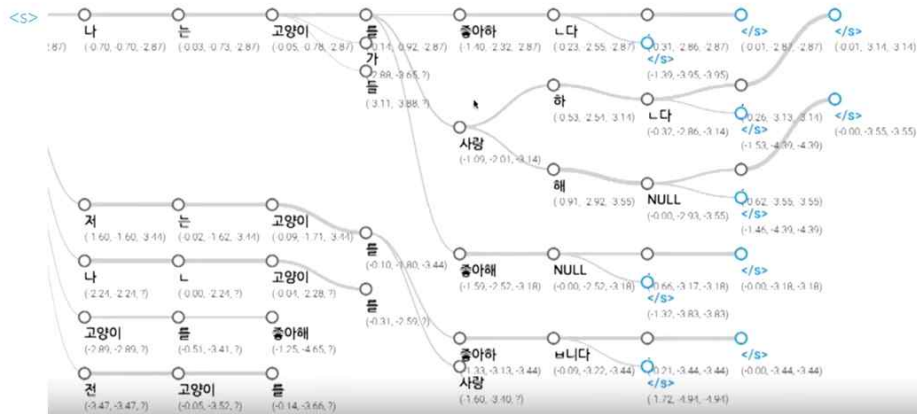


인공지능(AI)와 기계번역

(주)에버트란 대표이청호

10. 인공지능망 기계번역 방식

원문: I love the cat.



11. 번역 산업의 변화(Machine Translation PostEditing: MTP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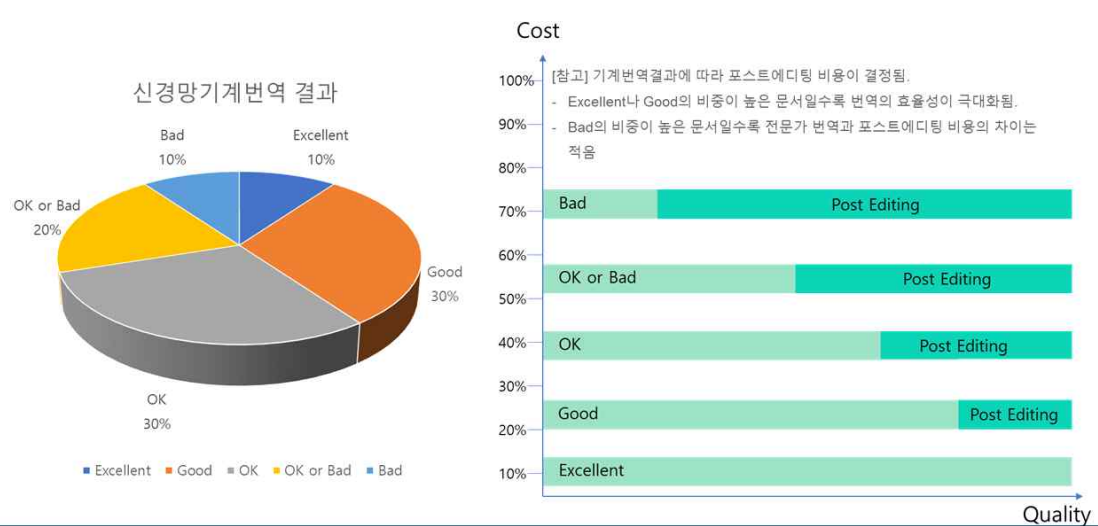
신경망기계번역(NMT)으로 번역된 결과를 포스트 에디터가 수정하여 최종 번역문을 만들어내는 작업



11. 번역 산업의 변화(Machine Translation PostEditing: MTP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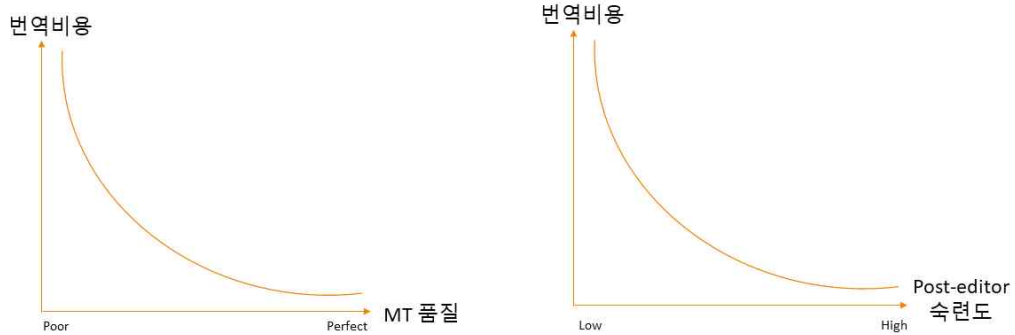


10. 기계번역 결과와 포스트에디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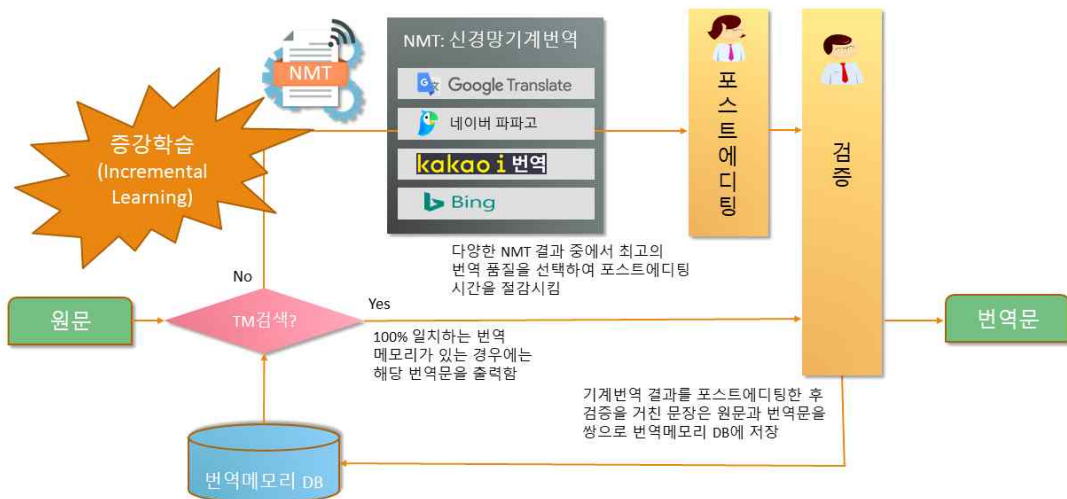


11. MTPE의 비용은 어떻게 결정되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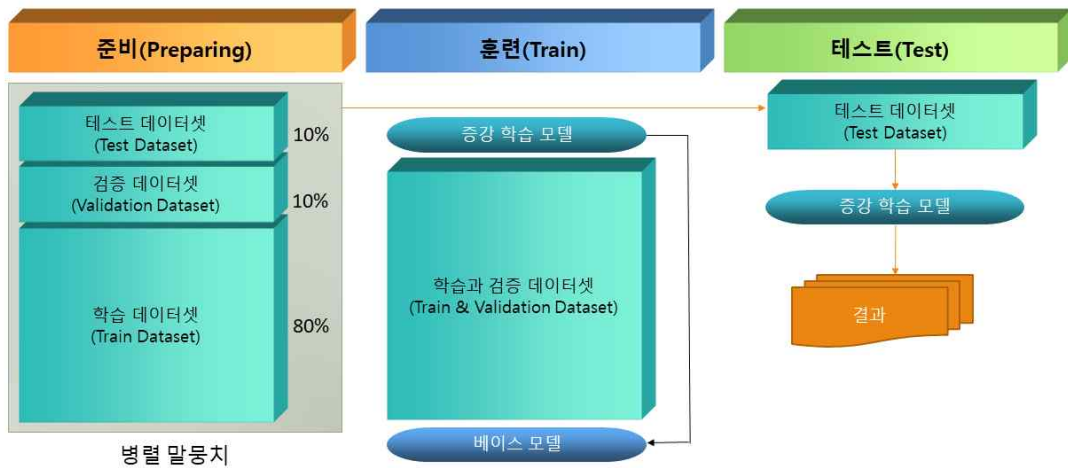
MTPE 비용은 기계번역의 품질과 포스트에디터의 능력에 따라 결정



12. 도메인별 증강학습을 통한 기계번역 품질 향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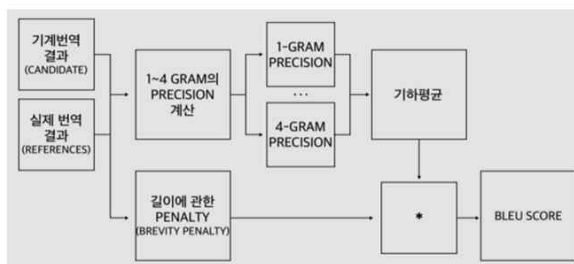
13. 구글 AUTOML 번역의 생성 과정



14. 인공지능망 기계번역의 품질 평가

BLEU(Bilingual Evaluation Understudy Score) 점수

- 1) 기계번역결과와 휴먼번역결과에서 1-gram ~ 4-gram에 대한 값을 계산한다.
- 2) 4개의 결과를 기하평균을 내서 정확도(Precision)을 산출한다.
- 3) 길이에 대한 패널티(Brevity penalty)를 곱해서 BLEU값을 계산한다.



BLEU 점수	해석
10점 미만	거의 의미 없음
10~19점	핵심을 파악하기 어려움
20~29점	요점은 명확하지만 많은 문법적 오류가 있음
30~40점	이해할 수 있는 양호한 번역
40~50점	고품질 번역
50~60점	매우 우수한 품질의 적절하고 유창한 번역
60점 초과	대체적으로 사람보다 우수한 품질

15. 인공지능기계번역과 증강학습번역 품질 비교 - 사례

- 1) 조례 중 30문장을 전문번역가가 번역하여 휴먼번역문을 준비
- 2) 동일한 문장을 구글과 파파고로 번역한 결과를 준비
- 3) 조례 관련 병렬코퍼스를 이용하여 조례 전용 증강학습모델을 구축하고, 동일한 문장을 번역한 결과를 준비

원문	휴먼번역	구글	파파고	증강학습모델
개인·법인 또는 단체는 독립기념관의 업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독립기념관에 돈이나 그 밖의 재산을 출연하거나 기부할 수 있다.	Any individual, corporation, or organization may contribute or donate money or other property to the Independence Hall of Korea to assist the Independence Hall of Korea in its affairs.	Individuals, corporations or organizations may contribute or donate money or other property to the Independence Hall to support the performance of the Independence Hall.	Individuals, corporations or organizations may contribute or donate money or other assets to the Independence Hall to support the work performance of the Independence Hall.	Individuals, corporations or organizations may contribute or donate money or other property to the Independence Hall of Korea in order to support the performance of its affairs.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침과 표준을 정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해당 분야별로 기준제정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Where deemed necessary for determining guidelines and standards referred to in paragraph (1), the Minister of Employment and Labor may organize and operate standard formulation committees in the respective fields.	If the Minister of Employment and Labor deems it necessary to establish guidelines and standards under paragraph (1), he / she may organize and operate a standards-setting committee for each sector.	The Minister of Employment and Labor may organize and operate a standard-setting committee in each area if he or she acknowledges it is necessary to set guidelines and standards under paragraph 1.	The Minister of Employment and Labor may, if deemed necessary in formulating guidelines and standards under paragraph (1), organize and operate a standards-setting committee for each relevant field.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필요하면 제1항에 따라 지원을 받은 자에게 지원받은 사업에 대한 사업결과보고서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The Minister of Science and ICT may request a person in receipt of support under paragraph (1) to submit a report on the results of a project for which he/she receives support if deemed necessary.	The Minister of Science and ICT may, if necessary, request the person receiving assistance under paragraph (1) to submit a project result report on the project.	The Minister of Science, Technology,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may, if necessary, request that the person receiving the support submit a report on the project result.	If necessary, the Minister of Science and ICT may request a person who has received support pursuant to paragraph (1) to submit a report on the results of the project.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의 실태조사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 기관·단체에 게임산업관련 현황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The head of a relevant central administrative agency may request local governments and relevant institutions or organizations to submit materials on the current status related to the game industry for the purpose of investigating the status referred to in paragraph (1).	The head of the relevant central administrative agency may request local governments and related organizations and organizations for the current status of the game industry.	The head of the relevant central government agency may request the local government and related agencies and organizations to provide data on the current status of the game industry for a survey of the situation under paragraph 1.	The head of a related central administrative agency may request local governments and related institutions and organizations to provide data on the current status of the game industry for the fact-finding survey referred to in paragraph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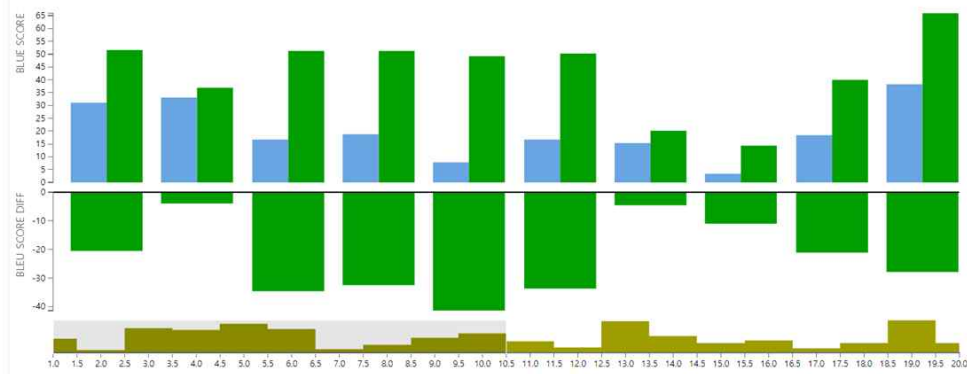
16. 인공지능기계번역과 증강학습번역 품질 비교 - 사례

지자체 조례 번역 모델 생성

- 1) 1-gram부터 4-gram까지의 개별값과 가중치를 부여한 누적 정확도(Precision)를 계산
- 2) 문장의 길이 보정값을 정확도(Precision)에 반영
- 3) 조례 병렬코퍼스로 구축된 증강학습모델의 BLEU는 구글번역이나 파파고 번역에 비해서 월등히 우수함이 입증

항목	Google 번역				Papago 번역				증강학습번역			
BLEU점수	32.15				31.20				51.80			
정확도 x 문장길이보정 (Precision * Brevity Penalty)	36.71 x 87.58				36.07 x 86.50				52.00 x 99.62			
유형	1-gram	1-gram	1-gram	1-gram	1-gram	1-gram	1-gram	1-gram	1-gram	1-gram	1-gram	1-gram
개별	71.63	43.11	28.75	20.47	69.78	42.36	28.62	20.00	76.69	56.97	45.59	36.71
누적	62.73	48.67	39.07	32.15	60.36	47.03	37.97	31.20	76.39	65.85	58.18	51.80

17. 증강학습모델과 파파고번역의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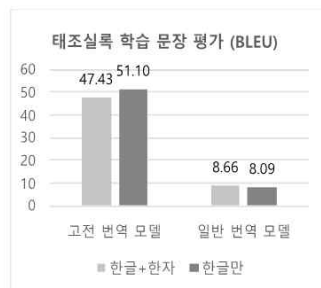


[참고] AI를 통한 한국고전번역: 실험과 가능성 - 번역학회(2019. 9. 29)에서 발표된 자료

유영우(호남대), 최병현(호남대), 정의용(시스트란), 신석환(솔트룩스파트너스)

한글 원문 데이터는 국사편찬위원회의 홈페이지에 게시된 조선왕조 태조실록의 국역문이며, 영어 원문 데이터는 하버드 대학에서 출간한 "The Annals of King T'aejo"(저자 최병현)에서 추출하였다.

태조실록의 한글과 영어 문장으로 기계 학습하기에는 너무 작은 양이기 때문에 일반 문어체 한영 말뭉치 약 600만 문장을 기계 학습에 사용하였으며, 태조실록의 정제된 한영 말뭉치는 총 18,668 문장이다. 태조실록의 한글에는 한문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한자를 제거한 한글 문장과 한자를 포함한 한글 문장으로 확장하였으며 태조실록의 최종 학습 데이터는 총 37,736 문장이다.



태조실록 평가



정조실록 평가



감사합니다.